

文學碩士 學位論文

해인사 원당암 석조물의 건립시기와
9세기 가람배치 연구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반 수 정

2021年 12月

해인사 원당암 석조물의 건립시기와 9세기 가람배치 연구

指導教授 오세덕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1年 12月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반 수 정

반수정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21年 12月

목 차

I. 머리말	p. 1
1. 연구목적	p. 1
2. 연구범위와 방법	p. 3
3. 선행연구	p. 4
II. 연혁	p. 10
1. 원당암의 위치와 당우	p. 10
1) 위치	p. 10
2) 당우(현재)	p. 11
2. 원당암의 사명변화와 연혁	p. 17
1) 사명의 변화	p. 17
2) 연혁	p. 21
III. 산지가람의 공간구성과 원당(願堂)	p. 24
1. 입지변화 및 석단조영	p. 24
1) 입지에 따른 가람배치의 변화	p. 24
2) 석단의 조영방식	p. 32
2. 신라의 원당 기록	p. 45
1) 중고기의 원당	p. 45
2) 통일기의 성전사원	p. 46
3) 신라왕들의 원당	p. 46
4) 왕족·귀족·승려들의 원당	p. 47
5) 조사들의 영당	p. 49
IV. 석조물의 건립시기	p. 52
1. 초석 및 석조기단재	p. 52
1) 초석	p. 52

2) 석조기단재	p. 59
2. 청석탑	p. 71
1) 기단부	p. 73
2) 탑신부	p. 81
3) 상륜부	p. 88
2. 기타 석조물	p. 94
1) 석등	p. 94
2) 배례석	p. 99
V. 나말여초 산지가람의 배치방식과 원당암의 9세기 가람	p. 102
1. 가야산 주변 가람과 고려 초의 진전가람	p. 102
1) 가야산 주변 가람	p. 102
2) 고려 초의 진전가람	p. 106
2. 원당암의 9세기 가람배치 추정	p. 115
VI. 맺음말	p. 123
[참고문헌]	p. 126
[사진출처목록]	p. 133
[그림출처목록]	p. 134
[부록 1]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문헌 목록과 내용 ..	p. 136
[부록 2] 봉서사판 불교전적 목록	p. 138
[부록 3] 원당암이 표기된 고지도	p. 145
[부록 4] 조위, 『매계집』, 「서해인사전권후」	p. 150
[부록 5] 최치원,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량기」	p. 151
국문초록	p. 152
Abstract	p. 154

【표 목록】

[표 1] 선행연구	p. 9
[표 2] 원당암 당우(현재)	p. 16
[표 3] 원당암의 사명 변화	p. 20
[표 4] 원당암의 연혁	p. 23
[표 5] 연구사찰의 가람배치·석단·탑 I	p. 43
[표 6] 신라의 원당	p. 49
[표 7] 통일신라 초석의 형식비교	p. 53
[표 8] 이중주좌 초석표	p. 54
[표 9] 호형 부연이 있는 부재표	p. 60
[표 10] 기둥이 있는 부재표	p. 61
[표 11] 호형 귀틀석 부재표	p. 65
[표 12] 각형모접이 부재표	p. 66
[표 13] 우리나라 청석탑 현황	p. 71
[표 14] 청석탑 기단부	p. 79
[표 15] 원당암·수정사지·천왕사지 면석비교	p. 82
[표 16] 청석탑 탑신부	p. 87
[표 17] 청석탑과 금당 주불과의 관계	p. 92
[표 18] 연구자별 청석탑 연대추정표	p. 93
[표 19] 개태사지와 승선사지 비교	p. 112
[표 20] 연구사찰의 가람배치·석단·탑 II	p. 114

【사진 목록】

[사진 1]	원당암 현재 가람배치	p. 11
[사진 2]	화엄사 정면 석단	p. 36
[사진 3]	화엄사 배면 석단	p. 36
[사진 4]	영암사지 석단	p. 39
[사진 5]	부석사 석단	p. 40
[사진 6]	동화사 석단	p. 42
[사진 7]	원당암 석조기단재	p. 59
[사진 8]	보광전 기단	p. 63
[사진 9]	심우당 기단	p. 63
[사진 10]	원당 기단	p. 64
[사진 11]	심검당 기단	p. 65
[사진 12]	경남 합천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 기단(유리건판)	p. 67
[사진 13]	보광전 전경	p. 68
[사진 14]	보광전의 연화문과 안상문 기단	p. 68
[사진 15]	원당 전경	p. 69
[사진 16]	적층식 유형의 청석탑	p. 74
[사진 17]	가구식 유형의 청석탑	p. 76
[사진 18]	불상대좌식 유형의 청석탑	p. 77
[사진 19]	초기 청석탑의 결구방식	p. 84
[사진 20]	청석탑 기단부 형성과정	p. 90
[사진 21]	경남 합천 해인사 원당암 석등(유리건판)	p. 97
[사진 22]	원당암 배례석	p. 100
[사진 23]	원당암 석단	p. 116
[사진 24]	영암사지와 실상사 백장암	p. 119

【그림 목록】

[그림 1]	황룡사 1차 가람배치도	p. 26
[그림 2]	황룡사 2차 가람배치도	p. 26
[그림 3]	분황사 가람배치도	p. 27
[그림 4]	사천왕사 가람배치도	p. 28
[그림 5]	망덕사지 추정 가람배치도	p. 29
[그림 6]	불국사 가람배치도	p. 31
[그림 7]	화엄사 가람배치도	p. 35
[그림 8]	영암사지 가람배치도	p. 38
[그림 9]	부석사 가람배치도	p. 42
[그림 10]	보광전 초석 위치 및 모양	p. 56
[그림 11]	보광전 초석 위치 및 번호	p. 56
[그림 12]	심우당 초석 위치 및 모양	p. 57
[그림 13]	심우당 초석 위치 및 번호	p. 57
[그림 14]	원당 초석 분류	p. 58
[그림 15]	원당 초석 위치 및 번호	p. 58
[그림 16]	심우당 기단부 면석	p. 62
[그림 17]	화단 부재	p. 62
[그림 18]	청석탑 분포도	p. 72
[그림 19]	합천 청량사 가람배치도	p. 103
[그림 20]	법수사지 가람배치도	p. 105
[그림 21]	불일사지 가람배치도	p. 108
[그림 22]	송전사지 가람배치도	p. 110
[그림 23]	개태사지 가람배치도	p. 111
[그림 24]	9세기 말 원당암 가람배치도	p. 122

I. 머리말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해인사 원당암의 9세기 말 가람을 추정하고, 당대 산지사찰에서 처음 출현하는 강당이 신라하대 왕실의 원당으로 기능함으로써 왕실 영당의 구체적인 건축사례일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교 전래 후, 신라의 산지에는 초옥이나 토굴과 같은 초기 형태의 산지소찰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공식적으로 불교가 공인된 시기부터는 사찰의 창건이 늘어남에 따라 가람의 입지가 변화되어 갔다. 이는 산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요인도 작용하였지만 당시 唐에서 유학한 조사들에 의한 선종의 확산, 특정 불교학파의 집중화에 따른 화엄십찰¹⁾의 건립, 풍수지리설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당암은 해인사와 창건 연도가 같은 유서깊은 가람으로 경내에 산재하는 통일신라시대의 부재나 오래전에 보물로 지정된²⁾ ‘합천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을 통해 원당암의 사력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금당의 아미타여래삼존상과 이 불상의 복장유물 및 복장전적도 보물 지정되었는데³⁾, 불상복장기문에서는 신라하대의 열조(烈祖)가 언급되어 있어 당대 원당암의 사격이 짐작된다. 이는 사역 內 초석이나 기단재 등의 석조물과 청석탑, 석등 등 독특한 조형물의 시기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 의상화엄진교십찰(義湘華嚴傳教十刹)이라고도 한다. 의상이 화엄교학을 전파한 사찰이 열 곳이라 하는데, 그 이름은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다. 『三國遺事』 「의상진교조(義湘傳教條)」에는 태백산의 부석사(浮石寺), 원주의 비마라사(毘摩羅寺), 가야산의 해인사(海印寺), 비슬산의 옥천사(玉泉寺), 금정산의 범어사(梵魚寺), 남악(南岳)의 화엄사(華嚴寺) 등 6개 사찰이며,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에 실린 사찰은 중악공산(中岳公山)의 미리사(美理寺), 남악 지리산의 화엄사, 북악 부석사, 강주(康州) 가야산 해인사 및 보광사(普光寺), 웅주(熊州) 가야협(迦耶峽) 보원사(普願寺), 계룡산 갑사(岬寺), 남주(良州) 금정산 범어사, 비슬산 옥천사, 전주 무산[母山] 국신사(國神寺), 한주(漢州) 부아산(負兒山) 청담사(靑潭寺) 등 10개의 사찰이다.

2) 1970.06.24. 지정(등록)되었다.

3) 합천 해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腹藏遺物)은 불상 3구, 복장유물 8건 23점이다. 2020.08.27. 지정 등록되었다. /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腹藏典籍)은 大方廣佛華嚴經 晉本(23첩), 諸陀羅尼(1첩), 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5첩) 등이다. 2020.08.27. 지정(등록)되었다.

원당암은 산지가람이다. 경주의 강변에서 시작된 사찰 건립은 구릉지를 거쳐 심산유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사찰의 기초조성이나 가람배치 방식이 달라진다. 또한 사역의 확보를 위한 석단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가람의 공간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더해진다. 불국사는 신라 산지가람의 신호탄으로 극락전 영역에서부터 산지가람의 배치방식이 시작된다. 이후 신라의 산지사찰은 강당이 없는 배치방식이 이어지다 원당암에서 처음으로 강당이 출현한다. 원당암의 강당은 현재의 당우 ‘願堂’과 관련성이 깊어 보인다.

원당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소원을 비는 堂으로 당대에는 일족의 안녕을 빌고 사후에는 선대 조상을 추념·추복하는 장소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뿌리나 내력을 중시하고 조상을 귀히 여기는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조상을 숭배해 온 고대문화가 불교공인과 융합되어 사찰 內 건립된 왕실 조상숭배처가 원당이다. 원당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서에만 보이는 것으로 신라때부터 사용하였다.⁴⁾

원찰에서 시작한 신라 원당은 흥륜사에서부터 비롯되어 여기에 국왕의 진영을 봉안함으로써 원당은 영당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된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탑 역시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묘당이었으므로 일종의 영당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광의의 의미에서는 불탑 뿐 아니라 승탑이나 원탑 역시 영당의 범주에 들어간다 할 것이다. 신라 원당의 기록은 가까이는 2017년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유물 특별전 願堂』에서 공개된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중수발원문의 「불상복장기문」에서 나왔으며, 2005년에는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에서도 목서명의 願文⁵⁾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 조선시대 조위는 해인사를 위흥⁶⁾의 원당으로 해석하는 등 신라왕실의 원당 기록은 탑지, 금석문, 문집 등을 통해 많이 발견되었지만 원당에 대한

4)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p. 218.

5) 오른쪽(총 17자) : 誓願大角干主燈(?)身賜彌右座妃主燈身得(?) / 왼 쪽(총 14자) : 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渠金着成 ; 金昌謙, 「합천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의 ‘大角干’銘 墨書」, 신라사학보 제4호, 신라사학회, 2005, p.302의 내용을 참고로 하였다. 조범환은 비로자나불상의 목서명에 대해 헌강왕이 그의 조부와 조모를 추복하기 위해서라 하였고, 한기문은 위흥 夫妻의 원문이라 각각 해석하였다. 조범환, 「9세기 海印寺 法寶展 毗盧遮那佛 조성과 檀越세력」, 『민족문화』 45, 2015, p. 98; 이문기, 「883년 金魏弘의 海印寺 비로자나불상 造成의 背景과 意味」, 『대구사학』 119, 2015, p. 1.

6) 『三國遺事』 王曆篇 및 같은 책 券2 紀異篇 진성여대왕 居陀知조에는 위흥을 진성왕의 ‘남편[匹, 夫]’이라 하였다.

포괄적인 개념만 있을 뿐 왕실 조상숭배처로서의 중요성에 비해 그 건축적 형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원당암에 유존하는 초석과 기단재를 비롯한 석조물의 양식과 청석탑, 석등, 배례석 등 조형물의 시기성 검토를 통해 가람배치 요소를 고찰한 후, 9세기 말 원당암의 가람배치를 추정하고 이어 신라 원당에 대한 사료를 통해 원당암의 강당이 신라하대 왕실의 원당임을 추론하여 왕실 영당의 구체적인 건축사례가 될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원당암의 당우 ‘원당’은 현재의 사명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신라하대는 왕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원당 건립이 활발한 시기로 원당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이에 본고는 원당암 주존인 아미타불의 「불상복장기문(佛像腹藏記文)」[부록 1], 조위의 「서해인사전권후(書海印寺田券後)」[부록 4], 최치원의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량기(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부록 5]에 따라 9세기 말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원당암 석조물의 건립시기와 9세기 가람배치 추정에 대한 연구방법은,

Ⅱ장은 원당암의 위치, 당우, 사명의 변화와 중수·중창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치와 당우는 원당암 현재의 개요를 살폈으며, 사명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선 초 불교전적의 간기, 조선후기 시인묵객들의 문고집, 규장각의 고지도 등을 통해 부족한 사료를 보충하였다. 원당암의 연혁은 『가야산해인사지』, 국가기록원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Ⅲ장은 산지가람의 공간구성과 신라의 원당 기록을 살펴보았다. 산지가람의 공간구성에서는 입지에 따른 가람배치 방식의 변화, 기초조성, 석단의 조영방식에 따른 신라사찰의 구분을 통해 초기가람의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특히, 산지가람에서 사역의 범위를 한정짓는 석단과 축선에 대해서는 초창기 가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각 사찰에서 석단과 축선을 함께 기술하였다. 신라의 원당 기록에 대해서는 V-1장에서 다루어질 원당암의 가람배치상에 출현한 강당이 신라왕실의 원당임을 추론하기 위해 관련 사료를 기술하였다.

Ⅳ장은 원당암에 남아있는 석조유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9세기 원당암의

가람 모습을 추정하기 위해 초석을 비롯한 석조기단재를 살펴 건물의 기단부를 고찰하였으며, 탑·석등·배례석 등의 조형물에 대해서도 시기성을 통해 당대 가람 內 조영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석은 수치의 분석을 통해 왕경사찰과 비교하여 원당암의 사격을 살펴보았고, 건물기단에 대해서는 경내에 남아있는 유사성이 높은 부재를 간이 실측하여 당대의 건물 數와 석조기단의 모습을 고찰하였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청석탑은 신라 석탑사의 흐름 속에서 청석탑의 시원탑이 됨을 고찰하였고, 석등은 당대 가야산 지역 석조문화의 특성과 탑·석등의 연관성을 통해 원당암의 조형물이 신라하대에 건립되었음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V장은 원당암의 9세기 말 가람을 추정하기 위해 가야산 주변 통일신라 사찰의 가람배치와 고려 초 원당사찰의 가람배치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원당암에 강당이 출현함을 알아본 후, III-1장과 IV장에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9세기 말 원당암의 가람배치를 추정하였다. 이와 함께 원당암의 가람배치상에 처음 출현한 강당은 III-2장의 고찰을 통해 신라왕실의 원당임을 추론하여 원당암의 강당이 왕실 영당의 구체적이고 시원적인 형태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3. 선행연구

원당암은 해인사와 창건 연도가 같다. 신라하대에 창건된 해인사에 대해서는 명성만큼이나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원당암은 유서깊은 가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찰인 해인사의 명성에 가려진 채 그 연구성과는 미미하다. 원당암과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원당암에 유존하는 조형물에 대한 장충식의 연구가 있으며⁷⁾, 2017년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유물 특별전 願堂』과 관련하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 관한 연구⁸⁾와 이불상의 복장직물⁹⁾ 및 복장전적¹⁰⁾에 대한 연구, 해인사 산내암자의 풍수에

7) 張忠植, 「海印寺 願堂 石造物에 對하여」, 『大學院研究論集-東國大學校 大學院』 7, 1977, pp. 23-32.

8) 정은우·유대호,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美術史論壇』 45, 2017, pp. 53-78.

9) 박윤미·강선정,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직물의 특성」, 『南道文化研究』 38, 2019, pp. 387-421.

10) 손진원, 「海印寺의 大寂光殿·法寶殿·願堂庵 발견 腹藏典籍의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9.

대한 연구¹¹⁾ 등이 있다.

사찰의 가람배치에 대한 연구는 후지시마 가이지로를 효시로 볼 수 있으며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사지를 발굴하고 조사·연구하였다. 가람배치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건축적·지리적·조경적 관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의 입지선정에서부터 공간구성의 형식으로까지 활발하게 연구되었다.¹²⁾

다음으로 원당과 관련하여 사찰의 영당영역에 대한 연구성과는, 고려 진전사원에 대한 자료와 유구는 남아있으나 신라의 원당에 대해서는 기록뿐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신라의 성전사원에서 봉사(奉祀)의 기능이 있었으므로 신라의 성전사원을 고려 진전사원의 배경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채상식, 이영호, 김창겸, 박남수의 연구성과가 있으며¹³⁾, 고려 초의 진전사원에 대한 연구로는 한기문, 김성환, 허홍식의 연구가 있다.¹⁴⁾

다음으로 석조물에 대한 연구성과는, 기단과 초석에 대해서는 한옥과 김상태의 연구가 있다.¹⁵⁾ 오세덕은 통일신라의 초석에 대해 형식을 비교하였

11) 임금선, 「가야산 해인사 산내 암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지리적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3.

12) 가람배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尹範模, 「浮石寺의 創建과 伽藍配置」, 『東國思想』 9, 1976, pp. 115-129; 金奉烈·朴鍾進, 「高麗 伽藍의 構成形式에 관한 基礎的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26, 1989, pp. 27-36; 조창한·이현식, 「한국사찰건축의 배치구성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10(1), 1990, pp. 143-146; 홍광표, 「新羅寺刹의 空間形式變化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2; 金逸林, 「한국 불교 사찰의 입지유형과 경관구성」,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6; 金奉烈, 「朝鮮王室 願堂寺刹建築의 構成形式」, 『大韓建築學會論文集』 93, 1996, pp. 97-106; 오세덕, 「충주 崇善寺址 유구분석을 통해 본 寺格과 가람배치 變化」, 『한국고대사탐구』 26, 2017, pp. 153-182; 정필심, 「통일신라시대 사찰배치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0; 이기홍, 「9~11세기 사찰의 금당형식을 통해 본 사찰배치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정인중, 「삼국 및 통일신라 산지사찰의 형성과 변천과정」,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심창진, 「한국 전통사찰의 지형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전익정, 「한국 사찰 내 강당의 건축 형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3; 윤정혜, 「통일신라시대 화엄사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5.

13) 蔡尙植,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1984, pp. 81-119; 李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한국사연구』 43, 1983, pp. 81-114; 김창겸, 「통일신라시대 왕릉의 불교적 시설과 陵寺」, 『한국고대사탐구』 31, 2019, pp. 9-46; 朴南守, 「新羅 眞殿寺院의 조영과 그 思想的 背景」, 『新羅文化』 40, 2012, pp. 49-74.

14) 韓基汶, 「高麗時代 開京 奉恩寺의 創建과 太祖眞殿」, 『韓國史學報』 33, 2008, pp. 205-246; 김성환, 「고려시대 太祖의 眞殿과 奉業寺」, 『先史와 古代』 57, 018, pp. 55-77; 許興植, 「佛敎와 融合된 高麗王室의 祖上崇拜」, 『東方學志』 45, 1984, pp. 1-58.

다.¹⁶⁾ 탑은 가람배치에서 중요한 핵심이다. 석탑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성과가 있다. 청석탑에 대한 연구 역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고찰보다는 단일의 탑에 대해 연구하였다.

청석탑은 형태나 재료면에서 특수형 다층석탑으로 이형석탑의 범주에 속한다. 한상훈은 그의 연구를 통해 현존하는 청석탑을 분석하여 청석탑의 양식계통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¹⁷⁾, 홍대환은 청석탑의 재료나 조성기록을 토대로 청석탑의 현상을 파악하여 탑의 조성연대를 나름대로 추정하였다.¹⁸⁾ 이에 대해 전민숙은 청석탑의 결구방법을 통해 건립기법의 유형을 분류하여 양식적인 특성을 연구하였다.¹⁹⁾ 단일의 청석탑에 대해서는 대곡사, 세심사, 법화사, 여적암, 보문사, 영월 무릉리 등의 청석탑에 대한 소략의 연구가 있다.²⁰⁾ 2000년대 들어서는 청석탑 부재가 출토된 사지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선은 제주 수정사지의 연구에서 청석이 산출된 지역에서 채굴·가공된 후 교통로를 따라 이동되었을 것을 연구하였다.²¹⁾ 그 외 천왕사지, 도적사지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²²⁾ 미면사지는 적석탑과 청석탑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²³⁾ 여기서 출토된 청석탑의 부재는 문경새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특수형 석탑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진흥섭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자는 특수양식의 석탑에 대한 내용 및 그 실태와 후대 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²⁴⁾ 그 외 마애불과 청석탑

15) 한옥, 「고대 백제·신라·일본의 초석 형태에 따른 공간위계 비교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7(6), 2008, pp. 3-10; 김상태, 「사천왕사 초석의 장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1), 2007 pp. 3-10.

16) 오세덕, 「遠願寺址 석조물의 조성시기와 가람배치 변화 추정」, 『新羅史學報』 35, 2015 pp. 137-168.

17) 韓尙勳, 「高麗時代의 特殊形 石塔에 關한 研究 - 靑石塔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82.

18) 洪大韓, 「高麗時代 靑石製 多層石塔 考察 I」, 『文化史學』 32, 2009, pp. 109-141.

19) 전민숙, 「고려시대 청석탑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pp. 97-130.

20) 崔成鳳, 「義城郡大谷寺의 靑石塔」, 『美術史學研究』 26, 1962, p. 291; 鄭明鎬, 「牙山 神心寺의 靑石塔」, 『美術史學研究』 6, 1961, pp. 62-63; 金正基, 「靈山 法華庵의 靑石塔」, 『美術史學研究』 3, 1960, pp. 31-32; 張忠植, 「俗離山과 雉岳山の 靑石塔 二例」, 『美術史學研究』 126, 1975, pp.24-25; 鄭永鎬, 「寧越 武陵里的 靑石塔과 磨崖坐佛」, 『미술사학연구』 2(9), 1961, pp. 154-155; 정영호, 『고고미술 첫걸음』, 학연문화사, 2000.

21) 김선, 「제주 수정사지 출토 청석탑의 제작지 검토」, 『고문화』 95, 2020, pp. 67-86.

2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경기1-」, 2013; 엄기표, 「襄陽 道寂寺址의 史蹟과 靑石塔」, 『博物館誌』 20, 2013, pp. 19-38.

23) 임세권, 「문경 소야리 미면사지의 계단식 적석탑과 출토유물」, 『安東史學』 6, 2001, pp. 1-29.

24) 秦弘燮, 「統一新羅時代 特殊樣式의 石塔」, 『美術史學研究』 158·159, 1983, pp. 19-36.

의 관계에 대한 연구²⁵⁾와 특정지역 석탑 연구의 일부로 청석탑이 소개된 경우²⁶⁾도 있다.

원당암 석등은 형태나 재료면에서 이형석등에 속한다. 석등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 석등의 양식사와 석등의 종류 및 백제지역 석등에 대한 정명호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며²⁷⁾, 장충식은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에 대해 연구하였다.²⁸⁾ 뒤이어 박경식은 한국 석등의 기원과 관련하여 연구하였고 특히 9세기의 석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²⁹⁾. 최근에는 불교문화재 중 석등에 대한 주제만을 다룬 연구도 나와 있다.³⁰⁾ 그 외 쌍사자 석등, 고북형 석등, 인물형 석등을 비롯한 이형석등에 대한 각각의 연구성과가 있으며³¹⁾, 원당암의 육각형 석등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석등조사 보고서가 있다.³²⁾

배례석은 탑이나 석등의 부속물로 여겨져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였으나 최근 전통사찰의 봉로대에 대한 연구성과가 있다.³³⁾ 이 외에 통도사 배례석

25) 정성권, 「영월 무릉리 마애여래좌상과 청석탑의 조성시기와 배경」, 『東岳美術史學』 21, 2017, pp. 81-115.

26) 전민숙, 「고려전기 석탑의 특성 연구」, 『東岳美術史學』 15, 2013, pp. 87-115; 이재연, 「가야산 지역 신라석탑에 대한 연구」, 『東岳美術史學』 17, 2015, pp. 561-592.

27) 鄭明鎬, 「靑龍寺普覺國師塔碑와 石燈」, 『古考美術』 5, 1964, pp. 10-12; 정명호, 「韓國 石燈의 樣式變遷 : 三國, 新羅時代 石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70; 정명호, 「百濟時代의 石燈 : 彌勒寺址 石燈을 中心으로」, 『馬韓百濟文化』 1, 1975, pp. 113-141; 정명호, 「益山地域에서 發見된 石燈을 中心으로」, 『馬韓百濟文化』 2, 1977, pp. 163-164; 정명호, 「韓國의 石燈小考」, 『東國思想』 15, 1982, pp. 57-71; 정명호, 「미륵사지석등에 대한 연구」, 『馬韓·百濟文化』 6, 1983, pp. 51-76; 정명호·안장현, 『석등』, 대원사, 1992; 정명호, 「韓國 石燈樣式史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2. ;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한국 石燈의 종류 I」, 『박물관회보』 4, 1993, pp. 5-38; 정명호, 『韓國石燈樣式』, 民族文化社, 1994. ; 단국대학교출판부, 「廣明의 韓國 石燈」, 『博物館紀要』 28, 2013, pp. 5-11.

28) 張忠植, 「統一新羅時代의 石燈」, 『美術史學研究』 158-159, 1983. pp. 61-77.

29) 박경식, 「우리나라의 석등 I」, 『古美術』 38, 1994, pp. 36-40. 외 다수

30) 홍선, 『무명의 바다를 밝히는 등대』, 놀와, 2011.

31) 박경식, 「신라하대의 고북형석등에 관한 고찰」, 『史學志』 23(1), 1990, pp. 1-24; 황호균, 「開仙洞 石燈 銘文考」, 『불교문화연구』 7, 2000, pp. 121-140; 李蘭英, 「韓國 雙獅子 石燈 樣式 研究 試論」, 『文化史學』 1호, 2002, pp. 421-450; 강정근, 「화엄사 사사자석탑과 석등 연구」, 경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3; 김나연, 「쌍사자 석등 양식 연구 -경전 근거를 중심으로-」, 능인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8; 李龜烈, 「中興山城의 쌍사자석등」, 『法輪』 110, 2018, pp. 92-96.

32) 국립문화재연구소, 『석등조사보고서 I, 간주석 편』, 1999, pp. 175-184;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의 석탑Ⅱ』, 2017, pp. 164-22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의 사지 2. 서부경남지역의 석탑』, 2011, pp. 249-256.

33) 박종석, 「한국 전통사찰의 봉로대 양식에 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

에 대한 장충식의 단일 연구가 있으며³⁴⁾, 신용철은 최근 배례석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기하였다.³⁵⁾ 이상과 같이 원당암에 대한 일부 연구와 신라 석탑, 사찰의 가람배치, 원당, 진전사원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제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표 1]

이에 대해 본고는 청석탑의 양식과 현상, 결구방법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탑에 사용된 부재 수, 결구방식, 조식수법, 표면장엄 등 다양한 측면의 고찰을 통해 청석탑의 건립시기를 신라하대로 보았다.³⁶⁾ 석등에 대해서는 청석탑에 준하여 고려 초로 보는 선행연구도 있으나, 9세기 해인사를 중심한 가야산 일원에서 활발하게 제작된 이형석등 중의 하나로 보았다. 가람배치에 대해서는 불국사, 부석사, 화엄사, 해인사 등의 석단이나 가람배치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으나 산지소찰에 대한 연구는 희박한 편으로 사역에 남아있는 초석과 기단재의 분석을 통해 당대 건물의 유무와 석조기단에 대한 고증을 통하여 가람배치를 연구한 것으로는 본고가 시초이며, 이와 더불어 왕실 원당의 건축적 사례에 관한 연구 또한 이전 연구에서는 찾을 수 없다.

위 청구논문, 2021.

34) 張忠植, 「太康十一年銘 通度寺 拜禮石考」, 『美術史學研究』 151, 1981, pp. 38-45.

35) 신용철, 「신라 불탑에 있어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영향」, 『불교학연구』 23, 2009, pp. 333-374.

36) 홍대환과 진민숙은 청석탑을 고려시대의 탑으로 보았으며, 장충식은 원당암의 청석탑에 대해서 9세기 후반 진성왕대의 作으로 보았다.

[표 1] 선행연구

번호	연구자	연구명	출처	연구내용
1	장충식	海印寺 願堂 石造物에 對하여	동국대학교대학원 대 학원연구논집, 1977.	원당 건립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원당암 석조물에 대한 시기성 고찰
2	한상훈	高麗時代의 特殊 形 石塔에 關한 研究 - 靑石塔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현존하는 청석탑을 분석하여 청석탑의 양식계통을 고려이후의 탑으로 연구
3	장충식	統一新羅時代의 石燈	考古美術 第158·159號, 한국미술사학회, 1983.	석등 건축미의 완성은 신라며 일반형 석등 뿐 아니라 이형석등이 등장하였음을 고찰
4	진홍섭	統一新羅時代 特殊樣式의 石塔	美術史學研究 Vol.- No.158·159, 한국미술사 학회, 1983.	통일신라시대 이형양식의 석탑은 거의 9세기에 출현하며 석탑의 표면장엄과 시기를 같이한다는 연구
5	박주달	7-9世紀 新羅 寺刹의 基壇에 關한 研究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가구식 기단의 특성에 대한 고찰
6	이동구	7-11C 사찰건축의 석축 조영방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과거 석축의 입면조사를 통해 석축의 특징을 고찰하고 사찰의 입지에서 석축의 변화과정을 연구
7	한옥	고대 백제·신라·일본의 초석 형태에 따른 공간위계 비교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17 No.6,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2008.	초석의 형태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시대 및 공간위계에 대한 표현상의 차이점을 연구
8	전민숙	고려시대 청석탑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사학 Vol.22, 불교미술사학회, 2016.	발굴된 유물과 잔존하는 청석탑의 부재를 통해 탑의 결구방법 및 기법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유형분석과 양식적인 특성을 고찰
9	오세덕	충주 崇善寺址 유구분석을 통해 본 寺格과 가람배치 變化	한국고대사탐구 Vol.26 No.-, 한국고대사탐구학 회, 2017.	석조물의 분석을 통한 승선사지의 건립 및 사격과 개경궁실과의 관계를 통해 원당가람형 가람형식을 제시
10	박종석	한국 전통사찰의 봉로대 양식에 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21.	봉로대의 개념 정립과 봉로대의 특징·문양·배치유형·규모를 통해 봉로대의 양식을 정리

II. 연혁

1. 원당암의 위치와 당우

1) 위치

원당암은 경상남도 합천군 치인리 산 13에 위치한다. 소백산맥 영봉 가운데의 하나인 가야산에서 뻗어 내린 비봉산(858.3m) 중턱에 있으며 해인사일주문에서 좌측으로 약 500m 떨어져 있다. 원당암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다리를 건넌다. 첫 번째 다리인 홍제교를 건너면 우측으로 홍제암 가는 길이 있으며 좌측 길에 있는 두 번째 다리인 무생교를 건너 150m정도 오르막길을 오르면 원당암이 있다. 오르막길 좌우에는 지형에 따라 석축이 가파르게 조성되어 원당암의 해발고도를 짐작케 한다. 우측의 종무소를 지나면 우람한 거목이 길 양쪽으로 직립하여 속계와 결계를 구분짓는 듯하다.

비봉산에서 흘러내린 자연구릉인 운봉교를 중심으로 예불영역과 선원영역이 원당암의 전체 사역을 이루고 있으며 금당 앞 중정에는 일명 ‘청석탑’이라 부르는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과 석등’이 조영되어 있다.

본찰인 해인사는 신라 화엄십찰 중의 하나로 화엄종의 정신적인 기반을 확충하고 선양하기 위해 신라왕실 주도로 창건되었으며, 산내암자인 원당암 역시 신라왕실과 관계가 깊다. 원당암은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안녕과 왕가의 기복·추복을 위한 도량으로서 여러 가지 아름답고 특색있는 조형물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원당암은 해인사의 산내암자 1호로 해인사와 더불어 그 역사를 같이한다.

2) 당우(현재)

원당암은 해인사의 서편에 자리한 암자로 해발 650m에 위치하는 산지가람이다. 사역 內 운봉교를 중심으로 크게 선원영역과 예불영역으로 나뉜다.[사진 1]



[사진 1] 원당암 현재 가람배치

선원영역(禪院領域)은 운봉교 向 좌측 사역으로 달마선원(達磨禪院)이다. 송불당과 원응요, 청풍당으로 되어 있다. 급경사지이므로 석단이 따로 조성되어 있으나 선원의 내부공간은 계단으로 연결된다. 원당암의 전체 사역 내에서 가장 큰 건물들이 이 영역에 배치되어 있다.

상단에 있는 송불당(送佛堂)은 동향이며 정면 9칸, 측면 4칸으로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원기둥이며 초석은 현대 가공석이다. 기단은 가공석으로 지대석·면석·갑석을 갖춘 신라 가구식 기단이다. 재가불자들을 위한 참선수행 도량이다.

하단에 있는 원응요(圓應寮)는 두 개의 건물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향이다. 아래 건물인 원응요는 정면 9칸, 측면 4칸으로 겹처마 一자형 팔작지붕이다. 원기둥이며 초석은 현대 가공석, 기단은 현대 가구식 기단이다. 식당이 있는 부속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풍당(靑風堂)은 원응요의 윗층이다. 정면 5칸의 좌우를 1칸씩 확장하여 7칸으로 한 다음 건물의 좌우를 꺾어 3칸씩을 다시 확장한 ㄷ자형 건물로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원기둥이며 초석은 현대 가공석, 기단은 현대 장대석 기단이다. 선원의 요사채로 사용되고 있다.

선원영역은 원당암의 자연석 석단에서는 벗어나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영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예불영역(禮佛領域)은 운봉교 向 우측으로 원당암의 중심사역이다. 미소굴, 보광전, 원당, 심우당, 심검당, 염화실, 무설설 등 7동의 당우가 있다. 예불영역 역시 금경사지에 조성되었으며 지형에 따라 3단으로 가람이 형성되어 있다. 상·중·하단은 각각의 석단을 조성하였다.

상단에는 미소굴과 석비가 있다. 미소굴(微笑窟)은 조계종 10대 종정과 해인총림 6대 방장을 역임하신 성관 해암선사 유물관이다. 동향이며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사각기둥이다. 초석은 자연석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현대 면석 기단이다. 석비(石碑)에는 ‘공부하다 죽어라’의 명문이 있다.

예불영역 상단은 원당암의 자연석 석단과는 수직인 가람축선 상에 있으나 20세기 확장된 사역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영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중단에는 보광전, 원당, 심우당, 심검당, 염화실, 무설설 등이 있으며 중정을 중심으로 당우가 배치되어 있다. 금당 앞에 있는 청석탑은 우리나라 청석탑의 시원탑으로 고려시대에 유행하는 이형탑이다. 청석탑과 함께 조성된 육각형 석등은 우리나라 유일의 청석제 석등이다. 배례석은 上面에는 연화문이 측면에는 안상문이 조식되어 있다. 석등·청석탑·배례석이 금당과 병열 배치되어 있어 일반 사찰에서 수직인 것과는 달라 이채롭다.

보광전(普光殿)은 원당암의 금당이다. 동향이며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겹쳐마 맞배지붕이다. 원기둥과 사각기둥이 섞여 있다. 초석은 원형주와 초석, 一자형 초석, ㄱ자형 초석 등이 사용되어 있다. 기단 정면에는 연화문과 안상문이 조식되어 있고 측·배면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부재와 후대의 부재가 섞여 있다. 보광전에는 아미타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다.³⁷⁾ 본존인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협시는 관세음보살, 우협시는 지장보살이다. 금당의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복장유물 및 복장전적과 함께 최근에 보물 지정되었음은 앞서 밝혔다. 보광전 내부에는 고승들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다.³⁸⁾ 보광전은 원당암의 자연석 석단 위에 자리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영역으로 판단된다.

당우 ‘원당(願堂)’은 금당 앞에 위치한다. 예불영역 내에서 가장 큰 건물로 일반 사찰에서는 강당으로 여겨지는 곳이나 현재 영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고에서 주목하는 건물지이다. 동향이며 정면 8칸, 측면 3칸을 기본으로 하는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배면 좌측으로 도리방향 3칸, 보방향 1칸을 확장하여 ㄴ자형 건물이 되었다. 원기둥이다. 호박돌 주초석이 대부분이며 현대 가공석과 자연석이 섞여 있다. 기단 갑석에는 귀틀석, 호형 부연이 있는 갑석, 기둥이 있는 면석재 등이 섞여 있으며, 면석은 장대석으로 석재의 규모나 크기가 압도적이다. 배면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아져 배면에는 면석만 낮게 있다. 배면에는 건물의 모양대로 툇마루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두어 청석탑과 금당을 마주 볼 수 있게 하였다. 당우 ‘원당’은 원당암의 자연석 석단 위에 자리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영역으로 판단된다.

심우당(尋牛堂)은 금당 왼쪽에 위치한다.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역 내의 경사로 인해 1층과 2층의 형태가 한 건물에서 보인다. 남향이며 정면 5칸, 측면 2칸을 기본으로 하는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건

37) “옛 기록에 의하면 원당암은 신라 애장왕 즉위 3년(802)에 해인사를 창건하고 역대 왕들의 명복을 빌었던 곳이었다. 무량수불을 주존으로 하고 좌우에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조성한 후 세월이 흘러 금박이 떨어지고 균열이 생겨 훼손되므로 숭열(崇悅)과 종안(宗眼)스님이 헌금하여 중수하니 각 존상들이 다시 새로워졌다...”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상에서 1694년 7월 17일에 기록한 백지묵서의 복장발원문 중의 중수기문 내용이다. 해인사정보박물관,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유물 특별전 願堂』, 2017, p. 20.

38) 혜암선사 진영을 포함하여 총 12위의 진영이 모셔져 있으며 다음과 같다. 向本존불 左로부터 혜암대선사(慧庵大禪師), 연곡당대선사(蓮谷堂大禪師), 연월당대선사(淵月堂大禪師), 성과당대선사(星坡堂大禪師), 침월당대선사(枕月堂大禪師), 능운당대선사(凌雲堂大禪師), 서과당대선사(西坡堂大禪師), 화월당대사(和月堂大師), 취운당대선사(就雲堂大禪師), 예봉당대선사(禮峯堂大禪師), 용봉당대사(龍峯堂大師), 영운당대선사(永雲堂大禪師)이다.

물의 좌측 일부와 배면 일부를 퇴칸만큼씩 확장하였다. 사각기둥이다. 초석은 원형주좌 초석, 一자형 초석, ㄱ자형 초석, 방형 자연석 초석, 장주형 최근 초석 등이 섞여 있다. 기단부 정면은 호형 부연이 있는 갑석이 대부분을 이루며 면석에는 기둥이 있는 면석부재가 장대석과 섞여 있다. 심우당은 통일신라시대에는 없었던 당우로 판단되나 원당암의 자연석 석단 위에 자리하여 9세기 가람에서는 건물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검당(尋劍堂)은 금당 오른쪽에 위치하며 심우당과 대칭한다. 남향이며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원기둥이다. 초석은 현대 가공석이며 기단은 장대석을 사용한 현대 가구식 기단이다. 건물의 정·배면에는 一자형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심검당은 통일신라시대에는 없었던 당우로 판단되나 원당암의 자연석 석단 위에 자리하여 9세기 가람에서는 건물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염화실(拈花室)은 금당 왼쪽에 있는 심우당 뒤편에 위치한다. 남향이며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원기둥이다. 초석은 현대 가공석이며 기단은 현대 가구식 기단이다. 염화실은 예불영역 내에 있으나 원당암의 자연석 석단에서는 벗어나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영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무설설(無說說)은 금당 왼쪽에 있는 염화실과 나란히 위치한다. 따로 쪽문이 설치되어 있고 쪽문 앞에는 하단에서 중단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다. 남향이며 정면 5칸, 측면 4칸을 기본으로 하는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건물 좌우를 퇴칸만큼씩 확장하였다. 원기둥이다. 초석은 현대 가공석이며 기단은 현대 가구식 기단이다. 무설설은 예불영역 내에 있으나 원당암의 자연석 석단에서는 벗어나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영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예불영역 중단은 원당암의 자연석 석단 위에서 금당과 동일한 축선상에 있어 9세기의 사역으로 판단된다. 금당 좌·우의 심우당·심검당은 당대에는 회랑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설설과 염화실은 20세기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예불영역 내에도 경사가 있어 강당이 금당보다 지대가 낮은 점이 주목된다.

예불영역의 하단에는 종무소가 있다.

예불영역의 하단은 가람배치 축선상에 있으나 후대에 조성된 석단 위에 있어 통일신라시대에는 없었던 영역이다.

원당암에는 현재 총 11동의 당우 외 화장실, 창고, 기타시설 등이 있다.
원당암의 현재 당우는 [표 2]와 같다.

[표 2] 원당암 당우(현재)

	선 원 영 역			예 불 영 역							
	송불당	원응요	칭풍당	상 단			중 단				하 단
				미소굴	보광전	원당	심우당	심검당	염화실	무설설	종무소
평면	9 × 4	9 × 4	7 × 1	3 × 3	3 × 2	8 × 3	5 × 2	5 × 2	5 × 4	5 × 4	-
좌향	동	동		동	동	동	남	남	남	남	-
기단	현대 가구석	현대 가구석	현대 장대석	현대 면석	연화문·안상문 조석	호형갑석·장대석	호형갑석·柱모각된 부재·장대석	현대 가구석	현대 가구석	현대 가구석	-
초석	현대 가공석	현대 가공석	현대 가공석	자연석 추정	원형주좌 초석, 一자형 초석, ㄱ자형 초석	호박돌 주초석, 현대 가공석, 자연석	원형주좌 초석, 一자형 초석, ㄱ자형 초석 방형 자연석 초석, 장주형 최근 초석	현대 가공석	현대 가공석	현대 가공석	-
기둥	주철 원기둥	주철 원기둥	주철 원기둥	칠없는 사각기둥	주철 원기둥, 주철 사각기둥	주철 원기둥	칠없는 사각기둥	주철 원기둥	주철 원기둥	주철 원기둥	-
포	출목익공	출목익공	익공	포없음	이익공	몰익공	몰익공	출목익공	출목익공	출목익공	-
처마	겹처마	겹처마	겹처마	겹처마	겹처마	홀처마	홀처마	겹처마	겹처마	겹처마	-
지붕	팔작	팔작	맞배	팔작	맞배	팔작	팔작	팔작	팔작	맞배	-
평면	一 字	一 字	ㄷ 字	一 字	一 字	ㄴ 字	一 字	一 字	一 字	一 字	-
석단과 의 관계	無	無	無	수직	수직	수직	수평	수평	無	無	수직
비고 I	달마선원	식당	요사채	혜암선사 유물관	금당	영단	사)혜암선사 문화진흥회	-	-	-	-
비고 II	수행공간	부속공간	건물확장	石碑	-	건물확장 뿔마루 있음	건물확장	뿔마루 있음	-	건물확장	-
※ 예시) 남서서-북동동의 좌향은 편의상 남-북으로 하였다.											

2. 원당암의 사명변화와 연혁

1) 사명의 변화

원당암은 “해인사의 창건³⁹⁾과 동시이므로 산중에서 가장 오래된 암자이다. 창건 당시에는 비봉산 기슭에 있다하여 봉서사라 이름”⁴⁰⁾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사료의 부족으로 사명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조선 초에 들어서 봉서사라는 사명은 불교전적에서 주로 발견된다.[부록 2] 대장경은 처음에는 고려 현종-숙종때 만들어졌다. 대구 부인사에 봉장되어 있던 고려초조본 대장경과 고려속장경이 몽고병에 의해 불타버리자 고종대에 불력의 도움을 빌기 위해 다시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봉서사 뿐 아니라 해인사 인근 지역인 월광사나 석수암에서도 사간장이 간행되었다.⁴¹⁾

1499년에 간행된 선수행에 관한 불교서인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의 간기에서 봉서사라는 사명이 창건이후 처음 나오기 시작한다. 봉서사에서는 1499-1501년 사이 『목우자수심결』외에도 『선종유심결(禪宗唯心訣)』,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尚禪要)』 등의 불교서를 인각하거나 개판하였으며 1857년에는 『진묵조사유적고(震默祖師遺蹟考)』를 간행하였다. 특히 1500년에 집중적으로 개판된 『현수제승법수』의 간기에는 ‘해인사노납등곡발(海印寺老納燈谷跋)’이라는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학조스님⁴²⁾이 1490년 해인사 중창을 마무리한 후 前 단속사 주지였던 신문선사와 함께 1495년에 원당암을 중창하고 해인사에 주석하면서 불경을 간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18세기이후 봉서사는 원당사, 봉서사, 원당정토사(院堂淨土社), 본원사(本

39) 『三國史記』, 新羅本紀 卷 10, 哀莊王 3年條, “8월에 가야산 해인사를 창건하였다.”.

40) 李智冠, 『伽倻山 海印寺誌』, 伽山文庫, 1992, p. 613.

41) 김영선, 「해인사 소장책판의 판각처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8, 1998, pp. 420-421.

*月光寺; 경상남도 함천군 야로면 월광리에 있었으며 지금은 월광사 터만 남아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동·서 삼층석탑이 있다.

*石水庵; 경상남도 함천군 야로면 나대리에 소재한 사찰이었다.

월광사 사찰본; 三十八分功德疏經(1331), 석수암 사찰본; 禪宗永嘉集(1499)

42) 학조(學祖:?-?)는 조선전기 금강산 유점사, 해인사 대장경판당 등을 중창한 승려로 역경승이다. 이칭은 등곡(燈谷), 황악산인(黃岳山人). 법주사 북천암에 학조등곡화상탑이 있으며 1514년(중종 9)에 조성하였다.

願社), 보광암(普光庵), 원당, 원당암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졌다.

영조 후기에 간행된 『춘주유고』의 「남유기」에서 “... 아래로 자그마한 국 일암이 앉아있고 1리 아래 도랑을 건너면 원당사로 들어갈 수 있다. 또 북쪽으로 건너가면 홍제암으로 들어가는데 돌아서 가면 관음전이다.”⁴³⁾는 내용에서 원당사가 나온다.

1878년 간행된 유척기⁴⁴⁾, 『지수재집』의 「유가야기」에서는 “... 절 밖에 또 소나무 숲 언덕에 부도가 있고 곧 원당사를 찾을 수 있다. 절 서쪽 방향의 땅이 움푹하게 파여서 도저히 그 밑을 볼 수가 없다. 스님이 전하는 말로는 신라 애장왕 창건 云云 해인사에 이른다.”⁴⁵⁾라 하여 원당사가 나온다.

18세기 말 유기스님⁴⁶⁾은 『호은집』의 「봉서사권선문⁴⁷⁾」에서 “초창 후 세월이 오래되어 기와가 흩어지고 기둥이 썩어버린 봉서사를 開어지고자 하면서, 속백(粟帛) 등을 시주하면 준공 후에 향을 사르고 장수를 빌어주겠노라.”⁴⁸⁾라 하여 봉서사라는 사명이 다시 나온다.

조선 후기의 문신 최홍원⁴⁹⁾은 『백불암선생문집』에서 “... 산의 서쪽에 봉서사가 있다.”⁵⁰⁾라 하여 봉서사라는 사명이 18세기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연간에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 「광여도(廣輿圖)」에는 원당사라 표기되어 있다. 발행연도가 미상인 「여지도(輿地圖)」, 「지승(地乘)」에는 비봉산과 원당사가 함께 표기되어 있으며, 1872년 「지방지도」에는 ‘원당암 신라애장대왕주(願堂菴新羅哀莊大王駐)’라 표기되었는데[부록3], 이는 원당

43) 『春洲遺稿』 卷之二, 「南遊記」, “... 下國一菴少坐。又下一里。涉礪入願堂寺。又北渡入弘濟菴。轉往觀音殿。...” 淸風 金道洙土源著.

44) 유척기(俞拓基:1691-1767)는 조선후기의 문신. 이칭은 전보(展甫), 지수재(知守齋), 문익(文翼)이다.

45) “... 寺外又有松坡浮屠。仍訪願堂寺。在寺之正西。地汚下。又無可觀。僧傳新羅哀莊王所創云。至海印寺。...” 『知守齋集』, 「游伽倻記」,

46) 유기(有幾: 1707-1785)는 조선후기 승려. 이칭은 해봉(海峯), 호은(好隱).

47) 『한국불교전서』 9책. 「鳳棲寺勸善文」 全文, 爲佗爲己之謂善. 能聚能散之謂善. 善者. 通天地貫古今之大道. 則君子之所樂. 無右於善也. 今江陽北. 有鳳棲寺. 往者羅代所建老屋. 鴛鴦瓦半解. 蟬蛩梁欲摧. 而僧繇後素之跡. 亦甚漫漶. 由是鯁衲志切改創. 而事海力蚊. 強作數行語. 徧聞於樂善之家. 或粟或帛. 爭先捨施. 能令此寺. 復之如初. 則將俟竣功. 煩磨祝長壽.

48) 『好隱集』 권3, 「봉서사권선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9) 최홍원(崔弘遠:1705-1786)은 조선후기의 문인, 학자. 이칭은 태초(太初), 여호(汝浩), 백불암(百弗庵), 칠계선생(漆溪先生).

50) 『百弗菴先生文集』 卷之十三 雜著, 「遊伽倻山錄」, “... 山之西 又有鳳棲寺...”.

암의 시창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⁵¹⁾으로 원당암이 초창부터 해인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음을 말해준다.

1887년 원당암을 중수할 때 정월이주(定月以珠)화상이 찬술한 「유명조선국경상우도합천군해인사원당정토사중수상량문(有明朝鮮國慶尙右道陝川郡海印寺院堂淨土社重修上樑文)」과 상량기에는 원당정토사(院堂淨土社), 본원사(本願社)라는 사명이 등장한다.⁵²⁾ 이는 조선 후기 사찰에서 미타신앙(彌陀信仰)이 유행하면서 염불계, 만일회 등의 이름으로 염불결사(念佛結社)가 결성되었는데⁵³⁾, 원당정토사라는 상량문으로 미루어 보아 원당암에서도 정토결사인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⁵⁴⁾가 이미 결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경 송병선⁵⁵⁾의 『연재선생문집』 중 「가야산기」에서 “...서쪽 12리에 홍제암을 만날 수 있고 유정⁵⁶⁾의 부도와 비를 모셨는데 보기에 한적한 곳이다. 백보 안에 보광암(普光庵)이 있고 옛적에 신라 애장왕이 와서 머물렀으며 이를 원당이라 칭했다.”⁵⁷⁾라 한 것에서는 원당암을 보광암 혹은 원당으로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보광암이라 한 것은 범당인 보광전의 편액을 따라 부른 것이다.⁵⁸⁾

이렇게 조선 후기까지 여러 가지 사명으로 불리던 봉서사는 20세기 한일 합병으로 인한 일제의 사찰령⁵⁹⁾에 의해 1912년 「해인사본말사법(海印寺本

51) “...순웅대사의 발원에 따라 왕이 해인사를 창건할 때 이 암자에서 駐驛하면서 국력으로 완성하는 동안 國政도 本庵에서 行政하였다고 한다.” 이지관, 앞의 책. p. 613.

52) 이지관, 앞의 책. pp. 617-618.

53)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三門修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0, p. 237.

54) 해인사 원당암은 본래 정토염불을 발원하던 도량으로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정토중심의 도량이었다. 해인사 원당암의 만일염불회는 1925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1887년 정월이주(定月以珠)화상이 쓴 ‘해인사원당정토사중수상량문(海印寺願堂淨土社重修上樑文)’에서 알 수 있다. 1925년 1월에 정궁담(鄭巨潭)화상이 만일염불회 결사를 시작하였고 1929년에 제월(霽月)대사가 다시 개설하였으나 얼마 가지 못했다. 1934년에는 김만웅(金萬應)화상이 해인사의 심검당(현재 관음전)에 염불회를 개설하였다. 이것도 1946년 해인사가 가야총림이 되면서 심검당은 하선원(下禪院)으로 지정되어 염불당은 폐지되었다. 韓普光, 『신앙결사연구』, 여래장, 2000. pp. 280-282.

55) 송병선(宋秉璿:1836-1905)은 조선말기의 문신, 순국지사. 이칭은 화옥(華玉), 동방일사(東方一士), 연재(淵齋), 문충(文忠).

56) 유정(惟政:1544-1610) 승려, 승병장. 자는 이환(離幻), 호는 사명당(四溟堂), 송운(松雲), 종봉(鍾峯), 시호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이다.

57) 『淵齋先生文集』之二十一 雜書, 「가야산기」, “...西上一二里 得弘濟菴 傍惟政浮圖及碑 此其視靜處也 下百步許 爲普光菴 昔新羅哀莊王來住, 仍稱願堂...”.

58) 이지관, 앞의 책. p. 613.

末寺法)」이 제정되면서⁶⁰⁾ 원당암으로 명명된 것이다. 원당암의 사명 변화는 [표 3]과 같다.

[표 3] 원당암 사명 변화

연도 혹은 명명자	사명 표기	출처 혹은 문헌자료
애장왕 3년(802)	봉서사(鳳棲寺)	『가야산해인사지』
연산군 5년(1499)	봉서사(鳳栖寺)	『목우자수심결』
연산군 6년(1500)	봉서사(鳳栖寺)	『선종유심결』
연산군 6년(1500)	봉서사(鳳栖寺)	『현수제승법수』
연산군 7년(1501)	봉서사(鳳栖寺)	『고봉화상선요』
김도수(?-1742)	원당사(願堂寺)	『춘주유고』
유척기(1691-1767)	원당사(願堂寺)	『지수재집』
최홍원(1705-1786)	봉서사(鳳棲寺)	『백불암선생문집』
유기(1701-1785)	봉서사(鳳棲寺)	「호은집」, 「봉서사권선문」
1724 발행	원당사(願堂寺)	해동지도
1737 발행	원당사(願堂寺)	광여도
조선 영조연간	원당사(願堂寺)	여지도
조선 영조연간	원당사(願堂寺)	지승
철종 8년(1857)	봉서사(鳳栖寺)	『진목조사유적고』
1872년	원당암(願堂菴)	1872년 「지방지도」
정월이주(1887)	원당정토사(院堂淨土社), 본원사(本願社)	「有明朝鮮國慶尙右道陝川郡海印寺院堂淨土社重修上樑文」과 상량기
송병선(1836-1905)	보광암(普光庵), 원당(願堂)	『연재선생문집』
일제강점기(1912)	원당암(願堂庵)	「해인사본말사법」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원당암은 802년 신라 애장왕때 봉서사라는 사명으로 창건되었다. 이후 고려시대의 봉서사는 사료가 빈약하여 알 수가 없

59) 1911년 6월 3일 공포한 법령으로 일제가 한국불교를 억압하고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함이었다.

60) 1912년에 제정된 「海印寺本末寺法」 제 1장 제 10조에 의하면 극락암, 국일암, 백련암, 원당암, 홍제암, 지족암, 회랑대, 청량사, 약수암, 삼선암을 산내말사로 한다는 조항이다.

다. 조선 초, 봉서사는 주로 팔만대장경의 사찰판을 판각·인경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18세기까지는 봉서사라는 사명이 계속 존재했으며 영조 무렵에 원당사로 사명이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미타신앙의 유행으로 원당암이 염불만일회의 염불방이 되면서 원당정토사, 본원사라는 사명이 잠시 사용되었고 이와 함께 원당암, 보광암, 원당 등으로도 혼용되어 부르다가 20세기 「해인사본말사법」이 제정되면서 원당암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2) 연혁

802년 봉서사로 창건된 원당암은 신라하대 왕실과의 두터운 관계 속에서 왕실 원당의 사격을 가짐으로 원당이라는 이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나말 최치원의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량기」에서는 “절의 결계가 높고 험하기 때문에 창건 당시부터 규모가 작았다. 여론으로 고쳐짓기를 합의하고 나라에서는 개장하는 것을 법으로 허락하였다. 드디어 건녕 4년에 가을, 석 달 간의 하안거 끝에 땅을 개척할 것을 도모했다.”⁶¹⁾하였는데, 당시 봉서사도 왕실의 원당으로 해인사와 함께 중수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중창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 전기인 1495년 5월에 등곡당(燈谷堂) 학조대사와 前 단속사 주지 신문선사가 함께 원당암을 중창하였다. 그 후 1539년 3월에는 명의(儀明)화상이 화주가 되어 중창하였고, 1578년에 도상(道尙)비구가 화주가 되어 건물을 개조·중창하였다. 조선 중기에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1633년 5월 극륜(剋倫), 암회(岩回), 덕명(德明)화상 등이 화주가 되어 중창·상량하였다.

조선 후기인 18세기 초반에는 유기(有璣)스님이 원당암을 중창했다. 이는 그의 문집 『호은집』 권 3에서 「봉서사권선문(鳳棲寺勸善文)」을 찬술한 것으로 미루어 중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52년에는 우룡(雨龍)대사가 중수하였으며, 1887년의 중수 때에는 정월이주(定月以珠)화상이 「유명조선국경상우도합천군해인사원당정토사중수상량문(有明朝鮮國慶尙右道陝川郡海印寺院堂淨土社重修上樑文)」을 찬술한 것으로 보아 중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94년에는 보명당(普明堂) 성관(性寬)선사가 화주가 되고 이용직(李容直)의 시주와 염불만일회의 화주인 성주(性珠)비구니가 원당암을 중창

61) 崔英成 역, 『역주최치원전집 2』 -孤雲文集-, 亞細亞文化社, 1999, p. 30; 김상현, 「九世紀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후원」, 『新羅文化』 28, 2006, p. 246.

·상량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원당암은 봉서사라는 창건시의 사명 대신 별칭인 원당암으로 해인사의 산내암자가 되었다. 1963년에는 서혜은(徐慧恩) 비구가 원당암의 감원에 취임한 후 보광전과 큰 방채를 중수하고 남쪽의 요사채를 신축하고 북쪽의 요사채를 확장·신축하였는데 이때 지관스님이 「원당암 대방중수기(願堂庵大房重修記)」를 찬술하였다. 1978년부터는 혜암당(慧菴堂) 성관(性觀) 대종사가 원당암에 주석하면서 입구 도로를 확장하고 북쪽 밭에 조실 30평을 신축하였다. 그 이후 1986년 선방을 신축하였으며, 1991년 태풍으로 인해 석축을 보수공사 하였다. 1992년에는 요사채를 증·개축하였으며 1993년 선방 이건, 1999년 원당암 정비공사를 하였다. 2005년에는 석탑, 석등, 보광전을 보수하였고 2006에는 석등을 보존처리 하였다. 2011년에는 사역 내의 운봉교를, 2014년에는 사찰 입구의 무생교를 공사하였다. 2017년에는 보광전과 석비를 리모델링하였고 당해 음력 5월 19일에는 심우당을 상량하였다. 원당암의 연혁은 [표 4]와 같다.⁶²⁾

62) 원당암은 별도의 사적지가 없어 지관스님의 『가야산 해인사지』, 국가기록원, 원당암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위주로 하였다.

[표 4] 원당암 연혁

연도	원당암의 창건 및 중수·중창
802년	봉서사(鳳棲寺) 창건
897년	「가야산해인사결계량기」에 의거하여 중창 가능성
1495년	등곡화상(燈谷和尚)·신문선사(信文禪師) 중창
1539년	의명(儀明)화상 중수
1578년	도상(道尙)비구 중창
1633년	극륜(剋倫), 암회(岩回), 덕명화상(德明和尚) 중창·상량
18세기	유기(有璣) 중수
1852년	우룡대사(雨龍大師) 중수
1887년	정월이주(定月以珠)화상 중창·상량
1894년	성관(性寬)선사, 李容直, 성주(性珠)비구니 중창·상량
1964년	서혜은(徐慧恩)비구 중수
1978년	혜암당(慧菴堂) 성관(性觀)대종사 중창
1986년	선방 신축
1991년	석축 보수
1992년	요사채 증·개축
1993년	선방 이건
1999년	원당암 정비공사
2005년	석탑, 석등, 보광전 보수
2006년	석등 보존처리
2011년	운봉교 공사
2014년	무생교 공사
2017년	보광전·석비 리모델링, 심우당 상량

III. 산지가람의 공간구성과 원당(願堂)

1. 입지변화 및 석단조영

1) 입지에 따른 가람배치의 변화

삼국에서 불교가 공인된 시기는 4세기경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례로 불교를 받아들였다. 불교공인 초기에는 왕이나 귀족 등 왕실이 중심이었으므로 삼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왕궁 근처에 사찰이 건립되어 현재 평양, 공주, 부여, 경주 등에 절터가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초기의 불사조성은 중국의 모방에 의한 것으로 육조시대의 가람배치가 그 직접적인 원류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⁶³⁾

고구려는 372년 불교공인 후 375년에 평양 인근에 초문사와 이불란사가 건립되었다. 평양 부근에 남아있는 절터로는 원오리사지, 상오리사지, 정릉사지, 청암리사지(금강사지) 등이다. 백제는 384년 불교가 공인된 후 이듬해에는 한산에 불사를 창건하였고⁶⁴⁾ 웅진과 사비로 두 차례의 천도가 있었으므로 절터가 분산되어 있다. 초기 한성시기의 절터는 알 수 없으나 공주를 거쳐 부여의 절터는 남아 있다. 익산 미륵사지를 비롯하여 부여의 군수리사지, 동남리사지, 가탐리사지, 정림사지, 왕흥사지와 공주의 대통사지, 서혈사지, 남혈사지 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

신라는 527년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된 후 최초로 흥륜사⁶⁵⁾와 영흥사가 창건되었고 이어 황룡사, 분황사, 영묘사 등이 차례로 건립되었다. 평지가람은 매립, 축토, 판축의 기초조성을 거쳐 대지를 확보한 후 그 상부에 다양한 기단을 사용하여 건물을 조성한다.⁶⁶⁾ 가람은 입지에 따라 평지가람, 구릉지가람, 산지가람으로 구분된다.⁶⁷⁾

63) 김일림, 「韓國 佛教寺刹의 立地類型과 景觀構成」, 東國大學校大學院, 1996, p. 18.

64)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1972, p. 81.

65) 흥륜사는 534년(법흥왕 21)에 시작하여 544년(진흥왕 5)에 완성되었는데, 『三國遺事』에 의하면 금당과 탑, 좌경루, 남문, 좌우회랑 및 남지(南池) 등이 있었다고 한다. 尹張燮, 위의 책, 1972, p. 101.

66) 오세덕, 「신라사찰 석축(石築)조성 방식 변화와 불국사 석축의 형식과 의미」, 『佛敎學報』, 2020, p. 153.

67)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2006, pp. 211-212.

(1) 평지가람

황룡사(皇龍寺)는 553년에 짓기 시작하였으며 1238년에 몽고의 병화로 폐사된 가람이다.⁶⁸⁾ 황룡사는 크게 세 번의 가람배치 변화를 겪었다.⁶⁹⁾ 창건 후 2차 가람까지는 삼국통일 이전에 변화되었다. 창건가람(1차 가람)의 시작 시기는 553년이며 2차 가람은 574-584년에 걸친 시기다. 2차 가람으로의 변화는 황룡사 금당에 장육존상을 봉안하기 위해 금당을 키우고 643년 황룡사 구층목탑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차 가람에서는 강당지·금당지·탑지로 추정되는 자리에 유구의 흔적이 있으며 회랑지와 중문지가 함께 조사되었고, 2차 가람에서는 강당지·3개의 금당지·목탑지·중문지·회랑지가 조사되었다.[그림 1], [그림 2] 황룡사의 초창가람 배치는 중문-탑-금당-강당이 회랑이 둘러있는 1탑 1금당식이며, 2차 가람에서는 중문-탑-병렬 3금당-강당이 회랑이 둘러있는 1탑 3금당식으로 모두 남북축선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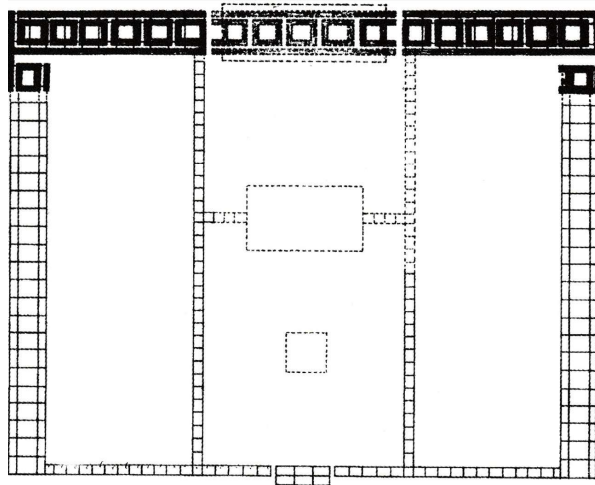
분황사(芬皇寺)는 634년에 창건되어 현재까지 법등을 이어오는 고대가람으로 황룡사지의 북편에 위치한다. 창건이후 최소 3차례 이상 가람배치의 변천과정을 거쳤다.⁷⁰⁾ 『東京雜記』의 기록으로 원래 9층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¹⁾ 분황사의 창건가람은 탑을 중심으로 3금당이 있는 品자형의 가람배치를 보이고 있으나, 2차 가람에서는 금당이 하나로 줄어들어 1탑 1금당으로 변화되었다. 남북축선을 갖는다.[그림 3]

6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Ⅰ』, 1984, p.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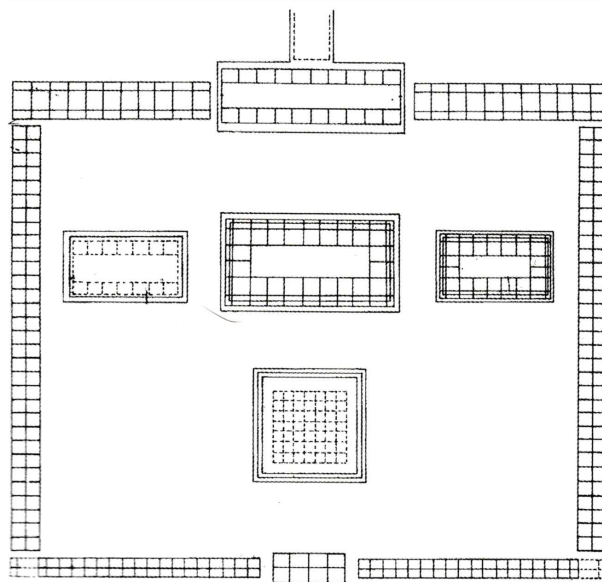
69)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위의 보고서, 1984, p. 371.

7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芬黃寺 發掘調査報告書Ⅱ』, 2015, p.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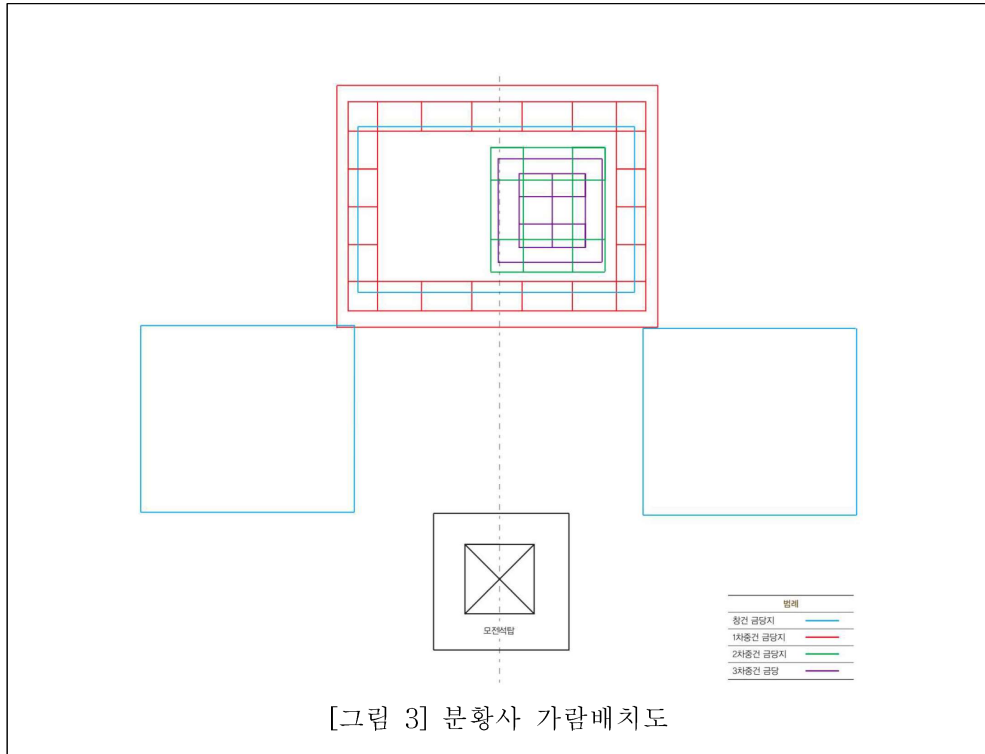
71) 『東京雜記』, “芬皇寺九層塔新羅三寶之一也 壬辰亂賊毀其半 其後有愚僧欲改築之又毀其半…”



[그림 1] 황룡사 1차 가람배치도



[그림 2] 황룡사 2차 가람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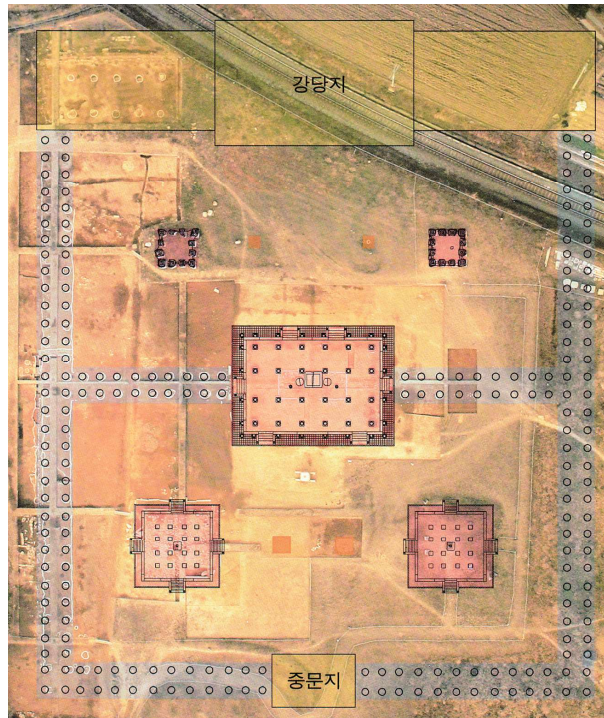
이상으로 신라의 대표적인 평지가람을 살펴보았다. 황룡사와 분황사에서 나타난 고신라의 가람배치는 불사리를 봉안하는 탑이 중심이 되어 1탑 1금당, 1탑 병렬형 금당,品茶형인 1탑 3금당 등 여러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이런 양상은 신라는 공식적으로는 고구려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불교가 먼저 공인된 고구려, 백제와는 150여년 이상의 간극이 발생하여 양국으로부터 불교문화가 비교적 한꺼번에 유입됨으로써 신라에서 다양한 가람배치 방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는 1탑 1금당이 주류를 이루게 되며 탑신앙에서 불상신앙으로 변화되면서 삼국통일 직후가 되면 쌍탑가람이 생겨난다.

(2) 구룡지가람

불교공인 후 6-7세기 중반까지 왕경의 중심지인 평탄한 지형에 건립되던 사찰은 창건이 늘어나면서 점차 왕경의 인접 지역이나 왕경 외곽의 구룡지로 사찰이 옮겨간다. 구룡지가람부터는 산과의 연관성을 조금씩 갖기 시작

하지만 절토와 매립으로 외부 기초조성의 흔적이 남지 않아 석축은 보이지 않는다.⁷²⁾ 대표적인 구릉지가람으로는 사천왕사, 망덕사를 들 수 있다.

사천왕사(四天王寺)는 사천왕의 힘을 빌어 당군을 물리치고자 건립된 호국사찰로 낭산 기슭에 위치한다. 삼국통일 직후 679년에 창건되었으며 통일신라 쌍탑가람의 효시가 되는 사찰이다. 사천왕사의 가람배치는 중문-쌍탑-금당-종·경루-강당이 회랑으로 둘러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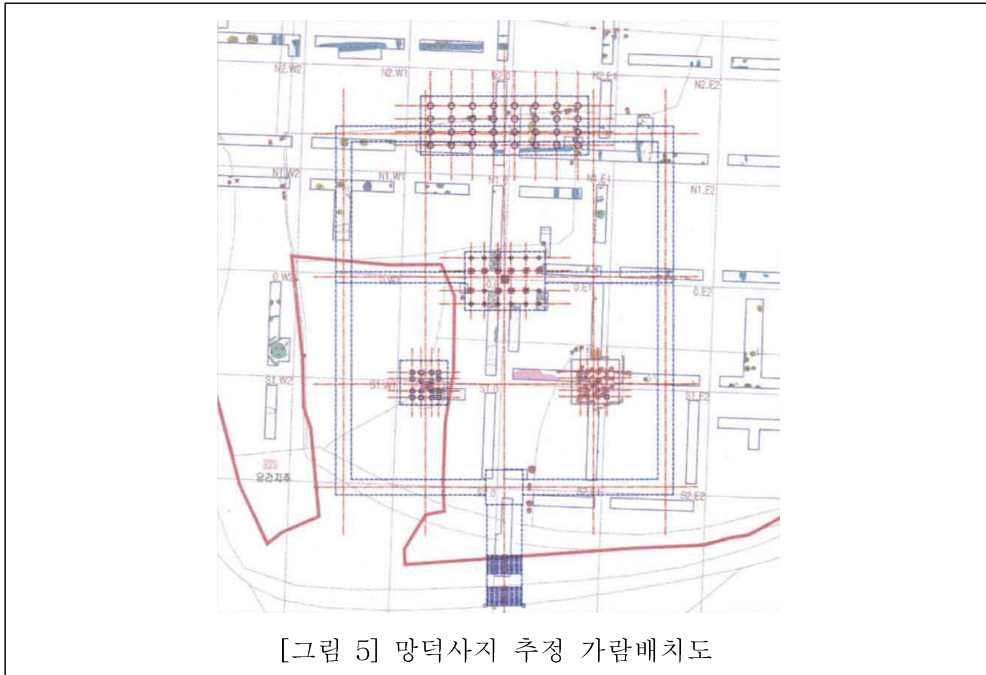


[그림 4] 사천왕사 가람배치도

금당을 중심으로 전면 좌우에 목탑이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후면 좌우에 종루와 경루가 역시 대칭으로 배치되었으며 금당 좌우에는 익랑이 있다. 남북축선을 가진다. 익랑은 황룡사지나 분황사 등 고신라의 평지사찰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구릉지가람에서 쌍탑이 조영되는 것과 더불어 새로 등장하는 가람배치 요소다. 종루와 경루는 각각 범종(梵鐘)과 불경(佛經)을 위한 공간이다.

72) 오세덕, 앞의 논문, 2020, p. 153.

망덕사(望德寺)는 사천왕사 창건의 눈속임을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는 사찰로 낭산 기슭에 건립되었다. 동해남부선으로 낭산이 단절됨으로써 철로를 사이에 두고 사천왕사와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망덕사지는 사천왕사의 가람배치와 유사하나 중·경루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문-쌍탑-금당-강당이 회랑으로 둘러있고 익랑이 있는 가람배치이다.[그림 5]



남북축선을 가지며 13층의 쌍목탑이 있었다고 전한다. 망덕사지는 가람內 탑·금당·강당·회랑·익랑·중문 등의 가람배치 요소를 모두 갖춘 대표적인 사지이다. 회랑과 익랑은 각각 대청이 되는 정형성이 있다.

이상으로 신라의 대표적인 구룡지가람을 살펴보았다. 사천왕사와 망덕사는 평지를 벗어나 산지가 시작되는 곳에 입지한다. 구룡지가람의 배치방식은 중문-쌍탑-금당-강당이 회랑으로 둘러있고 익랑이 있으며 남북축선을 가진다. 구룡지가람에서 나타난 익랑은 불국사 대웅전 영역의 가람배치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쌍탑이 배치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 배치방식은 唐문화의 영향으로 당시 일본에서도 같은 형식이 사용되었다.⁷³⁾

73) 尹張變, 앞의 책, 1972, p.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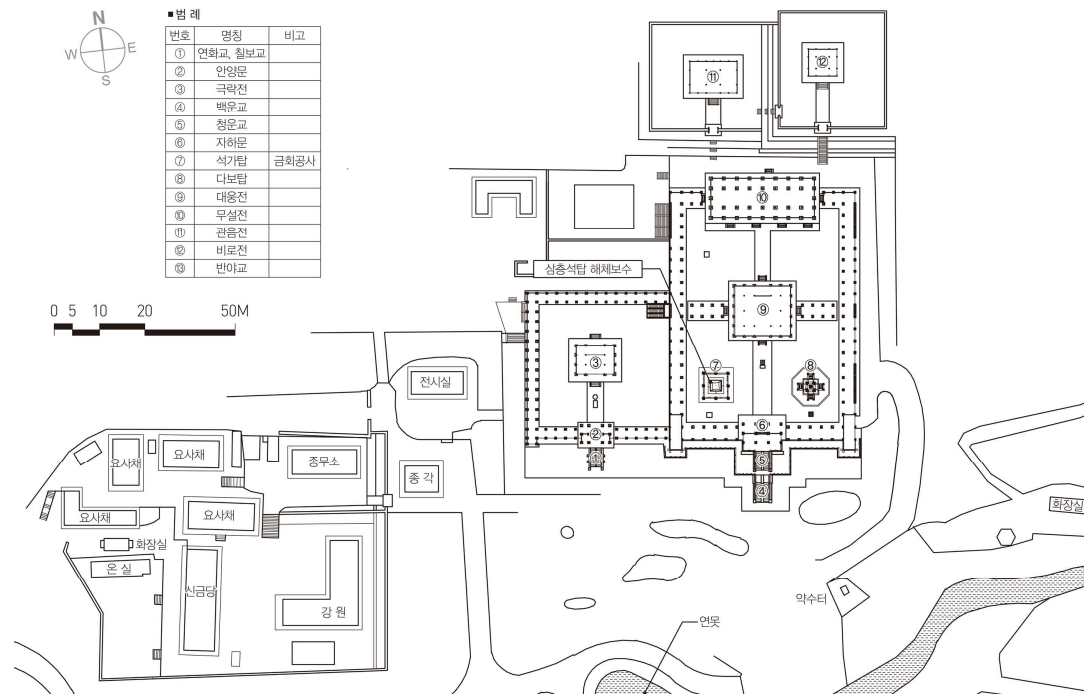
(3) 산지가람

불교전래 후, 신라의 산지에는 이미 초기 형태의 산지소찰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7세기가 되면서부터는 봉정사, 부석사 등이 창건되었으며 8세기에 이르러 불국사를 필두로 본격으로 산지사찰이 건립되기 시작하여 9세기에는 신라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산지사찰은 대부분 심산유곡의 계곡을 낀 경사지에 위치하며 이후 우리나라 사찰 입지의 주류를 이룬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징, 조사들에 의한 선평의 유행, 화엄학파의 집중화·교단화 현상, 풍수지리설의 영향 등 다양한 배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불국사(佛國寺)는 토함산에 자리잡은 대표적인 산지가람으로 절토, 삭평, 매립의 기초조성을 거쳐 대지를 확보하였다. 대웅전 영역, 극락전 영역, 관음전 영역, 비로전 영역으로 구성된 다원가람이다.[그림 6] 대웅전 영역은 자하문-석가탑·다보탑-석등·배례석-대웅전-무설전이 회랑으로 둘러있고 익랑이 있는 구릉지가람의 배치방식으로 불국사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극락전 영역은 안양문-배례석·석등-극락전이 회랑으로 둘러있고 강당과 익랑이 없는 배치방식이다. 불국사이후 산지가람의 배치는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신라 산지가람의 배치방식은 조형물(탑·석등 중 한 개 배치 혹은 탑·석등이 모두 배치 혹은 탑·석등 모두 없음)-금당이 일축선 상에 있으며 강당과 익랑은 없다. 회랑은 있기도·없기도 하는 등 9세기이후 산지사찰의 배치방식은 다양해진다. 탑·석등 등 조형물의 유무와 그에 따른 배치는 사찰의 종파나 사세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산지사찰은 지형에 따르므로 중문의 여부는 일정하지 않다. 가람축선은 대체로 남향이다. 이는 중국 주나라때의 궁전 건축물 중 제정일치와 관련된 명당(明堂)과 군인남면지술(君人南面之術)과 연관된 것이다.⁷⁴⁾

이상으로 신라의 대표적인 산지가람을 살펴보았다. 불국사는 신라 산지사찰의 신호탄으로 구릉지가람이 끝나고 산지가람이 시작되는 두 가지 배치방식을 보여준다. 본고는 강당이 없는 극락전 영역의 배치방식을 산지가람의 표본으로 보았으며 신라 산지가람은 이러한 배치방식을 따르나 신라 하대 원당암에서는 가람의 축선상에 강당이 처음 출현한다. 원당암의 강당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74) 엄중섭, 「佛敎宇宙論과 寺院構造의 관계성 고찰」, 『건축역사연구』 17(1), 2008, p. 71.



[그림 6] 불국사 가람배치도

2) 석단의 조영방식

산지사찰에서는 석축조영이 필수적이다. 축조된 석단과 가람배치 축선은 가람의 입지조건 이상으로 사역의 공간구성을 이해하고 초창기 가람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는 초창가람에서는 탑이나 금당 등 대부분의 가람배치 요소가 이 축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석축(石築)은 경사진 지형을 극복하고 넓고 평평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석을 이용하는 경우와 가공석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⁷⁵⁾ 자연석은 석재의 크기가 다양하고 생김이 제멋대로이므로 석축 조영방식은 허튼층쌓기나 막쌓기가 되고, 가공석인 장대석은 정연하고 고른 석재이므로 수평을 맞춘 바른층쌓기가 된다. 석축으로 형성된 석단(石壇)은 물리적으로는 높이가 다른 두 영역을 구분하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성역인 결계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의미가 더 크다.

축선(軸線)은 가람에서 당우가 배치되는 중심선으로 석단과는 수직이다. 축선의 설정은 건물배치 전체를 좌우하는 율선(律線)⁷⁶⁾으로 복잡하고 무질서한 가람배치를 선명하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⁷⁷⁾하며 초기가람에서는 더욱 확연하다. 가람배치에서 대부분의 사찰은 남북을 자오선으로 하는 일축선을 가거나 병렬로 축선을 가지는 사찰, 수직으로 직교하는 사찰도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향을 선호하여 주불전을 남향으로 모시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전각들이 남북축선상에 배치된다.

우선, 불국사에 조영되어 있는 석단과 가람배치의 축선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원당암을 비롯한 산지사찰의 석축 조영방식과 가람배치 축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불국사 석단은 하나의 사찰에서 자연석 석단과 장대석 석단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식 석단으로 정면에서 바라보면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의 석단 모습이 다르다.⁷⁸⁾ 이는 자하문과 안양문이라는 두 개의 병렬형 축선을 가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대웅전 영역의 석단 범위는 범영루부터 좌경루까지다. 석단의 중심은 자

75) 오세덕, 앞의 논문, 2020. p. 140.

76) 鄭寅國, 위의 책, 1974, p. 139.

77) 鄭寅國, 위의 책, 1974, p. 139.

78) 불국사의 석단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오세덕, 앞의 논문, 2020. pp. 143-149.

하문이며 청운·백운교로 진입하는 축선이다. 석단의 모습은 이층이다. 하층 석단은 아래쪽에는 자연석인 거석을 두었고 그 위쪽으로는 그랭이질을 한 지대석·면석·갑석을 갖춘 신라 가구식 기단을 얹었으며, 상층 석단은 장대석으로 된 兩 기둥 사이에 자연석을 넣었다. 기둥에는 돌못을 사용하였다.

극락전 영역의 석단 범위는 서편 축대에서 범영루 좌측까지다. 불국사는 동고서저의 지형이므로 극락전 영역의 서편까지 석축을 조성하였다. 석단의 중심은 안양문이며 연화·칠보교로 진입하는 축선이다. 석단의 모습은 전체는 단층이다. 이 석단은 장대석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사이에는 자연석을 넣었으나 중간에 장대석 부재를 한 번 얹혀 넣음으로써 축단을 상·하로 나누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 대웅전 영역의 이층 모습과 통일감을 맞추었다. 기둥에는 역시 돌못을 사용하였다. 불국사 대석단에서 나타난 자연석과 장대석이 조화롭게 결합된 혼합식 석단은 신라 건축 뿐 아니라 동아시아 사찰건축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석축의 조성형식이다.⁷⁹⁾

불국사에서 혼합으로 사용된 자연석 석단과 장대석 석단은 산지사찰에서는 각각으로 나타난다. 화엄사와 영암사지는 대표적인 장대석 석단이며 자연석 석단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지사찰에서 축조하였다. 부석사, 동화사의 금당암 영역 등에 남아있으며 부석사와 범수사지의 자연석 대석단은 학술적 가치가 크다. 원당암은 자연석 석단으로 수축하였다.

(1) 장대석 석단

화엄사(華嚴寺)는 승려 연기(緣起)⁸⁰⁾에 의해 창건된 산지가람이다. 화엄사 석단은 가공석으로 된 장대석 석단이다. 줄눈을 정연히 맞추어 바른층쌓기로 축조하였다. 석단의 바닥에는 지대석을 두었고 그 위로는 3단으로 퇴물림을 둔 후 면석을 수직으로 올렸다. 여기에 갑석을 얹어 마무리함으로써 가구식 기단에서 보이는 지대석·면석·갑석의 형식을 갖추었다.[사진 2] 이러한 축조방식은 종교적 장엄 중의 하나다. 각황전의 석단은 전면 뿐 아니라 배면쪽인 원사봉 아래에도 같은 방식으로 축조하였다.[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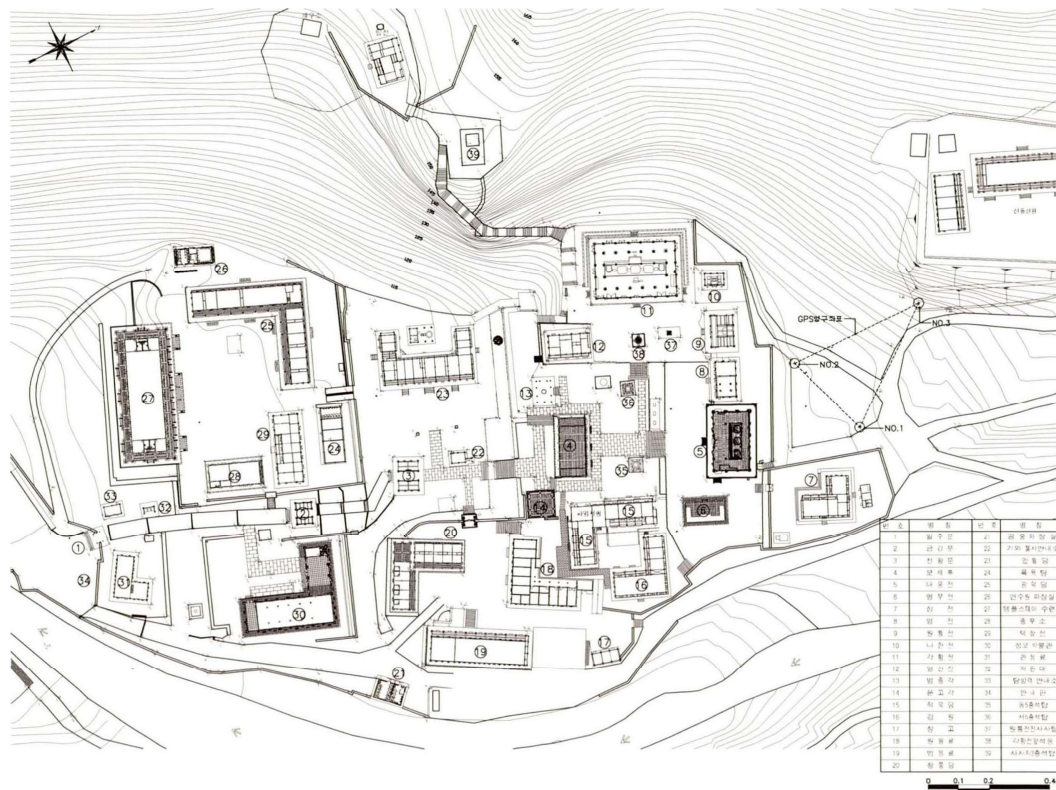
화엄사의 ㄱ자형 석단은 가람에서 축선이 직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황전과 대웅전의 가람축선이 직교한다. 직교된 축선상 모두에 통일신라시

79) 오세덕, 앞의 논문, 2020, p. 151.

80) 緣起(?-?);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대승기신론사번취묘』, 『화엄경개종결의』 등을 저술한 승려. 연기(烟氣), 연기(烟起), 연기(鶯起) 등의 이칭이 있다.

대의 석조물이 분포되어 나말에 이미 대가람이 된 것을 알 수 있다.⁸¹⁾ 화엄사는 석단의 축조방식이나 경내에 분포된 조형물의 시기성으로 보아 각황전 석단이 시기가 빠르며 대웅전 석단은 사역이 넓어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황전을 축전으로 하는 초창기 가람배치는 각황전-효대의 四사자 삼층석탑 및 공양자 석등이 동서축전을 가진다.[그림 7]

81) 화엄사의 산내 암자인 구층암에도 9세기 후반의 삼층석탑이 유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羅末 화엄사의 불교문화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화암사 가람배치도



[사진 2] 화엄사 정면 석단



[사진 3] 화엄사 배면 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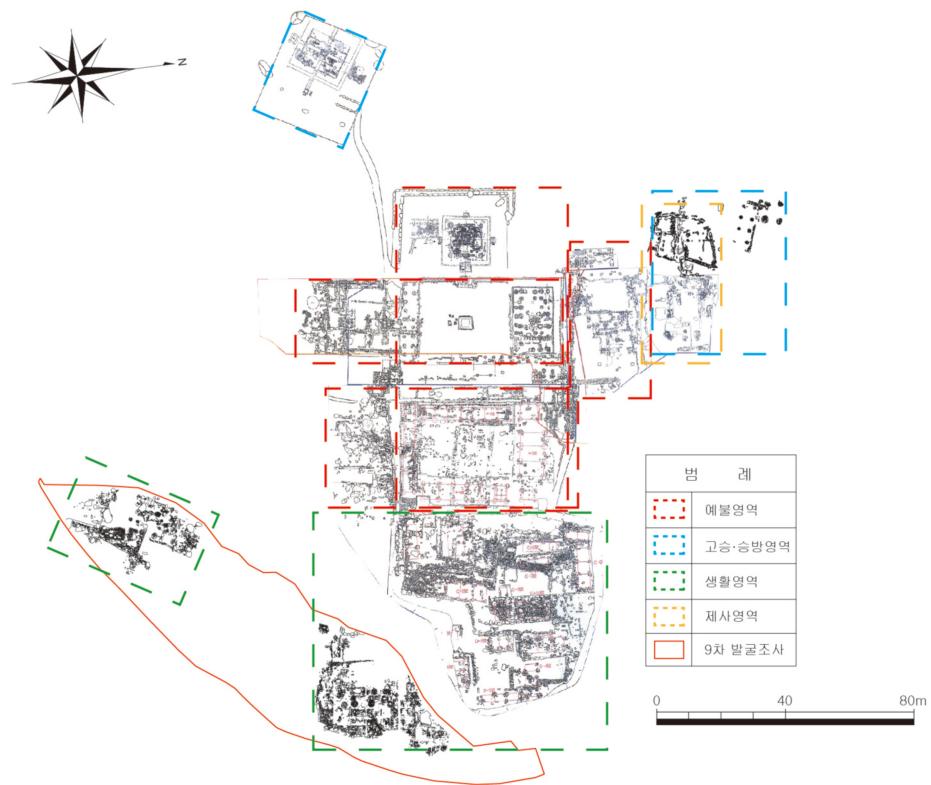
영암사지(靈巖寺址)는 통일신라시대의 사지⁸²⁾로 서울대학교도서관에 소장된 고탁본서첩(古拓本書帖)에서 적연국사자광탑비(寂然國師慈光塔碑)의 탁본⁸³⁾이 발견됨으로써 사명이 확정되었다. 가야산 권역과 지리산 권역간의 불교문화 소통지점인 모산재에 위치한다. 사지 아래에는 대기마을 저수지가 있는 서고동저의 지형이다.

영암사지는 가공석을 사용한 장대석 대석단으로 상·중·하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단은 화엄사의 경우처럼 퇴물림방식으로 조성하여 중앙에 치(雉)를 두었고, 여기에 금당과 쌍사자 석등을 배치함으로써 금당을 우러러 보게 하는 장엄적 효과를 주어 석단 조성시부터 불전에 위계를 두었다. 중단은 불국사의 좌·우경루처럼 석단의 양쪽에 치를 두었으며 장대석과 돌못을 함께 사용하여 산지사찰로서는 드물게 의장성을 높였다.[사진 4] 돌못은 불국사 대석단에서 뿐 아니라 석굴암의 궁륭형 천장, 감은사지 석축, 월정교지 등에서도 사용된 추가장치⁸⁴⁾로 석단에 사용된 석재들이 토압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단 역시 돌못을 사용하여 평면 수직으로 석단을 축조하였다. 영암사지의 창건기 가람배치는 삼층석탑-쌍사자 석등-금당이 동서축선을 가진다.[그림 8]

82) 경상문화재연구원·함천군, 『陝川 靈巖寺址Ⅱ』, 2013, p. 23.

83) “寄寓於原州管内興法寺中 以廣順二年壬辰 正月八日 方當彌月之期 載誕弄璋之胤”…“王志在尊賢而念深安□ 許從丹請 俾遂幽栖洒 命加壽縣 靈巖寺居之”…“忽於開泰三年 龍集攝提格 六月○○二日 辰時 因老且病 命觀侍者 擊金鍾 集大衆 憇然示滅享年八十三 過臘六十九 門下大師 千手 朗徵等 號奉遺體 以其月」二十八日 葬于靈巖寺西峯”, “이 때 어머니가 원주(原州) 관내 흥법사(興法寺)중에 기거하고 있던 중 광순(廣順) 2년 임진(壬辰) 정월(正月) 8일에야 바야흐로 미월(彌月)인 만삭이 되어 농장(弄璋)인 맏아들로 태어났으니”…“그러나 왕의 뜻은 존경하는 생각이 더욱 깊어 노구(老軀)를 편안케 하여 드리고자 단청(丹淸)을 받아들여 스님으로 하여금 조용히 주석할 가수현(加壽縣)영암사(靈巖寺)에 거하도록 하였다”…“홀연히 개태(開泰) 3년 용집(龍集) 섭제격(攝提格) 6월 ○○ 2일 진시(辰時)에 늙고 또 병들었다면서 시자(侍者)에게 명하여 대종을 쳐서 대중을 모아놓고 집연히 입적하시니, 향년(享年)은 83세요, 법랍은 69세였다. 문하(門下)에 대사(大師)인 천수(千手)와 낭징(朗徵) 등이 호곡하면서 유체(遺體)를 받들어 그 달 28일 영암사 서쪽 산봉(山峰)에 장사를 지냈다” 李智冠 역,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2, 高麗編』,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5, pp. 187-190.

84) 송경하, 「불국사 석축에 나타나는 고대 석조건축의 구축법과 의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 57.



[그림 8] 영암사지 가람배치도



[사진 4] 영암사지 석단

(2) 자연석 석단

부석사(浮石寺)는 의상(義湘)에 의해 창건된 산지가람이다. 부석사 대석단은 자연암석의 큰 바위에서 대형 석재를 하나하나 떼어내는 방식으로 전체 기단의 골격을 잡고 그 사이사이에 잔돌을 메워⁸⁵⁾ 빈틈없고 견고하게 짜맞춘 웅대함이 있다.[사진 5] 안양루와 범종루 아래 자연석 대석단이 축조되어 있으나 통일기의 조형물은 안양루를 석단으로 하는 무량수전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부석사의 9세기 가람배치는 배례석-석등-금당이 남북축선을 가진다.[그림 9] 부석사는 범종루에서 축선이 한번 꺾여있으나 이는 지형에 따른 것으로 범종루 아래의 가람배치는 사역이 확장되면서 연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5] 부석사 석단

동화사(桐華寺)는 심지(心地)⁸⁶⁾에 의해 창건된 산지가람이다. 다원가람으로 금당암 영역, 비로암 영역, 대웅전 영역, 통일대불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85) 오세덕, 「부석사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고찰」, 신라사학회, 新羅史學報 Vol.0 No.28, 2013, p. 241.

86) 심지(心地); 생물년 미상.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제41대 헌덕왕의 아들로 15세에 출가하여 진표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승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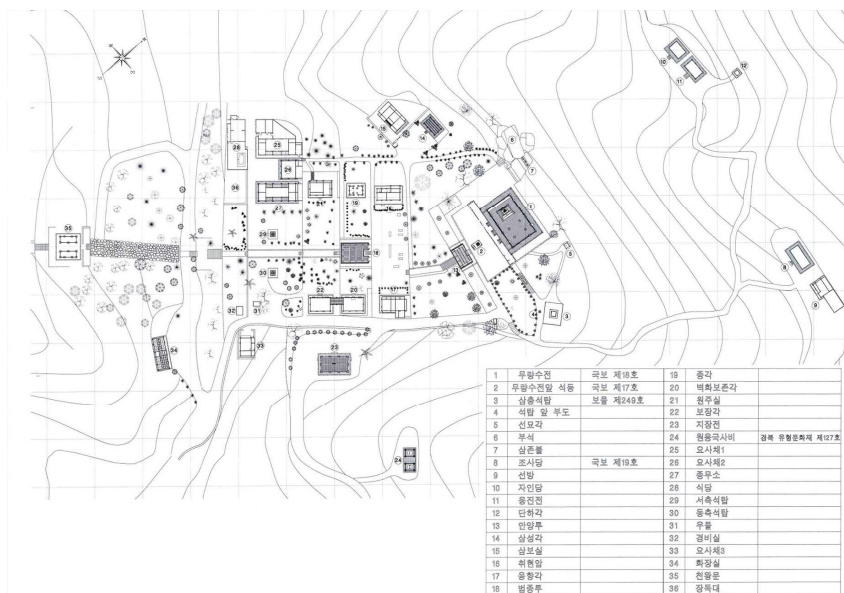
다. 그 중 금당암 영역에는 자연석 석단이 3단으로 축조되어 있으나 아래쪽 두 단이 초창기의 석단으로 판단된다. 하단은 주로 거석을 사용하였고[사진 6] 상단은 중석으로 돌담을 쌓듯 소박하고 단출하게 막쌓기를 하였다. 중단은 하단에서 5m정도 들어쌓기가 되어있으며 현재는 수행자들이 소로로 사용하고 있다. 쪽문을 달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다. 상단은 극락전 마당보다 담장이 높고 석재의 크기나 모양 등이 중·하단과는 차이나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어 후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금당암 영역은 수축된 자연석 석단과 석조물로 보아 이곳이 초창가람 터임을 알 수 있다. 절의 초입인 봉황문 근처에는 마애불이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가람배치는 마애불-당간지주-탑-금당이 남북축선을 갖는다. 산내암자인 비로암⁸⁷⁾에는 삼층석탑이, 염불암⁸⁸⁾에는 청석탑이 있다. 모두 통일신라시대의 조형물이다.

이상으로 산지가람에서 필수불가결한 석축의 조영방식을 통해 석단과 가람축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찰에서의 석단과 가람배치 축선은 불가분의 관계로 초창가람에서는 더욱 확연하다. 석단의 조영방식은 장대석 석단과 자연석 석단으로 나누어지나 통일신라 산지가람의 대부분은 자연석 석단으로 축조되었으며 원당암 역시 등고선을 따라 자연석을 사용하여 석단을 수축한 후 가람배치를 이루었다. 연구사찰은 [표 5]와 같다.

87) 비로암 대적광전에는 석조비로자나불이 봉안되어 있으며 정면에는 삼층석탑이 조영되어 있다. 이 암자의 석불과 석탑은 심지가 금당암을 창건한 후 발원한 것으로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기의 名文 중에 ‘동수원당지전창립석탑(桐藪願堂之前創立石塔)’이라는 기록으로 신라 44대 민애왕을 추복하기 위해 석탑을 건립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모두 863년에 조성된 것이다.

88) 염불암(念佛庵)은 928년(경순왕 2)에 영조전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지금의 법당 뒤에 있는 큰 바위에서 염불소리가 들려 이곳에 암자를 짓고 염불암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이 바위 西面에는 마애여래좌상이 南面에는 보살좌상이 부조되어 있다. 중정에는 청석탑 1기가 있는데 염불암 창건시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부석사 가람배치도



[사진 6] 동화사 석단

[표 5] 연구사찰의 가람배치·석단·탑 I

입지	寺(址)名		가람배치 및 축선				석 단		비고	탑	
			가람배치	회 랑	익 랑	축선	종류	기초 조성		초·개창시기의 유물(탑중심)	조영 시기
평지	황룡사지		중문-탑-병열3금당-강당	○	X	남북	-	매립, 축토, 관축	2차 가람배치	목탑 9층	645년
	분황사		탑-금당	○ 추정	X	남북	-		2차 가람배치	모전석탑 9층(추정)	634년
구릉지	사천왕사지		중문-쌍탑-금당-종·경루지-강당	○	○	남북	-	절토, 매립	쌍탑가람 최초	(동형)쌍목탑	679년
	망덕사지		중문-쌍탑-금당-강당	○	○	남북	-		-	(동형)쌍목탑 13층(추정)	684년
산지	불국사	대웅전 영역	중문-쌍탑-석등-금당-강당	○	○	남북	혼합식 (돌못 사용)	절토, 매립, 삭평	구릉지 배치방식 이형쌍탑 최초	(이형)석탑-석가탑·다보탑	751년
		극락전 영역	중문-석등-금당	○	X	남북	혼합식 (돌못 사용)		산지가람 배치방식의 표준모델로 선정	석등	751년
	화엄사		금당-효대의 탑과 석등	○	X	동서(先),	장대석		직교축 가람	四사자삼층석탑, 공양자석	9C

			추정		남북(後)				등	前
	영암사지	탑-석등-금당	○	×	동서	장대석 (돌못)		-	삼층석탑, 쌍사자석등	9C 後
	부석사	석등-금당	×	×	남북(先), 지형에 따름(後)	자연석		無塔가람	석등	9C 前
	동화사(금 당암영역)	탑-금당	-	-	남북	자연석		-	동삼층석탑	9C 前

2. 신라의 원당기록

신라는 불교를 늦게 받아들였지만 불교공인 이후에는 이를 국가적인 이념으로 삼아 삼국통일을 이룩해냈다. 고총·고분이 중심이었던 왕경지역은 점점 寺寺星張 塔塔雁行⁸⁹⁾의 도시로 바뀌어 갔으며 통일기 이후에는 왕권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사리를 봉안하는 불탑보다는 선왕의 추복·추서를 위한 원당이나 원탑을 건립하였다. 신라하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풍조가 지방 귀족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고 선사들의 부도나 조사당 건립도 함께 유행하게 되었다.

1) 중고기의 원당

신라의 원당 기록은 먼저 삼국유사에 나타난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법흥왕은 이미 폐해진 불교를 일으켜 절을 세우고 절이 완공되자 면류관을 벗고 가사를 입었으며 … 그 절의 주지가 되어 몸소 넓게 교화를 폈다. … 진흥왕은 … 이 절에 대왕흥륜사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전왕 법흥왕의 성은 김씨요 출가한 뒤의 이름은 법운이며 자는 법공이다. … 왕비도 역시 영흥사를 세우고 … 법흥왕과 함께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이름을 묘법이라 했으며 역시 영흥사에 살다가 여러 해 뒤에 죽었다”⁹⁰⁾하였는데, 이는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나 영흥사가 국왕이나 왕비의 원찰로서 신라의 사찰은 원찰에서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법흥왕비 역시 영흥사에서 종명(終命)함으로써 원찰은 곧 원당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묘사는 선덕여왕의 원찰로 신령을 위한 묘당의 성격을 가지는⁹¹⁾ 원당임은 사명에서 이미 말해준다. 영묘사는 신라중대 성전사원의 하나로 건국시조인 박혁거세와 알영을 모신 묘당(廟堂)으로 오릉과도 인접해 있어 신라왕실의 종묘사원의 성격이 있다.⁹²⁾ 봉은사는 진지왕의 원찰로 원성왕 때에 창건⁹³⁾하였으며, 봉은사의 전신인 진지대왕사에도 진지대왕의 영당을 조영하였을 것⁹⁴⁾으로 추측된다. 문무왕의 원찰로 생각되는 감은사는 문무왕의

89) 『三國遺事』 卷 3, 興法 3, 原宗興法 厭髑滅身

90) 『三國遺事』 卷 3, 興法 3, 原宗興法 厭髑滅身.

91) 김선주, 「신라 선덕여왕과 영묘사」, 『한국고대사연구』 71, 2013, pp. 281-316.

92) 김선주, 위의 논문, 2013, pp. 293-298.

93) 『三國史記』 卷 10, 新羅本紀 10, 元聖王 10年, “秋七月, 始創奉恩寺.”

수중릉인 대왕암의 능사(陵寺)로서의 개념이 보다 강했던 왕실의 원당이었다.⁹⁵⁾ 봉덕사는 태종 무열왕의 원찰이었다가 나중에는 성덕왕의 원찰로 바뀌었다.⁹⁶⁾

2) 통일기의 성전사원

신라왕실에서 국왕에 대한 추복의 문화는 중고기의 사찰에서 뿐 아니라 통일기의 성전사원에서도 이루어졌다. 『三國史記』, 권 38, 잡지 7, 직관 상에서는 사천왕사·봉성사·감은사·봉덕사·봉은사·영묘사·영흥사 등 7개의 성전사원을 볼 수 있다. 신문왕대에는 신충봉성사, 감은사, 사천왕사, 영흥사, 영묘사 등 다섯 곳의 사원이 성립하면서 신충봉성사를 제외하고 네 사원에 각각 신문왕의 父인 문무왕, 祖인 무열왕, 曾祖 문흥대왕, 高祖 진지대왕을 추복하였다.⁹⁷⁾ 봉은사와 봉덕사는 전술하였다. 성전사원은 불교계에 대한 승정기구로서의 통제적 기능과 함께 왕실의 원당으로서 봉사(奉祀)의 기능도 하였으므로⁹⁸⁾ 신라의 성전사원은 고려 진전사원으로 계승된 면이 있다 할 것이다.

3) 신라왕들의 원당

신라는 통일기이후가 되면 왕권이 안정되고 초기의 사리신앙이 약해짐에 따라 불탑보다는 선왕들의 추복·추서를 위한 원탑의 건립이 유행하였다. 8세기 황복사탑을 시작으로 9세기에는 왕위쟁탈전으로 희생된 국왕을 위한 원찰이나 원당이 지방에도 많이 건립되었다. 황복사에는 신문왕, 신목태후, 효조대왕을 위한 원탑이 세워졌으며⁹⁹⁾, 산청의 단속사는 경덕왕의 진영이 모셔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경덕왕의 원당¹⁰⁰⁾으로 볼 수 있다. 숭복사로 개

94) 朴南守, 앞의 논문, 2012, p. 51.

95) 신라 왕경의 원찰 중 능사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은 서악동 고분군과 애공사(哀公寺) 및 영경사(永敬寺), 문무왕의 대왕암(大王岩)과 감은사(感恩寺), 신문왕릉과 황복사(皇福寺), 원성왕릉과 숭복사(崇福寺) 등이 있다.

96) 『三國遺事』 卷3, 塔像4, 皇龍寺鍾·芬皇寺樂師·奉德寺鍾.

97) 朴南守, 위의 논문, 2012, p. 51.

98) 蔡尙植, 앞의 논문, 1984, p. 116.

99) 許興植,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銘」,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pp. 123-124.

칭된 곡사는 원성왕의 원찰로 곡사에는 별실에 원성왕의 진영을 모셨다.¹⁰¹⁾ 실상사는 흥덕왕과 선강태자¹⁰²⁾, 왕경의 창립사는 문성왕의 원탑인 무구정탑이 건립되어 문성왕의 원당¹⁰³⁾임을 알 수 있고, 장흥 보림사는 헌안왕¹⁰⁴⁾, 담양의 개천사는 경문왕과 문의왕후를 위한 원탑과 석등을 세웠다.¹⁰⁵⁾ 팔공산 동화사 비로암은 민애왕 가문의 원찰로 민애왕을 위한 원탑을 건립하였다.¹⁰⁶⁾ 불국사 광학장 강실의 좌벽에는 헌강왕의 화상을 모셨으며¹⁰⁷⁾, 특히 광학장에서는 헌강왕 사후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종실 사람들과 북궁장공주 등이 참석하여 화엄경을 사경하였다.¹⁰⁸⁾ 부석사 역시 국왕의 원찰로, 궁예가 순행시 부석사에 걸린 국왕의 영정을 칼로 내리쳤다는 것¹⁰⁹⁾ 등으로 보아 신라의 원당에는 국왕의 진영을 모셨던 것으로 짐작된다.

4) 왕족·귀족·승려들의 원당

중대에는 원찰에 국왕의 진영을 모시던 것이 중·하대에 이르러서는 성불관의 변화와 불교신앙의 대중화로 점차 진골귀족과 일반인에까지 원당 건립이 확대되어¹¹⁰⁾ 자신의 선대를 모시는 원당을 경영하였다.

唐에 간 김인문의 송환을 기원하는 원당으로 인용사를 세웠고¹¹¹⁾,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장춘랑과 과랑의 혼백을 위해서는 무열왕이 한산주에 세운 장의사가 있다.¹¹²⁾ 신문왕대에는 충애하던 신하 신충을 위해 봉성사를 세워주기도 했다.¹¹³⁾ 자추사로 추정되는 지금의 백률사는 이차돈의 명복을

100) 『三國遺事』 卷 5, 避隱 8, 信忠掛冠條.

101) 박남수, 「眞殿寺院의 기원과 新羅 成典寺院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1, 2012, p. 74.

102) 「方丈山實相寺史蹟記」; 韓基汶, 앞의 책, 1998, p. 273.

103) 許興植, 「昌林寺無垢淨塔願記」,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pp. 174-175.

104) 許興植, 「寶林寺北塔誌」,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pp. 184-186.

105) 許興植, 「開仙寺石燈」,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p. 228.

106) 許興植, 「敏哀大王石塔記」,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pp. 178-180.

107) 『佛國寺志』 「佛國寺古今創記」, “光學藏講室:21間 所安釋迦繡像1幀及左壁憲康大王畫相 乃景文朝善畫尼圓海之所筆 北寺定公主女也 稱世第一”;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사지총서』 제11집, 아세아문화사, 1983; 박남수, 위의 논문, 2012, p. 78.

108) 崔英成, 「華嚴經社會願文」, 『역주 최치원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99, p. 233.

109) 『三國史記』, 卷 50, 列傳 10, 弓裔·甄萱條.

110) 朴南守, 앞의 논문, 2012, p. 59.

111) 『三國遺事』 卷 2, 紀異 2, 文虎王 法敏.

112) 『三國遺事』 卷 1, 紀異 1, 長春郎·罷郎.

빌기 위하여 건립된 원찰이었다.¹¹⁴⁾ 취선사는 김유신이 평양을 점령한 후 전망자의 혼백을 위로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는데¹¹⁵⁾, 김유신 사후에는 그의 명복을 비는 원당으로 되었다¹¹⁶⁾. 원원사는 김유신·김의원·김술종 등이 함께 발원하여 건립한 승려를 위한 원당이라 할 수 있다.¹¹⁷⁾ 성덕왕대의 감산사는 김지성이 돌아가신 부모와 그의 일족을 추복하였고¹¹⁸⁾, 경덕왕대에 김대성은 전생과 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와 불국사를 세웠다.¹¹⁹⁾ 갈항사는 원성왕의 외가가 경영한 원당이었다.¹²⁰⁾ 민장사도 귀족의 원당이다.¹²¹⁾

이 외에도 원성왕의 아버지 김효양이 세운 무장사¹²²⁾는 그의 숙부, 법광사¹²³⁾는 신무왕의 아버지 김균정, 성주사¹²⁴⁾는 위훈 가문 그리고 북궁해인수¹²⁵⁾는 김위홍의 명복을 비는 원찰이었다. 경문왕의 공주 金曼이 北宮海印 藪의 단월이었다면 경문왕의 누이인 단의장 옹주는 현계산 안락사의 단월로 수철화상을 위한 심원산사¹²⁶⁾가 원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¹²⁷⁾ 김랑중의 딸이 봉화의 축서사¹²⁸⁾에 원탑을 세운 것 역시 원당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석남산사¹²⁹⁾, 유덕사¹³⁰⁾ 또한 원당이다.

113) 『三國史記』 卷 8, 新羅本紀 8, 神文王·孝昭王·聖德王條, 神文王 5年, “봉성사가 낙성 되었다.” 『三國遺事』 卷 5, 神呪 6, 惠通降龍.; “...왕이 옳다고 생각하여 절을 세워 이름을 신충봉성사(信忠奉聖寺)라고 했다.”

114) 『三國遺事』 卷 3, 興法 3, 原宗興法 厭禍滅身.

115) 『三國遺事』 卷 1, 紀異 1, 未鄒王 竹葉軍.

116) 韓基汶, 앞의 책, 1998, p. 267.

117) 『三國遺事』 卷 5, 神呪 6, 明朗神印.

118) 許興植,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pp. 125-128.

119) 『三國遺事』 卷 5, 孝善 9, 大城孝二世父母.

120) 許興植, 「葛項寺石塔記」,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p. 147.

121) 『三國遺事』 卷 3, 塔像 4, 敏藏寺.

122) 『三國遺事』 卷 3, 塔像 4, 鑿藏寺.

123) 황수영, 「新羅法光寺石塔記」, 『白山學報』 8, 1970; 同和出版公社, 『韓國의 佛教美術』, 1974 재수록; 韓基汶, 앞의 책, 1998, p. 272.

124) 許興植, 「聖住寺郎慧和尚碑」,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pp. 212-223.

125) 김창겸, 앞의 논문, 2019, p. 30.

126) 許興植, 「鳳巖寺 智證大師碑」,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pp. 246-256.

127) 한기문,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한국선학』 2, 2001, p. 269.

128) 許興植, 「鶯棲寺石塔舍利盒記」,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pp. 182-183.

129) 許興植,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부록 p. 60. 참조

130) 『三國遺事』 卷 3, 塔像 4, 有德寺.

5) 조사들의 영당

신라에 禪이 전래되는 시기는 도의(道義)의 귀국시기인 821년부터이며¹³¹⁾, 신라왕실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흥덕왕이 홍척(洪陟)의 제자가 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선사들은 왕실과의 교류를 통해 선풍을 일으키고 각 산문을 개창하여 신라하대에는 선종이 크게 유행하였다. 선종에서는 승려의 인맥인 법계를 중시하여 영당을 중요시설로 생각하였으므로¹³²⁾, 사찰 내에 비전(碑殿)과 조사당(祖師堂)을 두어¹³³⁾ 여기에 조사나 국사의 진영을 봉안함으로써 종교적 구심체가 되는 고승들을 추모하였다. 이상에서 열거한 신라의 원당은 [표 6]과 같다.

[표 6] 신라의 원당

번호	원찰·원당명	출 처	비고
1	홍륜사	『三國遺事』 券3, 興法3, 原宗興法 厭濁滅身	
2	영흥사	『三國遺事』 券3, 興法3, 原宗興法 厭濁滅身	성 전사원
3	영묘사	『三國遺事』 券3, 塔像4, 靈妙寺丈六	
4	봉은사	『三國史記』 券10, 新羅本紀10, 元聖王 10年	성 전사원
5	감은사	『三國遺事』 券2, 紀異2, 万波息笛	성 전사원
6	봉덕사	『三國遺事』 券3, 塔像4, 皇龍寺鍾·芬皇寺藥師·奉德寺鍾	성 전사원
7	사천왕사	-	
8	봉성사	『三國遺事』 券5, 神呪6, 惠通降龍	성 전사원
9	단속사	『三國遺事』 券5, 避隱8, 信忠掛冠	
10	송복사	-	
11	불국사 광학장	『佛國寺古今創記』	
12	부석사	『三國史記』, 券50, 列傳10, 弓裔·甄萱	
13	황복사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銘」	
14	동화사비로암	「敏哀大王石塔記」	

131) 최치원이 쓴 지증대사비에는 선종의 전래를 道義에서 그 시원을 잡고 있다.

132) 한기문, 앞의 논문, 2001, p. 288.

133) 한국학문헌연구소, 『泰安寺誌』, 亞細亞文化社, 1984, pp. 112-118. : 한기문, 앞의 논문, 2001, p. 285.

15	실상사	「方丈山實相寺史蹟記」	
16	창림사	「昌林寺無垢淨塔願記」	
17	보림사	「寶林寺北塔誌」	
18	개전사	「開仙寺石燈」	
19	인용사	『三國遺事』 券2, 紀異2, 文虎王 法敏	
20	장의사	『三國遺事』 券1, 紀異1, 長春郎·罷郎	
21	자추사	『三國遺事』 券3, 興法3, 原宗興法 厭鬻滅身	
22	취선사	『三國遺事』 券1, 紀異1, 未鄒王 竹葉軍	
23	원원사	『三國遺事』 券5, 神呪6, 明朗神印	
24	감산사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	
25	석불사·불국사	『三國遺事』 券5, 孝善9, 大城孝二世父母	
26	갈항사	「葛項寺石塔記」	
27	민장사	『三國遺事』 券3, 塔像4, 敏藏寺	
28	무장사	『三國遺事』 券3, 塔像 4, 整藏寺彌陀殿	
29	법광사	「新羅法光寺石塔記」	
30	성주사	「聖住寺郎慧和尚碑」	
31	북궁해인수	「書海印寺田券後『梅溪集』	
32	안락사	「鳳巖寺 智證大師碑」	
33	심원산사	-	
34	축서사	「鷲棲寺石塔舍利盒記」	
35	석남산사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	
36	유덕사	『三國遺事』 券3, 塔像 4, 有德寺	
※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의 내용을 중심으로 표를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료를 같이 활용하였다. ※ 사천왕사는 박남수의 논문 「신라 진전사원의 조영과 그 사상적 배경」에서 무열왕을 추복했다하였으며, 곡사는 박남수의 논문 「진전사원의 기원과 신라 성전사원의 성격」에서 별실에 원성왕의 진영을 모셨다하였다. 또 심원산사는 한기문의 논문 「신라말 선종사원의 형성과 구조」에서 단의장 옹주의 원당이었을 가능성을 말하였다.			

이상으로 신라의 원당 기록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라는 왕실에서 먼저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최초의 불사는 왕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사찰의 시원은 왕실의 원찰로부터라 볼 수 있으며 왕실 원찰은 국왕의 사후

에는 곧 왕실의 원당이 되었다. 불교공인 후 초기 사찰인 흥륜사, 영흥사, 영묘사가 원당이 되었고 통일기의 성전사원 역시 왕실의 조상숭배처로서 봉사의 기능이 있었으므로 왕실원당의 역할을 하였다. 하대에는 원당의 건립 범위가 더욱 확대·확산되어 국왕뿐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에 이르기까지 지방 각처에 원당을 경영하였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사료에서는 왕실의 원찰·원당이라거나 누구의 진영을 모셨다라거나 누구의 원당이 되었다라고 할 뿐 구체적 건축형태인 봉안장소에 대한 사료는 희박하다.

이에 대해 원당암과 관련된 신라왕실의 원당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를 보면, 원당암의 주존인 아미타불의 「佛像腹藏記文」에서는 “옛 기록에 의하면 원당암은 신라 애장왕 즉위 3년에 해인사를 창건하고 역대 왕들의 명복을 빌었던 곳이다. 무량수전을 주존으로 하고 좌우에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조성한 후 …”라 하였고, 조위는 「書海印寺田券後」에서 “… 해인사를 을사이 전에는 북궁해인수라 지칭하였고 경술이후에는 해성대왕 원당이라 하였으며, 위홍이 죽자 진성여왕은 사사로이 총애하여 해성대왕으로 추봉하니 … 해인사는 위홍의 원당이 틀림없다”라 해석하였으며, 1872년 「지방지도」에서는 ‘원당암신라애장대왕주’라 표기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당암은 창건부터 신라왕실과 관련이 깊었으며, 진성왕대를 전후한 시기부터는 원당의 별칭을 가짐으로써 당시 규모가 작았던 해인사 內 왕실의 원당이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당대 해인사의 규모가 작았음은 최치원의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량기」에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원당암의 당우 ‘원당’이 현재까지도 영가들을 위한 영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은 통일신라로부터의 전통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라하대 대표적인 선종사찰의 하나인 성주사지에는 최치원의 낭혜화상탑비(朗慧和尚塔碑)와 성주사 비편(碑片)이 전하는데 그 중 성주사비의 ‘佛殿과 影堂의 개창’이라는 구절¹³⁴⁾에서는 조사들을 위한 영당이 불전 외 별전의 건축형태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신라의 원당에 대한 기록과 신라하대 왕·왕족·귀족들의 추복·추서를 위한 활발한 원당 건립의 풍조나 고승을 추송하기 위한 조사당이나 영정각의 건립 등은 9세기 말 원당암에서 강당을 출현시킨 배경이 되었으며 가람배치 축선상에 출현한 강당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134) 韓基汶, 앞의 논문, 2001, p. 284.

IV. 석조물의 건립시기

원당암은 802년 봉서사라는 사명으로 창건되었다. 창건 당시의 모습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신라하대 왕실 원당이라는 사격을 가짐으로써 대규모 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사역에 남아있는 초석과 기단재를 통하여 9세기 말 원당암에 있었던 건물 수나 석조기단의 모습을 고찰하고자 하며, 탑·석등·배례석 등의 조형물에 대해서도 당대의 가람 內 존재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1. 초석 및 석조기단재

원당암의 예불영역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다양한 부재들이 산재한다. 원형 주좌 초석을 비롯하여 一자형 초석, ㄱ자형 초석, 고막이석, 신방석, 기둥이 있는 면석, 弧形 부연이 있는 갑석과 호형 귀틀석, 각형모퉁이가 있는 부재 외에도 용도를 알지 못하는 부재 등이 많이 있다. 이런 부재들을 살펴보면 크게 건물 평면에 사용된 초석과 건물 기단에 사용된 석조기단재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부재들은 현재에도 보광전, 심우당, 원당의 기단부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위치를 잃은 것이 많아 보인다. 이는 초석과 기단재는 재사용이 가능한 부재이기 때문이다.

1) 초석

초석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토대 밑에서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기초 석재¹³⁵⁾로 기둥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초석은 자연석 초석과 가공석 초석으로 구분되나 삼국시대로부터 한 건물지에서 병존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의 연대가 앞서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¹³⁶⁾

신라는 황룡사부터 가공된 방형초석을 사용하였으며 원형주좌 초석은 주로 통일기의 사찰에서 사용되었다. 가공된 초석은 방형초석면에 주좌면을 원형으로 쇄시리하여 돌기시키고 주좌는 1단에서 3단까지 하는 것이 보통이며 주좌의 높이는 초석면에서 3-5cm 정도이다.¹³⁷⁾ 7세기 감은사 금당지

135) 김동현, 『한국 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1995, p. 117.

136) 김동현, 위의 책 p. 121.

를 비롯하여 사천왕사, 망덕사에서 가장 높은 주좌고를 볼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점차 낮아지는데 정연하고 견고하게 잘 다듬어져 있어 유존하는 초석만으로도 건물지의 위계나 당대의 사격을 알 수 있다. 8세기에는 불국사의 대웅전·극락전을 비롯하여 창림사지, 장항리사지 등 사격이 높은 가람에서 사용되었으며 9세기에는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화엄사에서도 원형주좌가 있는 초석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이중주좌 초석은 신라 초석의 큰 특징이다. 통일신라 사찰의 초석을 비교하면 [표 7]과 같다.¹³⁸⁾

[표 7] 통일신라 초석의 형식비교

단위; cm

사찰명	크기			형식	시기
	기단부	주좌부	주좌고		
황룡사지 금당	90 × 90	·	·	사각형하단 주좌 無	삼국시대
분황사 금당	85 × 80	50	3	사각형하단 원형주좌	삼국시대
홍륜사	80 × 80	70	3	사각형하단 원형주좌	삼국시대
사천왕사지 금당	75 × 75	53	5	사각형하단 원형주좌	7세기
망덕사지 금당	80 × 80	53	5	사각형하단 원형주좌	7세기
감은사지 금당	75 × 75	58	6	사각형하단 원형주좌	7세기
숙수사지	55 × 56	34	2	사각형하단 원형주좌	8세기
창림사지	60 × 60	45	3	사각형하단 원형주좌	8세기
불국사 대웅전	80 × 80	40	3	사각형하단 원형주좌	8세기
불국사 극락전	83 × 83	35	3	사각형하단 원형주좌	8세기
불국사 비로전	80 × 80	50	2	사각형하단 원형주좌	8세기
불국사 관음전	60 × 60	30	2	사각형하단 원형주좌	8세기
천관사지	50 × 50	30	2	원형하단 원형주좌	9세기
장항리사지 금당	73 × 73	60	3	사각형하단 원형주좌	8세기
보문동사지 금당	60 × 64	·	·	사각형하단 주좌 無	8세기
화엄사 각황전	78 × 80	60	2	원형주좌	9세기

137) 張起仁, 『石造』, 普成閣, 2013, p. 65.

138) 백제의 초석은 금당처럼 위계가 높은 건물일 경우 초석면울 돌출시켜 주좌를 두지 않고 기둥과 초석사이 주질(柱檟)이라는 별도의 부재를 두어 이 주질의 높이와 시문되는 문양의 정도에 따라 건물의 위격을 달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옥, 앞의 논문, 2008, p. 9.

[표 8] 이중주좌 초석표

단위; cm

위 치	부재 번호	초석			초반(가로×세로)		비 고	
		직경		주좌 高	완형	반형	초석분류	기둥
		주좌	부좌					
보 광 전 기 단	A	43	-	-	-	-	ㄱ字形	주철 원기둥
	B	-	-	-	-	-	一字形	"
	C	25	50	4.3	-	67 × 25	ㄱ字形 혹은 一字形	"
	D	39	44	4.5	67 × 67	-	ㄱ字形	"
	E	40	46	3.5	-	71 × 28	一字形	주철 사각기둥
	F	55	-	4.5	76 × 76	-	원형	주철 원기둥
	G	45	50	5.0	-	75 × 31	一字形	"
	H	35	-	4.0	-	66 × 25	一字形	"
	I	45	55	4.5	75 × 75	-	원형	"
	J	35	40	3.5	-	65 × 33	一字形	주철 사각기둥
	10개 평균	40.2	47.5	4.2	-	-	-	-
심 우 당 기 단	K	42	50	4.0	-	-	一字形	철없음 사각기둥
	L	-	-	3.5	-	-	원형	"
	M	33	41	3.5	-	-	一字形	"
	N	30	42	3.0	-	-	원형	"
	O	29	35	2.5	-	-	一字形	"
	P	35	45	5.0	-	-	ㄱ字形	"
	Q	-	-	2.5	-	-	一字形 가능성	"
	R	-	-	3.5	-	-	원형	"
	S	36	45	3.0	-	-	ㄱ字形	"

	9개 평균	34.1	43.0	3.39				
	19개 평균	37.2	45.3	3.78			원형; 5개 一字; 9-10개 ㄱ字; 4-5개	

원당암에서 남아있는 초석은 방형초석면 위에 이중주좌를 가진 형태로 원형주좌 초석, 一자형 초석, ㄱ자형 초석 등이 있으며 그 외 고막이석, 신방석 등이 있다.¹³⁹⁾ 당우별 초석을 살펴보면,

보광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장방형 건물이다. 초석은 총 10개로 모두 이중주좌가 있는 古式 초석이다. 원형주좌 2개(F, I), 一자형 5-6개(B, C, E, G, H, J), ㄱ자형 2-3개(A, C, D)다.[그림 10],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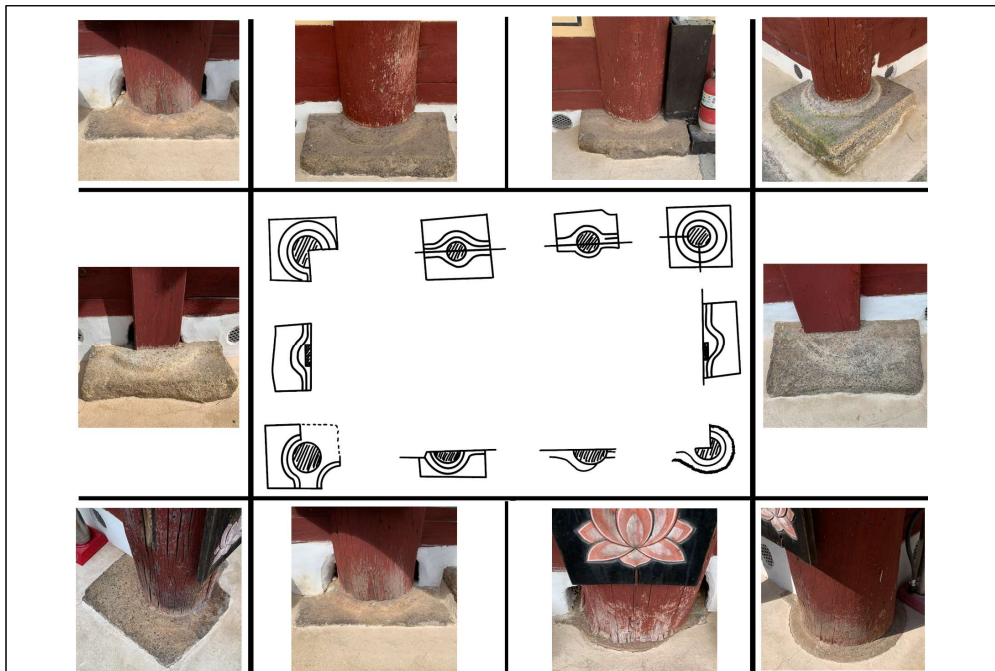
심우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건물로 좌측면과 배면이 반칸씩 확장된 건물이다. 초석은 총 18개로 그 중 古式 초석은 9개다. 심우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건물로 좌측면과 배면이 반칸씩 확장된 건물이다. 원형주좌 3개(L, N, R), 一자형 4개(K, M, O, Q), ㄱ자형 2개(P, S)다. 나머지 초석은 방형의 자연석과 장주형 최근 초석이다.[그림 12], [그림 13]

원당은 정면 8칸, 측면 4칸(좌)-3칸(우)의 ㄴ자형 건물이다. 초석은 호박돌 주초석(①-⑦, ⑫-⑮, ⑳-㉔), 현대 가공석(⑧-⑪), 자연석(⑯-㉓)이며 古式 초석은 없다.[그림 14],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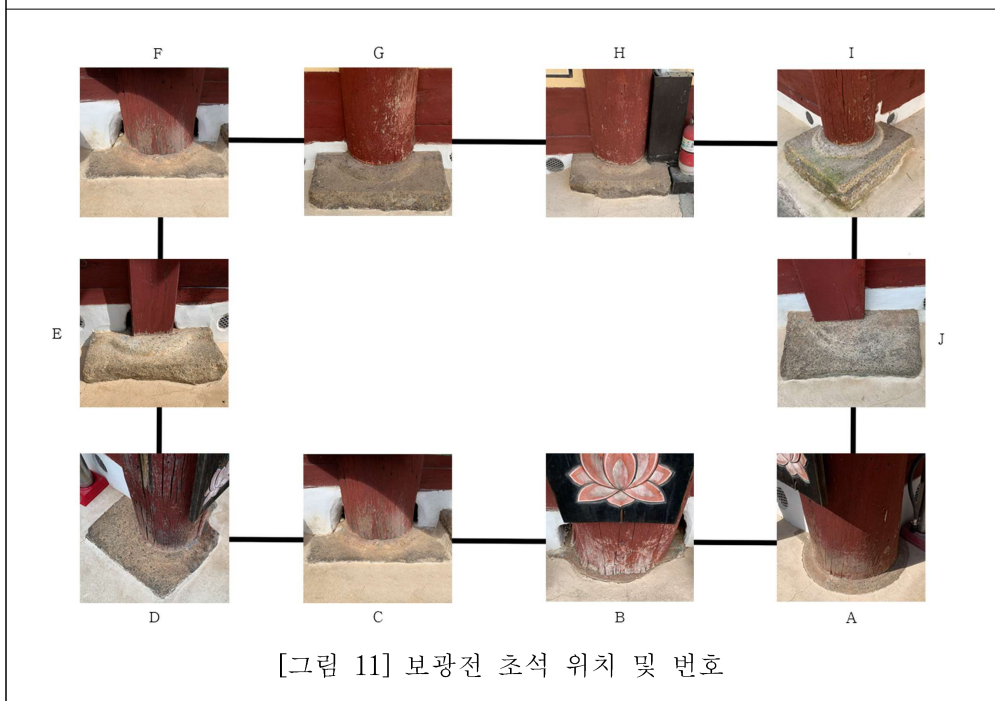
심검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장방형 건물이다. 초석은 모두 현대 가공석이며 古式 초석은 없다.

원당암 사역 內 이중주좌를 가진 고식 초석의 갯수는 총 19개로 보광전에 10개, 심우당에 9개가 사용되어 있다.[표 8] 그 중 원형주좌 초석은 5개, 一자형 초석은 9-10개, ㄱ자형 초석은 4-5개다. 초석 C는 판별하기 애매하다. ㄱ자형 초석은 건물의 모서리에 사용되는 부재로 이를 통해 건물 수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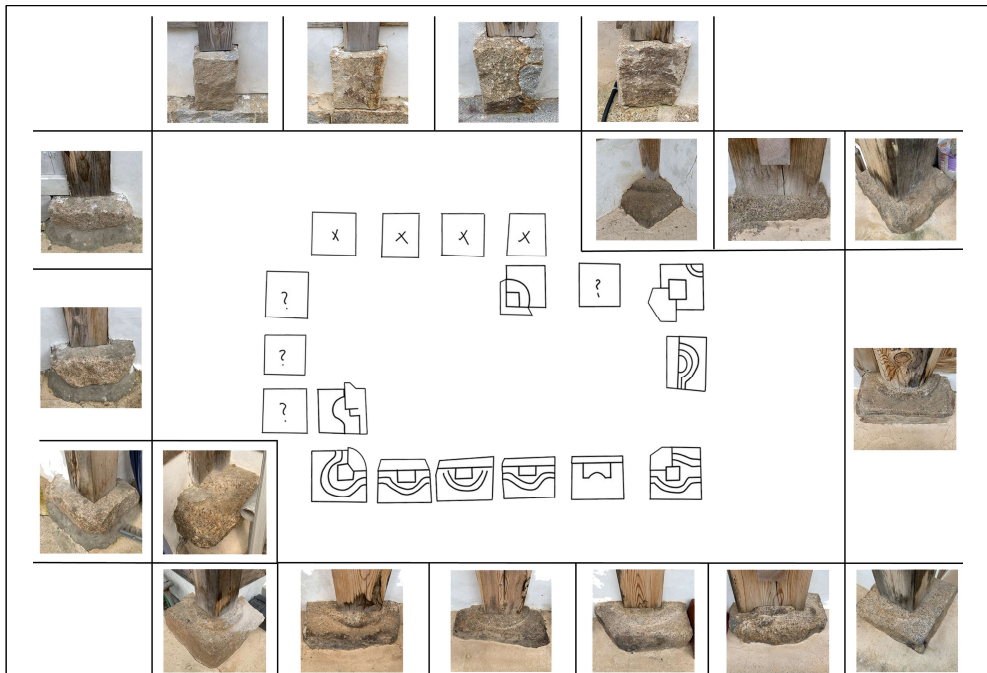
139) 원형주좌 초석은 방형면 위에 원형의 돌기가 있다. 대개 2단이다. 一자형 초석은 둥근면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양쪽으로 고막이석과 연결되는 부재다. ㄱ자형 초석은 켓기둥을 올리기 위해 건물 모서리에 사용되는 부재다. 고막이석은 주춧돌사이의 평면에 두는 벽체를 막는 돌로 쇠시리가 있다. 신방석은 문짝을 달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다.



[그림 10] 보광전의 초석 위치 및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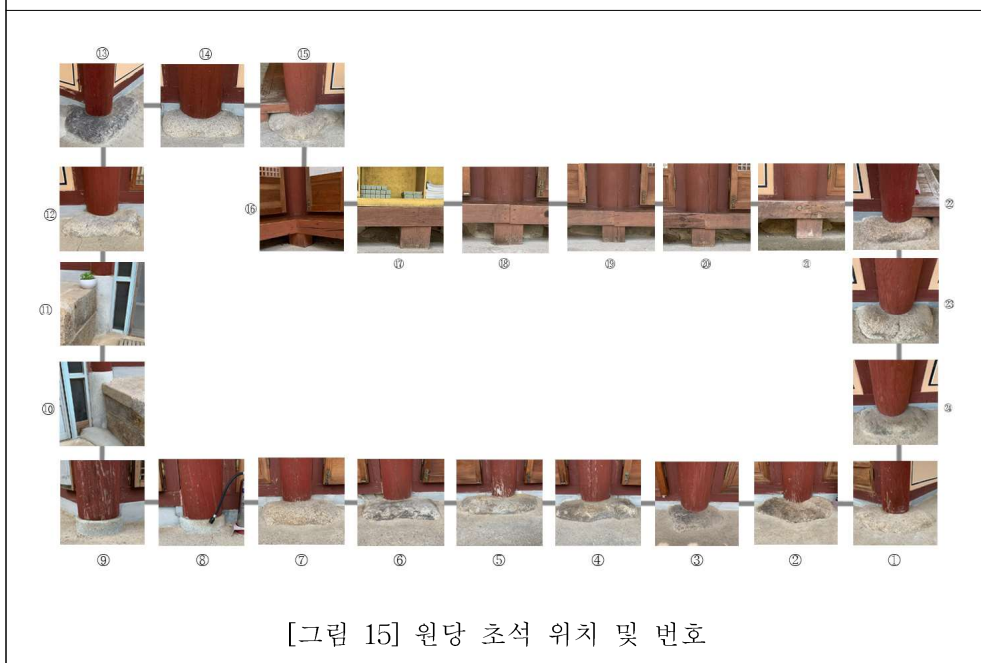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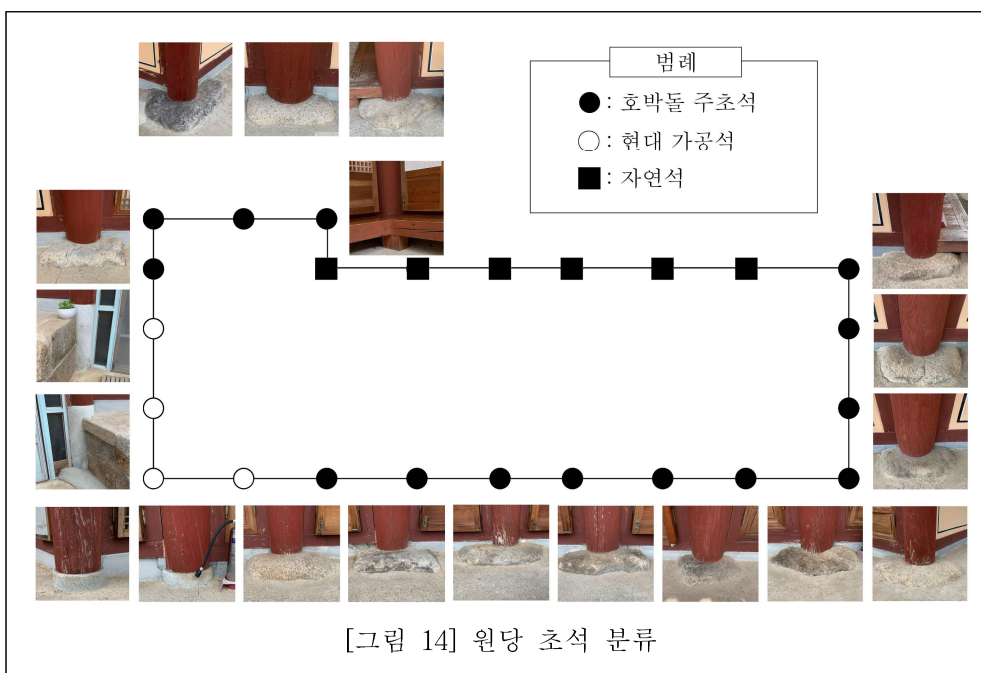
[그림 11] 보광전 초석 위치 및 번호



[그림 12] 심우당 초석 위치 및 모양



[그림 13] 심우당 초석 위치 및 번호



2) 석조기단재

기단은 건축물의 터를 반듯하게 다듬은 후 터보다 한 층 높게 쌓은 단¹⁴⁰⁾으로 바닥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의장적으로는 건물의 위계와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불가에서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의 의미도 있는 것 같다.¹⁴¹⁾ 적석식 기단과 가구식 기단으로 나누어지며¹⁴²⁾ 가구식 기단은 지대석·면석·갑석이 별석으로 구성된 건축적으로 가장 발달된 기단형태이다.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기단으로 불국사 대웅전·극락전 기단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가구식 기단의 형태는 통일신라말까지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¹⁴³⁾

원당암에 남아있는 기단재로는 기둥이 있는 면석부재, 호형 부연이 있는 갑석과 호형 귀틀석 부재, 각형모집이 부재 등이며 안상문 기단과 장대석기단은 보광전과 원당의 현재 건물의 기단이다.[사진 7]



140) 표준국어대사전

141) 신영훈, 『사원건축』, 대원사, 1993. p. 86.

142)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93, pp. 38-39.

143) 진봉수, 「한국사찰건축의 가구식 기단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00, p. 56.

이들 부재에 대해 당우별로 살펴보면,

보광전은 안상문 기단이다.[사진 8] 이 기단은 통일기가 지나 기둥이 없어지면서 넓어진 면적에 안상문이 시문된 것으로 기둥이 있는 가구식 기단 보다는 후대의 것으로 판단되어 안상문 기단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심우당은 이전의 건물지에 2017년 새로 신축하였다.[사진 9] 현재 1층(좌)-2층(우)의 형태로 ㄱ자형과 ㄴ자형이 연결되어 있으며, ㄱ자형 기단의 갑석에는 호형 부연이 있는 갑석재가 사용되어 있다. 호형 부연은 갑석의 아래쪽 안으로 둥근 호가 있는 것이다. 이 부재는 8세기의 각형 아래모퉁이가 발전한 것으로 9세기에는 호형으로 부연을 조각한 형태¹⁴⁴⁾가 된다. 심우당 기단부 뿐 아니라 원당 기단부, 미소굴로 오르는 계단 입구의 수조 위, 미소굴의 중앙 디딤석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한돌에 부연이 조각되어 있고 부재 높이는 약 16cm다. 호형 부연이 있는 부재는 [표 9]와 같다. 심우당 면석에는 기둥이 있는 면석부재가 장대석과 같이 사용되어 있다.[그림 16] 지대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금당 앞 청석탑이 있는 화단 가장자리에도 기둥이 있는 면석부재가 집중적으로 분포한다.[그림 17] 원당암에 남아 있는 기둥이 있는 부재는 기둥의 폭이 25-27cm(a, b, c, f, h, l, o, p)와 21-23cm(d, e, g, j, k, l, m, n, q)의 두 가지 타입인데, 기둥 폭이 넓은 것의 최고 높이는 46cm, 기둥 폭이 좁은 것의 최고 높이는 34cm다. 기둥이 있는 부재표는 [표 10]과 같다.

[표 9] 호형 부연이 있는 부재표

현위치	부재수	비고
원당 기단부	10	계단 부분 2매 포함
심우당 기단부	7	-
미소굴 계단 입구 수조 위 좌측부재	1	계단 입구 수조 위 우측부재 1매 더 가능성 있음
미소굴 중앙 디딤돌	1	-
총 19매		

144) 박주달, 「7~9世紀 新羅 寺刹의 基壇에 關한 研究」,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96, p.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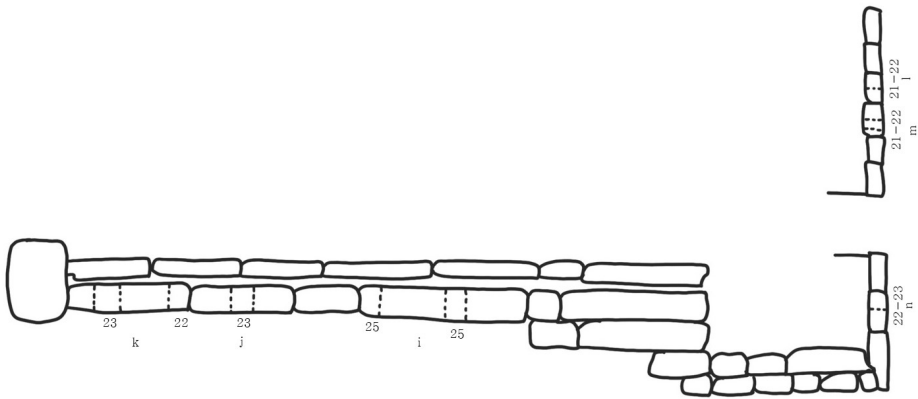
[표 10] 기둥이 있는 부재표(부재번호 a-q)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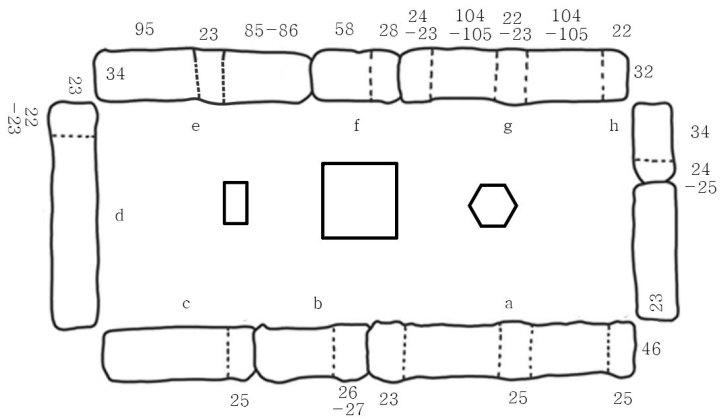
부재 번호	현위치	부재명 및 갯수·치수				부재크기	
		탱주폭	우주폭	면석수	면석길이	가로	세로
a	중정 화단	25	23, 25	2	115, 113-114	300	46
b	중정 화단	×	26-27	1	103	130	46
c	중정 화단	×	25	1	112	137	46
d	중정 화단	×	22-23	1	229	251	23
e	중정 화단	23	×	2	95, 85-86	204	34
f	중정 화단	×	28	1	58	86	32
g	중정 화단	22-23	22, 24	2	103-104, 104-105	2780	32
h	중정 화단	×	24-25	1	34	57	34
기둥 없음	중정 화단	×	×	1	188	188	34
i	심우당정면	25	25	2	112, 108	270	45
j	심우당정면	23	×	2	93, 94	213	26 자갈까지
k	심우당정면	23	22	2	98, 97	240	26 자갈까지
기둥 없음	심우당정면	×	×	1	118	118	자갈발
l	심우당우측	×	21-22	1			34
m	심우당우측	×	21-22	1			34
n	심우당우측	×	22-23	1			34
o	보광전 배면	25	25	2	107, 113	270	
p	원당정면 갑석	25	×	2	55, 115	195	
q	원당우측 화단	22-23	×	1			

총 17매(22-23cm; 9매 / 25-27cm; 8매)

※2매는 기둥이 없는 면석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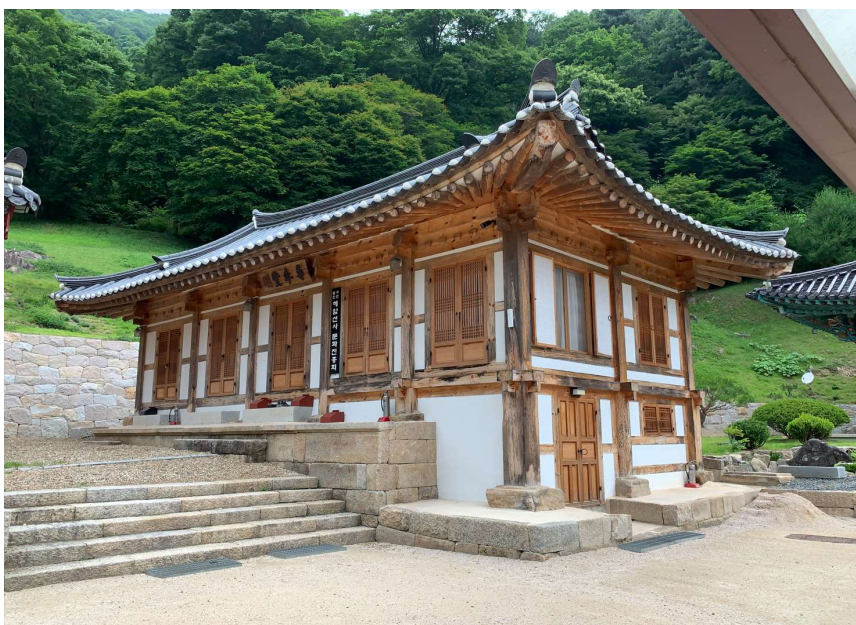
[그림 16] 심우당 기단부 면석



[그림 17] 화단 부재



[사진 8] 보광전 기단



[사진 9] 심우당 기단

원당은 장대석 기단이다.[사진 10] 가구식 기단이 신라를 대표한다면 장대석 기단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기단으로 통일신라시대의 기단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장대석 기단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사진 10] 원당 기단

원당의 기단 갑석은 총 18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형부연이 있는 갑석이 대부분이나 기둥이 있는 면석부재 1매가 섞여 있고 양끝으로는 크기가 다른 호형의 귀틀석이 있다. 호형 귀틀석은 모서릿돌의 內弧가 곡선으로 처리된 것으로 ㄱ자형 초석과 함께 기단 모서리에 사용되는 부재이다. 귀틀석과 갑석은 한돌에 호형 부연이 조각되어 있고 부재 높이도 약 16cm로 같다. 기단 좌측의 일부 갑석은 원부재의 모양에 맞추어 호형으로 깎은 흔적이 있다. 호형 귀틀석 부재는 [표 11]과 같다. 기단 면석은 대형 장대석이다. 지대석은 화단의 자갈로 인해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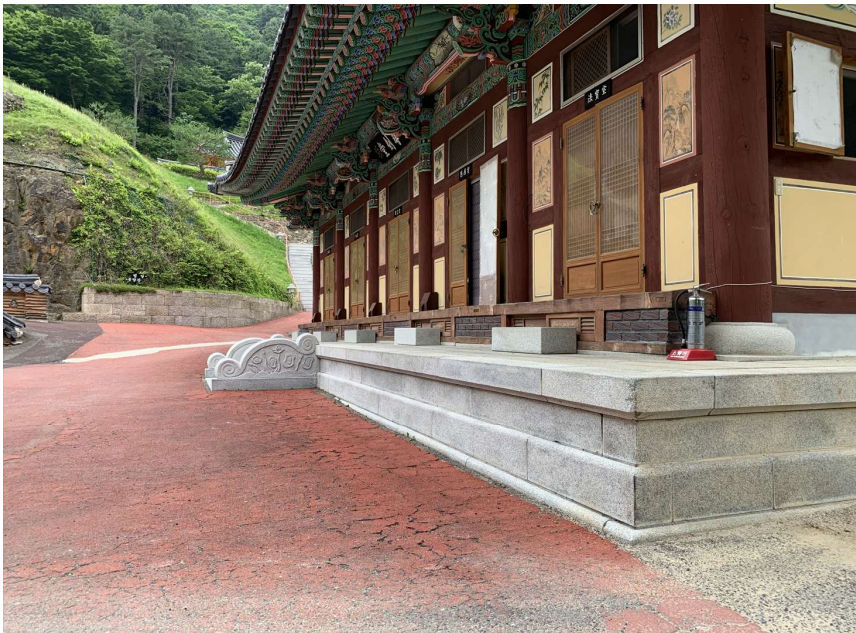
[표 11] 호형 귀틀석 부재표

단위; cm

현위치	부재수	부재길이
원당 갑석모서리 左	1	139 × 125
원당 갑석모서리 右	1	85 × 88
총 2매		

심검당은 가공석을 이용한 현대 가구식 기단이므로 통일신라시대의 부재는 없다.[사진 11]

이 외에도 기단재로 보이는 각형모접이 부재가 있다. 각형모접이 부재는 전형적인 가구식 기단의 지대석·갑석에서 볼 수 있다. 보광전 측·배면 기단, 보광전 측면 화단, 염화실 앞 화단에 흩어져 사용되고 있다. 각형모접이 부재는 [표 12]와 같다.



[사진 11] 심검당 기단

[표 12] 각형모접이 부재표

단위; cm

현위치	부재수	부재길이
보광전 기단 측면 右	1	142
보광전 기단 배면 右	1	182
보광전 측면 화단 內	1	263
염화실 앞 화단	1	110 × 93
총 4매		

이상으로 원당암에 남아있는 초석과 석조기단재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석에 대해서는, ㄱ자형 초석은 꺾기둥이 올라가는 귀초석이므로 원당암의 귀초석 4-5개를 통해서는 2동의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당대의 금당과 강당으로 보인다. 간이 실측을 통한 초석의 평균 주좌 높이¹⁴⁵⁾가 3-4cm가 되는 것으로 보아 왕경지역의 창립사지나 장항리사지에서 사용된 초석 정도에 해당되어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당대 원당암의 사격은 상당히 유의미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창립사는 신라하대 문성왕의 원찰로, 앞서 원당암 아미타불상의 복장기문에서도 烈祖로 언급되어 있다.

석조기단재에 대해서는, 갑석은 귀틀석·갑석의 높이와 호형 부연의 모양이 같아 연이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면석은 기둥이 있는 두 가지 타입의 면석부재를 통해 금당과 강당 각각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둥 폭이 넓은 것은 기둥 높이도 높아 당대 금당과 강당간의 위계를 짐작할 수 있다. 지대석 석재의 사용은 각형모접이 부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신라가구식 기단의 전형적인 모습은 지대석과 갑석이 각형모접이 형태이므로 각형모접이 부재는 지대석 혹은 갑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건판 사진에서 금당기단에 쇠시리가 있는 지대석이 별석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사진 12]으로 보아 각형모접이 부재는 강당의 지대석과 갑석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5) 주좌면이 고르지 않아 가장 높은 부위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조사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NO無 48-14

[사진 12] 경남 함천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 기단(유리건판)

그러나, 현재 금당인 보광전과 강당인 원당은 앞서 고찰한 9세기 무렵의 기둥이 있는 가구식 기단의 모습과는 다르다. 보광전은 연화·안상문 기단이며 원당은 장대석 기단이다. 이에 대한 고찰로서,

먼저 보광전[사진 13]의 연화·안상문 기단에 대해 살펴보면, 갑석에는 연화문이, 면석에는 안상문이 시문되어 있다.[사진 14] 연화문(蓮花文)은 불가를 대표하는 문양으로 처음에는 수막새기와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점점 석조물까지 조식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보광전의 연화문은 단판·복엽의 양련이며 패턴화 되어있어 고려이후의 것으로 판단된다.¹⁴⁶⁾ 연화문의 개수는 83개 내외다. 안상문(眼象文)은 기단부 공간의 깊이감을 위한 장엄조식이다. 석탑, 석등, 부도 등을 비롯하여 9세기 조형물에 사용되며 영암사지와 같이 금당지 기단부에서도 나타난다. 통일신라시대보다는 대체로 고려시대 석조물의 기단부에 많이 시문되므로 기둥이 있는 가구식 기단보다는 시대가 늦은 편이다. 보광전의 안상문은 연화첨두-3호형¹⁴⁷⁾으로 전 시대를 통해 가장

146) 패턴화 된 문양은 통도사 배례석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배례석은 고려시대의 것(11c)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형태¹⁴⁸⁾이다. 안상문의 개수는 16개다.



[사진 13] 보광전 전경



[사진 14] 보광전의 연화문과 안상문 기단

147) 이선주에 의한 분류이다. 그는 안상문을 연화형, 운형, 방형으로 크게 구분하였고 연화형에서 연봉형, 연화평두형, 연화원두형으로 세분하였다. 蓮花尖頭-3호형은 중앙 끝이 뾰족하고 좌우 날개 쪽으로 3개의 弧가 연속적으로 있는 문양이다.

148) 李仙珠, 「統一新羅時代 眼象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6. p. 33.

다음으로 원당[사진 15]의 장대석 기단에 대해 살펴보면, 가구식 기단이 신라를 대표한다면 장대석 기단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기단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봉정사 극락전과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의 대표적인 장대석 기단이다.¹⁴⁹⁾ 원당암의 장대석 기단은 두벌대(좌)-외벌대(우)이며 장대석의 길이가 6m가 훨씬 넘는 부재가 사용되어 면석의 크기나 규모가 압도적이다. 이상의 고찰에서는 보광전의 안상문 기단과 원당의 장대석 기단은 고려이후의 중수를 짐작케 하나, 앞서의 고찰을 통해 9세기 말 원당암의 금당·강당의 석조기단부는 기둥이 있는 면석재를 사용한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가구식 기단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5] 원당 전경

이상 원당암에 남아있는 초석과 기단재를 요약하면, 사역에는 9세기 말 금당과 강당이 있었다. 원당암은 왕경의 원찰에 버금가는 초석을 사용하였으며 금당과 강당의 기단은 가구식 기단이었다. 금당 기단에서 갑석은 호형

149)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9. p.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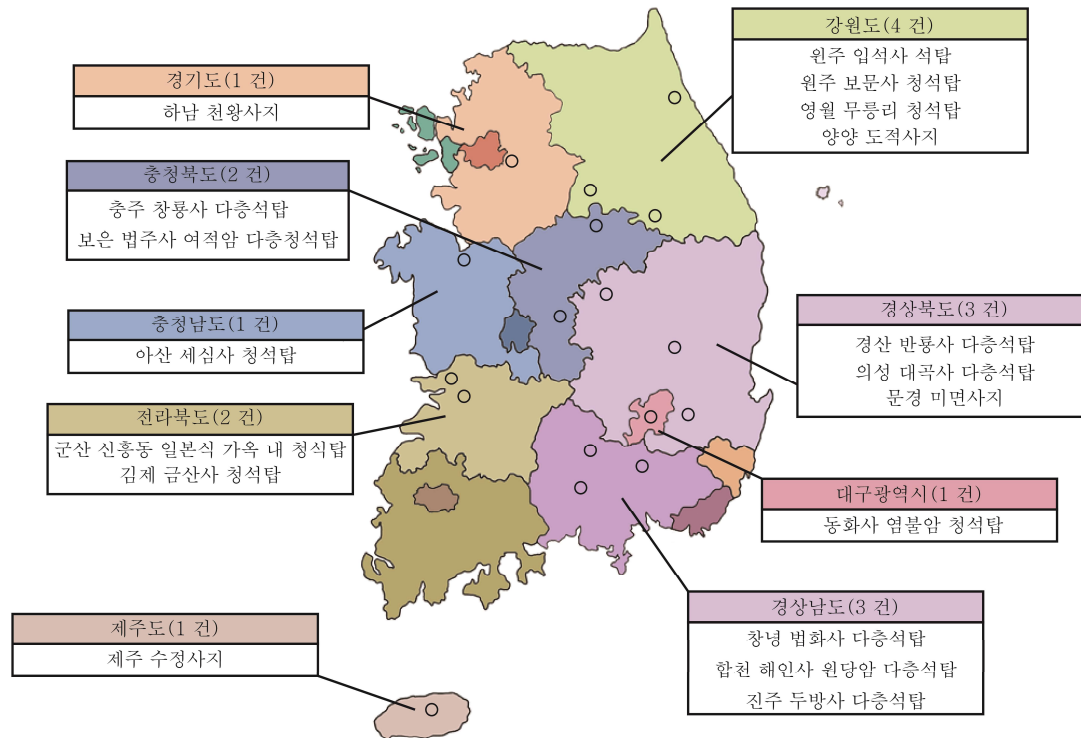
부연이 있는 귀틀석과 갑석을 사용하였고, 면석은 기둥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하여 강당보다 위계를 올렸다. 지대석은 쇠시리가 있는 2단 지대석을 사용함으로써 지대석·면석·갑석을 각각 별석으로 하였다. 강당 기단에서 지대석과 갑석은 각형모접이 부재를 사용하였고 면석은 기둥 폭이 좁은 것을 사용하여 금당보다 위계를 낮추었다. 지대석·면석·갑석은 각각 별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고막이석과 신방석을 통해서는 벽체와 문짝을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신방석은 통일신라 특유의 부재로 원당암이 통일신라시대의 가람임을 말해준다.

2. 청석탑

우리나라의 청석탑 혹은 관련 사지는 원당암을 비롯하여 모두 18개소이다.[표 13], [그림 18] 원당암의 청석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석탑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석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크게 나누어진다.

[표 13] 우리나라(남한) 청석탑 현황

번호	유물 명칭	현재 층수	유물 종목	소재지
1	김제 금산사 육각 다층석탑	11층	보물 제27호	전라북도
2	의성 대곡사 다층석탑	12층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05호	경상북도
3	양양 도적사지	-	-	강원도
4	진주 두방사 다층석탑	11층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00호	경상남도
5	영월 무릉리 청석탑	4층	-	강원도
6	문경 미면사지	-	-	경상북도
7	반룡사 다층석탑	12층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7호	경상북도
8	창녕 법화사 다층석탑	7층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9호	경상남도
9	원주 보문사 청석탑	5층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3호	강원도
10	세심사 다층탑	9층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1호	충청남도
11	제주 수정사지	-	-	제주도
12	군산 신흥동 가옥	8층	-	전라북도
13	보은 범주사 여적암 다층 청석탑	7층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97호	충청북도
14	동화사 연불암 청석탑	10층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9호	경상북도
15	합천 해인사 원당암 다층 석탑 및 석등	10층	보물 제518호	경상남도
16	임석사석탑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9호	강원도
17	충주 창룡사 다층청석탑	7층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56호	충청북도
18	하남 천왕사지	-	-	경기도
※보물 2기, 시도지정문화재 10기, 기타 2기, 사지 4개소 ※경기(1), 강원(4), 충청(3), 경상(8), 전라(2), 제주(1) ※ 2021.11.19부터 문화재 지정(등록)번호는 삭제하였다.				



[그림 18] 청석탑 분포도

1) 기단부

청석탑은 화강암의 하층기단과 점판암의 상층기단으로 이루어진 이중기단 탑이다.

(1) 하층기단(적층식 기단부)

우리나라(남한)에 건립되어 있는 14개 청석탑의 하층기단을 살펴보면 적층식 유형, 가구식 유형, 불상대좌식 유형 등 3가지 유형의 기단이 있다.

첫째는 적층식 유형이다.[사진 16] 금산사 청석탑(이하 청석탑 생략), 대곡사, 두방사, 반룡사, 법화암, 세심사, 신흥동가옥 內 탑, 염불암, 원당암 등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는 원당암과 금산사이다. 원당암과 금산사는 화강암을 치석한 후 마름질하여 단순하게 3단으로 적층하여 기단을 구성하였다. 염불암은 1단은 2매의 석재를, 2·3단은 각각 1매의 석재를 3단으로 적층하였다. 대곡사는 윗단의 모서리를 물딩으로 처리하고 그 아래로 수평음각선을 넣어 적층하였다. 법화암은 근래에 가공석으로 구성하였으며 경내 돌출된 자연암반 위에 3단으로 적층하였다. 반룡사는 현재 대가야박물관으로 옮겨져 있으나 원래는 적층식이다.¹⁵⁰⁾ 세심사는 각 단별로 2매의 석재를 사용하여 엇물림 결구법으로 3단 적층하였다. 이 외 신흥동가옥 內 탑은 가공석으로 2단 적층식 한돌이다. 이상의 탑은 기단의 단수나 결구를 조금씩 달리 하지만 모두 적층식 유형이다.

150) 洪大韓, 「高麗時代 靑石製 多層石塔 考察 1」, 文化史學. 제32호, 韓國文化史學會, 2009. p. 122.



김제 금산사 청석탑



의성 대곡사 다층석탑



전주 두방사 다층석탑



반량사 다층석탑



창녕 범하사 다층석탑



세심사 다층탑



군산 신흥동 가옥 내 청석탑



동화사 엄불암 청석탑



합천 해인사 원당암 청석탑

[사진 16] 적층식 유형의 청석탑

두 번째는 가구식 유형이다.[사진 17] 무릉리 탑, 보문사, 여적암, 창룡사 등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는 영월 무릉리 탑이다.¹⁵¹⁾ 이 탑의 기단은 상·중·하 대석을 모두 갖추고 있다. 기단부는 크고 높으며 중대 면석에는 兩 우주와 중앙에 탕주 1주가 각출되어 있다. 무릉리 탑에서는 시기성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원위치를 지키고 있으며¹⁵²⁾ 주변 마애여래여래좌상의 시기성으로 보아 나말여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법주사 여적암은 상·하 대석은 결실되었으며 남아있는 중대석에는 탕주는 없고 兩 우주가 각출되어 있다. 충주 창룡사는 상·하 대석은 결실되었으며 중대석에는 탕주 1주가 각출되어 있고 兩 우주는 없다. 원주 보문사는 우·탕주가 있는 가구식 기단이지만 근래에 조성하였다. 우·탕주가 각출되어 있는 가구식 유형은 적층식 유형보다는 후대의 것으로 여겨진다.

151) 이 청석탑은 영월군 무릉리 무릉도원면에 요선정(邀仙亭)과 함께 있다. 인근 주천면에는 주천삼층석탑(酒泉三層石塔)이 있다.

152) 홍대한, 앞의 책, 2009, p. 125.



영월 무릉리 청석탑



원주 보문사 청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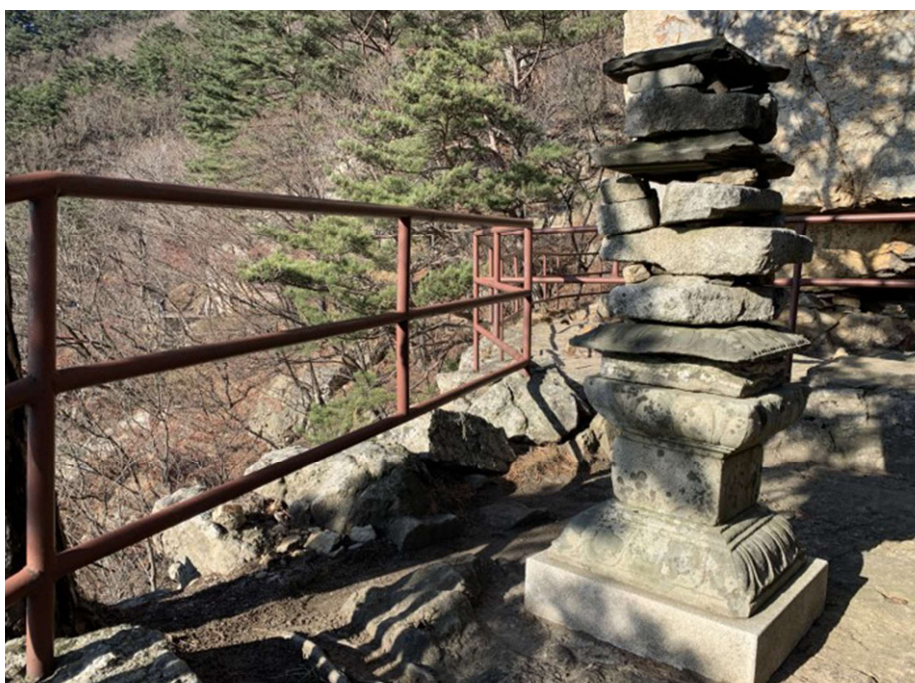
충주 장룡사 다층청석탑



보은 법주사 여적암 다층청석탑

[사진 17] 가구식 유형의 청석탑

세 번째는 불상대좌식 유형이다.[사진 18] 원주 입석사에서 나타난다. 입석사는 드물게 하층기단에서 상·중·하 대석을 모두 갖추고 있다. 기단의 상·하 대석에는 연화문이, 중대 면석에는 안상문이 조식되어 있다. 연화문과 안상문을 갖춘 불상대좌식 형태는 전형적인 고려의 미감이다. 현재 이 탑은 청석 부재(북편석 1매, 옥개석 2매)와 화강암 석탑부재, 자연석 등이 마구잡이로 조립되어 탑의 형체를 완전히 잃고 있다. 다만, 인근에 있는 마애불 대좌에 ‘元祐五年庚午三月 日’라는 명문¹⁵³⁾이 있어 11세기 말 마애불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 미루어 불상대좌식 유형은 적층식 유형보다는 후대의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18] 불상대좌식 유형의 청석탑

그 외 미면사지의 자연석기단이 있다. 이 기단은 대석을 얹은 흔적만 있어 어느 유형인지 알 수 없으며 도적사지, 수정사지, 천왕사지의 기단 역시 알 수 없다.

153) 원주 홍양리 마애불좌상(강원도 유형문화재). 원우(元祐)5년은 고려 선종7년(1090)이다.

(2) 상층기단(불상대좌형 기단부)

원당암 탑의 상층기단은 불상대좌형으로 상·중·하 대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석에는 한번에 단판·단엽 7개의 앙련이, 하대석에는 단판·복엽 5개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다.(4隅 제외) 양·복련에는 각각 간엽이 있다. 복련석이 앙련석 보다 약간 크고 부피가 있다. 이는 복련의 깊은 조식과 탑의 상승감을 위한 방편이라 생각한다. 청석인 점판암은 화강암과는 달리 괴체가 아닌 얇은 판상으로 산출¹⁵⁴⁾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연판의 조식수법이나 탑의 결구와 직결된다.

청석탑의 연화문은 9세기 석조물에 나타나는 다양하고 화려한 연화문과는 조식수법에서 차이가 있다. 즉, 청석탑의 연화문은 석재의 유연성으로 인해 깊이감이 낮고 단조롭고 깔끔하게 조식되었다. 결구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¹⁵⁵⁾ 원당암에서는 검푸른 점판암의 면석과 흰색 玉石의 우주석¹⁵⁶⁾을 별석으로 결구하였으며 세심사는 면석을 단일석으로 결구하였다. 별석으로 제작된 부재의 제한적인 크기로 인해 공예탑의 성격을 지닌다.

청석탑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기존연구에 의하면 “옥천을 중심으로 한 옥천변성대를 축으로 발달한 지질층에서 석재가 산출되는 청석은 매우 한정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이므로 청석산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확인된다.”¹⁵⁷⁾하였다. 현재는 청석탑의 시발점인 원당암을 중심으로 경상도에 가장 많이 남아있으며, 소백산맥 이남지역의 하대 복련석은 대체로 큰 편이라 주로 초기 탑으로 생각된다. 충청·강원지역의 복련석은 크기가 작은 편이라 시대가 내려갈수록 연화대석의 크기가 작아지고 연판이 휘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세심사의 경우는 특이하게 3매(앙련석 1, 복련석 2)의 연화대석이 삽입되어 있어 청석탑의 원형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탑의 중대석은 원당암과 세심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결실되

154) 박덕원·홍세선·김철주·이춘오·이병태·윤현수, 「흑색사암(오석)과 흑색세일(청석) 석재자원의 지질과 산출유형」, 『자원환경지질』 37(6), 2004, pp. 593-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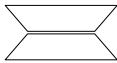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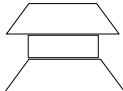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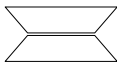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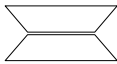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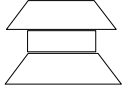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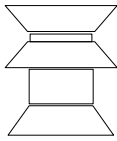
155) 중대 면석의 결구방법으로 기단의 상·하대석에 홈을 파고 우주와 면석을 별석으로 제작하여 홈에 끼우는 방법과 우주석 없이 면석만을 단일석으로 제작하여 홈에 끼우는 방법이다. 후자의 방법을 다시 엇물림 결구법과 H형 결구법으로 나누었다. 전민숙, 앞의 논문, 2016, p.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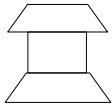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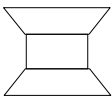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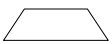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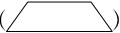
156) 하남 천왕사지 출토된 우주석은 납석제이다. 납석은 옛날부터 곱돌, 옥돌이라고 불려 지기도 했다. 張忠植, 「海印寺 願堂 石造物 에 對하여」, 『동국대학교대학원 大學院研究論集』, 1977, p. 15.

157) 김선, 「제주 수정사지 출토 청석탑의 제작지 검토」, 『古文化』 95, p. 68.

었다. 청석탑 기단부는 [표 14]와 같다.

[표 14] 청석탑 기단부

번호	사찰 및 사지명 外	하층 기단	상층기단				상·하대석이 놓인 상태
			상대석	중대석	하대석	간엽	
1	금산사	적층식	5瓣 단엽	X	5瓣 복엽	○	
2	대곡사	적층식	5瓣 단엽	X	5瓣 복엽	○	
3	도적사지	-	-	-	-	-	-
4	두방사	적층식	5瓣 단엽	탑신석	5瓣 복엽	○	
5	무릉리 청석탑	가구식	X	면석	X	X	X
6	미면사지	기타	-	-	-	-	-
7	반룡사	-	5瓣 단엽	X	5瓣 복엽	○	
8	범화암	적층식	7瓣 단엽	X	3瓣 복엽	○	
9	보문사	가구식	5瓣 단엽	탑신석	5瓣 복엽	○	
10	세심사	적층식	5瓣 단엽	면석	5瓣 복엽	○	

11	수정사지	-	-	면석 우주석	-	-	-
12	신 흥 동 가 옥 內	적층식	X	X	X	X	X
13	여적암	가구식	5瓣 단엽	면석	3瓣 복엽	○	
14	염불암	적층식	X	X	X	X	X
15	원당암	적층식	7瓣 단엽	면석 우주석	5瓣 복엽	○	
16	입석사	불상대 좌식	X	X	5瓣 복엽	○	
17	창룡사	가구식	X	X	5瓣 복엽	X	
18	천왕사지	-	-	면석 우주석	5瓣 복엽	○	
※ 상대석=양련석() , 하대석 = 복련석() ※ 금산사 청석탑은 육각형이며 나머지는 방형탑이다. ※ 양·복련의 수는 한 변의 길이에 조식된 것으로 4隅는 제외하였다. ※ 세심사는 양련의 위치에 양·복련판이 한꺼번에 삽입되어 최하단은 후대의 것으로 보았다.							

2) 탑신부

대부분의 청석탑은 탑신석 원부재는 일부만 남아있거나 전체가 결실된 채 옥개석만 포개져 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으로 이루어진다.

(1) 탑신석

현존하는 청석탑에서 탑신석이 남아있는 곳은 금산사, 도적사지, 두방사, 무릉리 탑, 법화암, 보문사, 세심사, 신흥동가옥 內 탑, 여적암 등이다. 두방사, 세심사, 신흥동가옥 內 탑 등은 원부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나머지 탑의 탑신석은 조립석이 아닌 단일석으로 소수가 남아있으며 대부분이 제 위치를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당암 역시 초층 탑신을 비롯한 탑신석은 모두 결실되었다.

원당암 청석탑은 초층부터 최상층까지 우주석을 별석으로 탑신을 조립¹⁵⁸⁾하였다. 현재는 모든 층의 탑신석을 잃고 있지만 천왕사지나 수정사지에서 초층 탑신석으로 추정되는 면석이 우주석과 함께 출토되어 원당암의 초층 탑신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게 되었다.[표 15] 兩 사지에서 출토된 탑신석은 원당암 중대석과 높이가 비슷해 원당암의 초층 탑신 역시 이들 사지의 중대석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정사지에서는 면석으로 보이는 조립석 여러 매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원당암에서 모든 석재를 별석으로 제작하여 조립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158)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의 사지(寺地) 2」, 2011, pp. 255-256.

[표 15] 원당암·수정사지·천왕사지 면석비교

단위: cm

사찰· 사지명	석재 명칭	갯수	길이	폭·높이	두께	표면장엄
원당암	면석	4	37.3-38.0	25.0-25.4	-	없음
	우주석	4	5.6-6.4	25.4	-	수직선 2줄
수정 사지	조립석	18	20.4-35.4	7.4-10.6	1.9-3.0	梵字
	면석	2	31.2-37.0	26.6	2.4-2.6	-
	면석	2	42.2-42.6	25.4-25.8	3.4-3.6	문비, 인왕상
	우주석	2	5.4-5.9	25.8	3.5-4.1	없음
천왕 사지	면석	1	8.5	19.6	2.2-2.6	-
	면석	2	24.5-25.0	26.3-26.5	2.2-2.5	문비, 팔부중 선각
	면석	1	25.7	30.5	2.6-2.9	사자(해태) 선각
	우주석	1	5.4-6.5	26.3	-	없음

금산사에는 탑신석 2매가 남아있다. 여기에는 우주線, 불상, 범자 등의 표면장엄이 있다. 탑신석에 우주가 각출되어 있거나 선각이 나타나는 것 등은 별석이었던 우주석이 부재의 간략화로 면석에 표현된 것으로 주로 후기 탑에서 나타나는 조식수법이다. 사찰에 따라서는 인왕상이나 팔부중상을 시문하기도 했다.¹⁵⁹⁾ 우주를 선각한 탑은 금산사, 두방사, 법화암 등이며 우주

159) 하남 천왕사지 청석탑지에서는 팔부중상이 선각으로 시문되어 있는 면석재가, 제주 수정사지에서는 인왕상의 면석재가 확인되었다.

가 각출되어 있는 탑은 세심사이다. 여래(如來)나 범자진언 역시 후기 탑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면장엄은 고려왕조로의 교체 후 새로 나타난 불교 미술로 보인다.

금산사의 탑신석에는 兩 우주와 圓內에는 여래가 선각되어 있다. 범자진언은 도적사지, 무릉리 청석탑, 보문사, 수정사지 등에 있으며 도적사지와 무릉리 탑에서는 원 내에 글자가 음각되어 있어 금산사의 경우와 비슷하다. 梵字는 문자자체가 신앙의 상징성을 띄고 있으므로 장엄적인 성격이 있다. 범자진언이 있는 탑은 모두 강원도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청석탑에서 지역성이 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 옥개석

옥개석은 하나의 탑에서는 대체로 같은 양식이 나타난다. 하지만 유존하는 청석탑은 다른 양식이 섞여 있거나 우동과 전각에서 차이가 나 있다. 체감을 또한 고르지 않아 대부분의 탑이 원래의 층수를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재의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잦은 이건(移建)으로 인하여 교체나 분실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옥개석과 탑신석의 결구를 위해 옥개석은 두 종류의 형태로 나누어진다.上面에 한 단의 받침이 있고 그 안으로 홈이 파여 있는 것과 평면인 것이 있는데, 원당암은 받침 안쪽에 홈이 있어 이곳에 탑신을 끼워 결구했음을 알 수 있다. 원당암이나 대곡사 등 초기의 탑은 이 방식으로 결구하였다. [사진 19] 옥개석 上面이 평면인 것은 크기가 작은 탑이거나 혹은 큰 탑의 상륜부쪽에 사용된 것으로 후기 탑에서 주로 결구되는 방식이다. 원당암은 모든 층을 우주석을 별석으로 하여 조립하였고, 금산사는 8층 옥개석부터 上面이 평면¹⁶⁰⁾이다.



[사진 19] 초기 청석탑의 결구방식-의성 대곡사 청석탑

160) 한상훈, 「고려시대의 특수형 석탑에 관한 연구 - 청석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2, p. 31.

우동선은 초기 탑에서는 ‘ㄴ’자 곡선이 나타난다. 또, 옥개 처마는 얇으며 처마의 하단선은 수평을 이루다 전각에서 비스듬히 반전되는 古式的인 기법이 나타나지만, 후기 탑은 우동선에 변화가 적고 처마의 하단선과 추녀의 끝이 함께 치솟는 고려탑의 미감을 가진다. 원당암 옥개석의 우동과 전각에는 초기 탑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옥개석 下面에는 2-4단의 층급받침이 있다. 대체로 3단 각형을 이루나 금산사, 창룡사에서는 4단의 받침이 있고 그 중 한 단은 넓은 斜面을 만들어 각형과 사면의 받침을 함께 두었다. 금산사에는 이 사면에 비천, 용, 화초, 공양물 등 네 가지 문양¹⁶¹⁾을 섬세하게 선각하였다. 이러한 사면이 있는 층급받침은 대체로 후기의 탑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적암과 보문사는 옥개받침이 3단임에도 사면형 받침을 두었는데 이는 지역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존연구에서는 옥개받침을 사면으로 하는 유형은 정림사지 석탑을 시작으로 나타나는 백제계 석탑의 특징¹⁶²⁾으로 보았다.

원당암 옥개석의 下面에는 3단의 각형 받침이 있고 그 바깥으로는 폭이 넓은 경사대를 마련하여 小瓣單葉의 연화문을 띠 형식으로 촌촌하게 시문하였다. 또, 추녀 밑에는 긴 마름모형 무늬가 패여 있다. 모든 층에서 같은 수법을 보이며 매우 섬세하고 장식적이다. 옥개석 아래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섬세하게 연화문대를 시문한 것은 발원자가 상당한 지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미면사지와 창룡사 탑에도 옥개석 下面에 연화문대가 있으나 조각수법이 거칠고 연판의 크기도 작아 원당암이 시대가 앞선 것임을 알 수 있다.

풍탁(風鐸)은 탑의 체감률에 따라 조화롭게 장식된다. 동아시아에서는 6세기를 전후한 무렵에 풍탁을 매단 사원의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풍탁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¹⁶³⁾ 풍탁은 장엄적 기능을 한다. 종형풍탁과 제형풍탁이 있으며¹⁶⁴⁾ 천왕사지에서는 용종형 풍탁이 출토된¹⁶⁵⁾ 바 있다. 원당암 옥개석에도 풍탁공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161) 한상훈, 위의 논문, p. 31. ; 고유섭, 『조선 탑파의 연구』 下, 열화당, 2010. ; 홍대환, 앞의 논문, 2009, p. 133.

162) 전민숙, 앞의 논문, p. 116.

163) 이영선, 「고려시대 풍탁(風鐸)의 전개와 독창성」, 『文化財』 52(2), 2019, p. 304.

164) 이영선, 위의 논문, pp. 295-296.

165) 천왕사지 풍탁은 용종형(龍鐘形)으로 민무늬이며 추는 결실되었다. 풍탁공의 잔존길이 5.7cm, 잔존너비 3cm.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앞의 보고서, 2013, p. 133.

보아 풍탁을 달았음을 알 수 있다.

사리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석탑은 중대석이 결실되고 상·하 대석이 포개져 있어 사리공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층기단은 청석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시선이 오래 머무르게 되어 사리 봉안처가 되었을 것이다. 원당암의 사리공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 “그 내부는 넓어 불사리 및 법사리를 공양했던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¹⁶⁶⁾하였고, 금산사의 사리공에 대해서는 “현재 옥개가 대파되어 탑의 내부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옥개 내부에는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커다란 원형구멍이 있고 이 구멍은 적어도 3-7층 옥개 모두에 뚫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공간은 사리구를 봉안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 애초에는 상당한 크기의 장치물이 안치되어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¹⁶⁷⁾하였다. 미면사지에서 출토된 부재에도 사리공이 있다. 이 부재는 초층 이상의 옥개석으로 짐작되며 중앙에는 약 20cm의 팔각형 사리공이 있고 사방 가장자리의 연화문대에는 소판단엽(小瓣單葉)이 조식되어 있어 원당암 옥개석과 닮았으나 조각수법이 떨어져 시대가 늦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청석탑의 사리공은 상층기단에서 탑신부의 저층까지는 사리공이 뚫려 있었음이 짐작된다. 청석탑 탑신부는 [표 16]과 같다.

166) 張忠植, 앞의 논문, 1977, p. 13.

167) 한상훈, 앞의 논문, 1982, pp. 31-32.

[표 16] 청석탑 탑신부

번호	사찰명	옥개석	옥개받침	풍탁공	풍탁	옥개석下연화문帶	탑신석	표면 장엄
1	금산사	○	4	○			○	우주線刻, 圓內 여래線刻
2	대곡사	○	3	○				-
3	도적사지		-				○	圓內 범자 ¹⁶⁸⁾
4	두방사	○	3	○			○	우주線刻
5	무릉리 청석탑	○	2				○	圓內 범자 ¹⁶⁹⁾
6	미면사지	○	-			○		-
7	범화암	○	3				○	우주線刻
8	보문사	○	3				○	범자 ¹⁷⁰⁾
9	반룡사 (대가야박물관 소장)	○						
10	세심사	○	2				○	우주模刻
11	수정사지		-					文戶, 인왕상, 범자 외
12	신흥동가옥 內	○	3				○	없음
13	여적암	○	3	○			○	없음
14	염불암	○	3	○				-
15	원당암	○	3	○		○		-
16	입석사	○	3					-
17	창룡사	○	4			○		-
18	천왕사지		-	○	○			사자(해태), 문비, 팔부중 외
계		15	?	7	1	3	9	

168) 도적사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한돌이며 圓內 범자문이 1자 혹은 여러 자가 있다.

169) 무릉리 청석탑은 탑신 1면에 각각 3자씩 圓內 총 36자가 있다.

170) 보문사는 탑신 한 면에 각각 2자씩 총 24자가 있다.

3) 상륜부

대부분의 청석탑은 원래의 상륜부재는 결실되고 탑정(塔頂)에는 자연석이 얹혀있다. 그 중 보문사, 세심사, 신흥동가옥 內 탑은 상륜부가 있지만 모두 가공석으로 그 모습이 원형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수정사지와 천왕사지에서 출토된 석조물을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청석탑과 관련하여 수정사지에서는 우주석, 다양한 크기의 조림석, 인왕상이 음각된 면석 등이 출토되었으며¹⁷¹⁾, 천왕사지에서는 우주석, 복련석, 팔부중이 음각된 탑신석, 복발, 보륜, 수연 등이 출토되었다¹⁷²⁾.

이를 통해 원당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수정사지·천왕사지에서 우주석이 출토됨으로써 兩 사지는 초기 탑의 특징은 있으나 선각된 면석의 표면장염으로 보아 원당암보다는 시기가 늦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수정사지에서 다양한 크기의 면석이 출토됨에 따라 이는 초기 탑의 특징인 별석 제작과 상통하므로 비록 시기는 늦으나 원당암의 양식이나 결구 방식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상륜부의 부재에 대해서도 천왕사지에서 원당암의 복발과 닮은 형태의 복발이 출토되었고 보륜, 수연 등의 부재도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원당암 탑의 탑정에 있는 복발은 원부재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청석탑의 상륜부가 복발, 보륜, 수연 등이 갖추어진 일반 석탑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천왕사지의 상륜부 부재에는 圓孔이 있는데 그 크기가 복발>보륜>수연의 순서¹⁷³⁾임을 보면 찰주는 원추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으로 남한에 유존하는 14기(사지 제외) 탑의 흐름과 원당암 청석탑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석탑은 이중기단 탑으로 화강암제 하층기단은 적층식 유형, 가구식 유형, 불상대좌식 유형 등으로 대별되었지만 서로간의 연계성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 중 9기가 적층식인 것으로 보아 적층식 유형이 청석탑의 보편적인 기단이라 볼 수 있었다. 특히, 원당암의 3단 적층식 형태는 왕조를 달리하여 금산사로 이어짐에 따라 청석탑을 대표하는 기단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었다. 다만, 금산사는 평면이 다각형인 고려탑의 특징을

171)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水精寺址」, 2000, pp. 228-240.

17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앞의 보고서, 2013, pp. 133-140.

173) 복발 찰주공 ; 3.5cm-4.0cm, 보륜(2) 찰주공 ; 하부2.5cm-상부3.7cm, 수연 찰주공 ; 1.4cm

가진다. 상층기단은 화강암을 탈피한 점판암에 연판을 시문하여 당대로서는 새로운 석재와 조각수법으로 불상의 대좌를 구현하였다.

청석탑은 9세기 말에 새로 출현한 이중기단을 가진 탑으로 신라의 일반 가구식 기단의 탑과는 그 형태가 사뭇 다르다. 이에 본고는 신라 석탑사를 통해 청석탑 기단부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부재 수, 결구방식, 옥개석의 수법, 표면장엄, 탑의 분포, 탑과 금당 주불과의 관계 등을 통해 원당암 탑이 청석탑의 시원탑이 됨을 살펴보면서 이를 결연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9세기는 불교문화의 확산으로 석조미술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석탑 역시 양식변화가 일어나 단층기단 탑이 등장하고¹⁷⁴⁾ 불상대좌식 기단을 가진 탑이 조성되며¹⁷⁵⁾,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하는 탑이 건립된다. 또, 사자가 기단부의 우주석을 대신하거나¹⁷⁶⁾ 삼층기단을 가진 탑이 등장한다.¹⁷⁷⁾ 이런 흐름 속에서 경주 용장사곡 삼층석탑은 사찰을 벗어나 남산에 조성되었다. 이 탑은 산정의 돌출된 거대암반을 하층기단으로 삼고 상층기단부터 탑을 올렸다.

자연암반의 거대 기단형태는 곧이어 주변지역 사찰에서도 나타난다. 경주 남산동 東삼층석탑,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 서악동 삼층석탑 등에서는 거대암반을 8매의 괴체형 육방입면체로 해석해 놓았으며¹⁷⁸⁾, 원당암에서는 화강암을 3단 적층식으로 재해석하여 청석탑의 하층기단에서 구현하였다. 상층의 불상대좌식 기단형태는 석굴암 삼층석탑과 도피안사 삼층석탑에서 유사성이 찾아진다. 석굴암 삼층석탑은 민무늬의 원형 대석과 중대에는 우주가 있고, 도피안사 삼층석탑은 연판이 있는 팔각형 대석과 중대에는 주(柱)가 없다. 비슷한 시기 청석탑의 대석에는 연판이 조식되고 중대는 우주석을 사용함으로써 불상대좌식 기단을 가진 탑과의 친연성이 높아 보인다. 청석탑의 방형 중대는 신라 석탑의 보편적인 예를 따랐다.[사진 20]

174) 통일신라시대의 단층기단 석탑에는 봉암사 삼층석탑,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직지사 대웅전앞 삼층석탑, 상주 화달리 삼층석탑, 영천 화남동 삼층석탑, 청암사 수도암 東삼층석탑, 표충사 삼층석탑, 화엄사 東오층석탑 등이다.

175) 석굴암 삼층석탑(751?), 도피안사 삼층석탑(865)이다.

176) 화엄사 四사자삼층석탑

177) 해인사 삼층석탑, 영암사지 삼층석탑,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 봉화 취서사 삼층석탑, 경산 부인사 삼층석탑, 삼척 홍전리사지 삼층석탑 등이다.

178) 秦弘燮, 앞의 논문, 1983, p.24.

상층기단



경주 석굴암 삼층석탑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합천 해인사 원당암 청석탑

하층기단



경주 용장사지 삼층석탑



경주 남산동 東 삼층석탑



[사진 20] 청석탑 기단부 형성과정

이로써 청석탑이 이중기단으로 이형탑의 모습을 갖추었다면 부재 수, 결구방식, 옥개석의 수법, 표면장엄, 탑의 분포, 탑과 금당 주불과의 관계 등을 통해서는 원당암 탑이 청석탑의 시원탑이 되는 연원을 살필 수 있다. 원당암 청석탑은 13층으로 추정되는데¹⁷⁹⁾ 탑의 연화대석 뿐 아니라 탑신의 면석과 우주석까지 모든 부재를 별석으로 제작하여 조립하였으므로 부재 수가 많다. 이는 신라 석탑사를 통해 보면 초기 탑인 감은사나 고선사지 석탑에서 부재 수가 많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청석탑의 결구방식은 석재에 홈을 파고 그 안에 면석과 우주석을 끼우는 방식으로 조립하였는데 이 역시 초기 석탑에서 우·탱주를 따로 제작하여 면석에 삽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옥개석은 처마가 얇고 우동선과 전각을 古式的으로 처리하였다. 이 외에도 면석에 특별한 장엄조식이 없고 탑의 규모가 큰 점 등도 신라 일반 석탑의 초기적인 형태와 궤를 같이하며 원당암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서 분포가 많은 점, 청석탑이 있는 사찰의 주불이 대체로 아미타불인 점 또한 원당암 청석탑이 시원탑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표 17]

179) 張忠植, 앞의 논문, 1977, p. 27.

[표 17] 청석탑과 금당 주불과의 관계

번호	사찰명	금당편액	우협시-주존불-좌협시	기타사항
1	금산사	-	-	전각과 상관없음
2	대곡사	대웅전	대세지-아미타-관음	-
3	도적사지	-	-	寺址
4	두방사	무량수전	대세지-아미타-관음	-
5	무릉리 탑	-	-	인근마애불
6	미면사지	-	-	寺址
7	반룡사	-	-	대가야박물관
8	범화사	-	-	자연암반 위
9	보문사	대웅전	대세지-아미타-관음	-
10	세심사	대웅전	소조여래상	협시없음
11	수정사지	-	-	寺址
12	신흥동 가옥	-	-	일본식가옥 内
13	여적암	대웅전	지장-석가-관세음	-
14	염불암	극락전	지장-아미타-관음	-
15	원당암	보광전	지장-아미타-관음	-
16	임석사	-	-	인근 마애불
17	창룡사	극락보전	대세지-아미타-관음	-
18	천왕사지	-	-	寺址

이러한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청석탑은 9세기 무렵 석탑의 기단부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하층기단은 거대 자연암반을 해석하여 화강암을 3단 적층식으로 하였고 상층기단은 화강암을 탈피한 새로운 점판암에 연판을 조직하여 불상의 대좌를 구현한 탑이다. 또한, 원당암 청석탑은 신라 석탑사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부재 수, 결구방식, 표면장엄 등에서 초기 탑의 특징을 보이며 옥개석에 나타난 수법, 탑의 분포, 금당

주불과의 관계 등에서도 역시 초기 탑의 특징이 나타나므로 우리나라 청석탑의 시원탑이라 사료되며, 미감이 동일한 이형석등과 함께 조영된¹⁸⁰⁾ 신라 하대 원당암의 사격에 어울리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이형탑이다. 연구자별 청석탑 연대 추정표는 [표 18]과 같다.

[표 18] 연구자별 청석탑 연대추정표

번호	사찰명	연구자별 추정연대				
		홍대한	김선	장충식	정영호	필자
1	금산사	11 말	11 말			11 말
2	대곡사	10 초	10 초			10 초
3	도적사지	-	11 초			11 말
4	두방사	12 초	12 초			
5	무릉리 탑	10 말	10 말		고려초 추정	10 중
6	미면사지	-	11 초			10 말
7	반룡사	10 초	10 초			10 초
8	범화사	11 말	11 말			11 말
9	보문사	10 말	10 말	10 전		11 말
10	세심사	11 말	11 말			
11	수정사지	-	11 초			11 말-12 초
12	신흥동가옥	-	-			
13	여적암	11 초	11 초	소형추정		11 초
14	염불암	10 중	10 중			10 초
15	원당암	10 초	10 초	9 후		9 후
16	입석사	11 초	11 초	11 말		11 말
17	창룡사	11 초	11 초			10 말
18	천왕사지	-	-			10 말

180) 탑과 석등이 세트조로 조영된 예는 실상사 백장암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두 사찰의 조형물은 9세기 후반으로 동일하다.

3. 기타 석조물

1) 석등

석등(石燈)은 석재를 이용해서 불을 밝히기 위한 공간을 만든 것으로 석탑, 부도와 더불어 사찰의 대표적인 조형물이다. 사찰에서의 등불은 실용적인 기능 외에도 光明을 비추어 부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법등을 이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불가에서는 등과 관련하여 연등불(燃燈佛)이 등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석등의 시원은 북제 동자사(童子寺)에서 최초로 건립된 석등의 모티프가 백제에 전래된¹⁸¹⁾ 후, 백제 장인들이 이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낸 것으로 미륵사지 석등이 최초이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상대석, 화사석, 옥개석에서나 부여 가탑리사지의 하대석, 익산 제석사지의 옥개석 등이 모두 팔각형의 부재임으로 보아 우리나라 최초의 석등은 평면 팔각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석등은 기단부, 화사부, 상륜부로 구성된다.

(1) 기단부

기단부는 지대석과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으로 구성된다. 기단부에서 변화의 중심은 중대 간주석이다. 7세기 전반 미륵사지 석등에서 시작된 평면 팔각형의 간주석은 8세기 불국사 대웅전 석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9세기에 이르면 간주석에 변화가 생겨 초기 형태인 팔각형 뿐 아니라 쌍사자형, 장고형, 인물형 등 새롭고 독창적인 간주석이 등장한다. 이는 불교문화가 경주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불사가 성행하였고, 8세기에 이르러 확립된 평면 팔각형의 석등이 주는 단조로움에서 탈피하여 석공이나 신도 혹은 단월들이 요청하는 새로운 조형을 수용¹⁸²⁾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무렵 원당암에서는 기존의 화강암을 탈피한 육각형 석등을 제작하였는데 이는 9세기 후반 가야산 권역에서 제작된 이형석등 중 하나이다.

원당암 석등은 지대석은 평면육각형이고 화강암제 한돌로 한 변의 길이가 40cm다. 상·하 대석 역시 평면육각형인 점판암제 한돌로 한 변의 길이

181) 박경식, 『한국의 석등』, 학연문화사, 2013, p. 67.

182) 박경식, 위의 책, 2013, p. 206.

가 28cm다. 대석에는 2단의 받침이 조출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육각형의 간주공이 있다. 간주석은 화강암제 한돌로 높이가 약 127cm다. 사각의 모서리를 귀접이한 부등변 팔각형으로 약간의 배흘림이 있으며 기둥에는 上, 下라는 음각된 글자가 있어 제작지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 간주석과 간주공은 어딘지 어울리지 않아 지금의 간주석이 원부재인지 의문스럽다. 점판암제의 육각 연화대석은 영월 무릉리 청석탑 탑정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으나 孔의 형태가 관통된 장방형이라¹⁸³⁾ 원당암 대석의 육각형 孔과는 차이를 보인다.

원당암 석등의 연화문은 상대석에는 단판·단엽 12판의 양련이, 하대석에는 단판·복엽 12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고 간엽이 있다. 조식수법은 청석탑과 동일하다. 청석은 석질이 유연하므로 깊고 다양한 부조는 피하고 얇고 단조로운 문양을 선호하여 청석제 석등에는 9세기 조형물에서 보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화문과는 차이나는 단조롭고 깔끔한 연화문을 조식하였다.

석등에 조식되는 연화문의 변화를 살펴보면, 7세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하대석 2매는 복련이 단판·단엽이며 간엽이 있다. 판(瓣)의 형태는 중앙은 약간 볼록하고 잎 끝이 낮게 솟아있는 자엽이 미분화된 모습이다. 8세기 불국사 대웅전 석등에서는 판 중앙에 능선이 뚜렷하게 생기면서 자연스레 단판이 복판으로 되었고 복엽사이에 간엽이 있는 미미한 정도의 변화가 있다. 그러나 9세기가 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화문이 조식되기 시작하여 석등의 본격적인 장엄조식은 이때부터라 할 수 있다. 9세기 석등에서 새롭게 등장한 연화문의 조식방법은 연화문 內 연화문이 첨가되거나, 연화문 內 새로운 잎이 조식되거나, 연화문 끝에 귀꽃이 조식되거나, 다단으로 연화문이 조식되는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진다.¹⁸⁴⁾ 특히, 고복형 석등은 간주석의 통이 넓어지고 대석에는 굽형괴임대가 첨가되어 기존의 팔각형 석등보다 더욱 다양한 화문이 조식되는데 비해 원당암 석등은 비슷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조형물에 조식되는 연화문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183) 鄭永鎬, 앞의 책, 1961, p. 155.

184) 9세기 석등에서 연화문 內 화문이 조식되는 석등은 범주사 석등, 해인사 석등, 백암리 석등, 백장암 석등이다. 연화문 內에 다른 잎이 조식되는 석등은 운문사 금당 앞 석등이다. 연화문 끝에 귀꽃이 조식되는 석등은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보림사 석등, 취서사 석등이다. 2단의 연화문이 있는 석등은 성주사지 석등, 부인사 금당 앞 석등이다.

(2) 화사부

화사부는 화사석과 옥개석으로 구성된다. 화사부는 석등의 꽃으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현전하는 육각형 석등¹⁸⁵⁾은 모두 화강암제로 화사부 역시 화강석이지만 원당암 석등의 화사부는 옥개석만 남아있고 화사석은 결실되었다. 하지만 석재의 구성이 화강암과 점판암이고 석재의 배열이 지대석으로부터 화강암과 점판암이 교차로 올라가는 패턴이라 화사석은 화강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전하는 육각형 석등의 화창이 대체로 넓은 것으로 보아 원당암 석등도 창이 넓었을 것이며 점판암이 불에 약한 특성이 있는 점이나 석재의 배열순으로도 화창이 화강석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점판암제 옥개석은 배기공이 있고 석등의 구조나 석재의 배열순 또한 제자리로 보여 원형(原形)으로 판단된다. 옥개석 지붕은 연화관¹⁸⁶⁾은 없으나 내림마루는 완만하여 안정감이 있다. 최초의 미륵사지 석등은 연화관은 볼 수 없지만 제석사지 옥개석부터는 연화관이 나타나고 이후 신라의 석등에도 대체로 연화관이 있다. 화강암제 석등에 조식되는 연화관이 점판암제 석등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역시 판상으로 채취되는 석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옥개석 下面에는 3단의 각형받침을 조출하였으며 얇은 처마와 전각의 古式的인 수법 등은 청석탑과 동일하다. 옥개아래 받침이 육각인 것은 화사창도 육각형이었음을 말해준다.

(3) 상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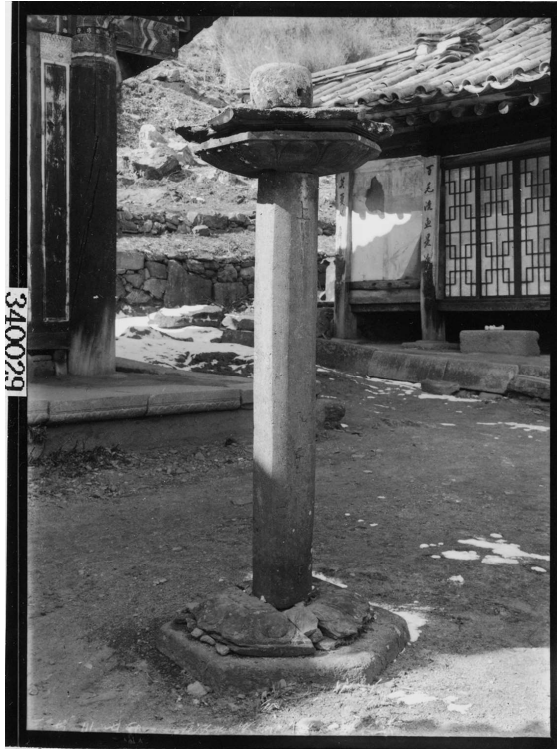
석등의 상륜부는 보륜, 보개, 보주 등으로 구성된다. 원당암 석등의 상륜부에는 보주로 보이는 색깔이 다른 원주형 석재 1매가 얹혀있다. 석재의 중앙에는 圓孔이 관통되어 있고 측면에도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부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석등을 조사한 단면을 보면¹⁸⁷⁾, 보주에는 관통되는 구멍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빗물 등 외부의 이물질의 차단함으로써 내부의 불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현재 석등의 보주에 사용된 이 부재는 차구(茶臼) 중의 하나인 차 맷돌로, 음다풍이 성행했던 고

185) 원당암, 자혜사, 정양사, 계성리의 육각형 석등이 현전하며 원당암 육각형 석등을 제외한 나머지 석등은 모두 고려시대의 석등이다.

186) 연화관은 상륜부가 시작되는 옥개석의 맨 위에 고깔처럼 연화문이 나타나는 것으로 석등에서만 보이는 조식수법이다.

187) 국립문화재연구소, 『석등조사보고서 I』, 1999. 와 『석등조사보고서 II』, 2001. 내용을 참고로 하였다.

려시대 말차를 가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⁸⁸⁾ 1934년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에도 이 부재가 상륜부에 얹혀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원당암 석등은 상륜부를 잃었던 것 같다.[사진 21]



[사진 21] 경남 합천 해인사 원당암 원당암 석등(유리건판)

석등의 상륜부에 대해서는 기존연구가 있다. 연구자는 상륜부에 대해 두 가지 형식을 대별하였는데, 간략화 된 석등의 형식은 팔각간주를 지닌 일반형 석등에 많고 상륜부를 완존(完存)하는 형식은 고북형 석등에 더욱 많다 하였다.¹⁸⁹⁾ 원당암 석등은 간주석을 지닌 형태인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상륜의 부재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원당암의 석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석등은 탑과 더불어 가람배치 요소 중 하나지만 탑·부도처럼 사리장엄구나 탑지와 같은 내용물이 거

188) 정동호·윤백현·이영희, 『차생활문화대전』, 弘益齋, 2012, pp. 532-534.

189) 박종석, 앞의 논문, 2021, pp. 85-100.

의 없으므로¹⁹⁰⁾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조형물의 구조나 연판 등의 조식수법에서 보이는 친연성을 통해 시대를 가늠하게 된다. 하지만 원당암의 석등은 신라의 일반형 석등에서 보이는 간주석의 변화나 조식된 연화문과는 사뭇 달라 조성시기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원당암 석등의 시기성에 대해서는 청석탑과 세트로 조영되어 있고 미감이 동일한 점 등으로 조성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겠으며, 탑과 석등과의 연관성을 통해서도 그 시기성을 고찰할 수 있다. 청석탑의 시기성에 대해서는 전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탑과의 연관성 통해 석등의 시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탑과 석등은 먼저, 연화문의 조식수법이 동일하다. 9세기의 연화문은 부조가 높고 표현 방법이 다양한데 원당암의 연화문은 부조가 낮고 단조롭다. 그 수법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깔끔하여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둘째, 석재의 구성이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석등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제작되었으나 원당암에서는 화강암과 점판암을 같이 사용하였다. 셋째, 석재의 배열패턴이 동일하다. 탑은 방형의 화강암 기단 위에 연판이 조식된 청석을 올렸고, 석등은 육각형의 화강 지대석 위에 연판을 조식한 청석이 올라가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간주석에 조식이 없고 날쎈한 점 등은 불국사의 극락전 석등이나 무량수전 석등과도 일맥상통한다.¹⁹¹⁾ 고려의 육각형 석등은 간주석이 낮아지며 뚱뚱해지고 조각이 들어가기도 하여 원당암 석등과는 전체 미감이 다르다.

이상에서 탑과 석등과의 관계성을 통해 석등의 시기성을 알아보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실상사 백장암에서 찾아진다. 백장암의 탑과 석등은 난간이 공통으로 조식되어 있다. 兩 사찰에서 석탑은 이형탑이며, 석등의 공통점은 다각형의 지대석 위에 조영된 점¹⁹²⁾, 상·하 대석에 凹를 깊게 하여 간주석을 결구한 점 등으로 모두 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다. 한편, 9세기는 전국의 거점사찰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의 지역성이 형성되는데 원당암 석등은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가야산 권역 석조문화의 특징인 다양한 이형 석등의 제작을 그 배경으로 한다. 육각형 석등의 육각은 불교의 수행을 의미하는 육바라밀(六波羅蜜)과 관계¹⁹³⁾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0) 최초의 石燈記는 담양 開仙寺石燈記이다. 개천사지 석등(868)은 통일신라시대 고북형 석등 중의 하나이다. 張忠植, 앞의 논문, 1983, p. 61.

191) 불국사 극락전 석등과 무량수전 석등은 9세기 석등이다.

192) 원당암 석등의 지대석은 화강암제 1매 육각형이며, 백장암은 화강암제 1매 팔각형이다.

2) 배례석

배례석은 ‘절 하(라)는 돌’의 뜻으로 그 위에서 예배와 같은 직접적인 종교의례를 수행하기에는 명칭과 기능이 서로 맞지 않아 보인다. 일본에서는 “법륜사 금당 및 오중탑의 전면에는 특히 지상에 예배의 좌석을 설치하고 이를 예배석, 어배석 혹은 배석이라 부른다.”¹⁹⁴⁾하였는데, 이는 명칭 원래의 기능에다 예나 상징의 의미를 넣은 표현이다. 한국에서는 “사비의 절벽에 또 바위 하나가 있어 10여 명이 앉을 만하다. 백제왕이 왕흥사에 가서 예배하려고 할 때는 먼저 이 돌에서 부처를 바라보고 절을 하니 그 돌이 저절로 따뜻해졌으므로 돌석이라고 한다.”¹⁹⁵⁾는 것으로 보아 망배석의 개념이 있었다. 이에 대해 『불국사고금창기』에서는 배례석을 봉로대로 설명하였다.

배례석에는 거의 명문이 없다. 이는 배례석이 금당 밖에서 예경을 위한 필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탑이나 석등보다는 모양이 단순하고 크기도 작아 제작과정에서 비중이 낮게 취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당이나 탑에서 조성기나 사리장엄구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도사 배례석에는 유일하게 “太康十一年¹⁹⁶⁾乙丑二月日造”라는 명문이 있다.

원당암의 배례석은 장방형으로 가로 92cm, 세로 47cm인 1매의 화강암제 판석이다.[사진 22] 上面에는 36cm 크기의 연화문 있으며 측면의 긴 변에는 2구, 짧은 변에는 1구의 안상문이 조식되어 있다. 연화문의 자방은 약 17.5cm로 민무늬며 8판의 연판에다 그 사이로 간엽 8판을 더 배치하여 전체적으로는 활짝 핀 연꽃의 모습을 부조하였다. 측면의 안상문은 연화침두-3호형이다. 안상문은 석조물에 깊이감을 주고 조형물의 존엄성과 위엄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공예적인 조각수법으로 불상의 대좌에서 비롯하였다. 박종석은 그의 연구에서, “봉로대의 원형은 장방형으로 上面에는 연화문이 1개 있고 전·후면은 2구씩의 안상이, 좌·우측면은 1구씩의 안상이 있는 것을 표준형이라 하였고 신라의 사찰들은 창건시부터 탑, 석등, 배례석이 동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경상도를 중심한 지역에서 봉로대가 많이 조

193)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1999. p. 315.

194) 張忠植, 앞의논문, 1981, p. 40.

195) 『三國遺事』 卷二, 南扶餘 前百濟 北扶餘 條, “又泗泚崖 又有一石坐十餘人. 百濟王欲幸王興寺禮佛, 先於此石望拜佛, 其石自煖因名煖石.”.

196) 太康十一年은 고려 선종 2년(1085)이다.

성되었다.”¹⁹⁷⁾하였는데, 원당암의 배례석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22] 원당암 배례석

배례석은 사찰의 외부공간에 두는 것으로 의례시 향로·촛대 등의 불구(佛具)를 올려놓기에 적당하다. 사찰에서 사용되는 향로에 대한 기존연구는, 한국의 사찰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대형향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형 이동식으로 발달한다¹⁹⁸⁾하였는데 원당암의 배례석도 연화문의 크기가 크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의례시 작은 이동식 향로를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배례석은 금당이나 탑 앞에 놓이며 금당과는 동일한 축선상에 배치되고 석단과는 수직을 이루게 되나 원당암의 배례석은 청석탑, 석등과 함께 금당과 병렬로 배치되어 원위치에 의문이 든다.

이상으로 원당암에 있는 배례석에 대해 알아보았다. 배례석은 봉로대와 같은 의미로 야단법석이나 불교의식을 집행할 때 불전 밖에서 필요한 시설물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일반인의 법당출입이 제한되었으므로 배례석은 일반인의 향공양 의식을 위해서도 탑이나 석등, 금당 앞에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종의 전파이후 고려시대에는 불탑이나 봉로대보다는 참선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사찰이 산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불탑과 봉로대 설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¹⁹⁹⁾ 배례석의 비중이 점차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최근 신용철은 배례석에 대해 9세기이후에 등장하는 탑 앞의 배례석이

197) 박종석, 앞의 논문, 2021, pp. 85-100.

198) 이해인, 「향로의 조형미를 응용한 현대 향로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p. 5.

199) 박종석, 앞의 논문 2021, pp. 97-99.

나 삼중기단 탑의 최하층 기단은 무구정경에 의해 작법된 무구정단이라는 새로운 학설²⁰⁰⁾을 제기하였다.

200) 신용철, 「신라 불탑에 있어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영향」, 『불교학연구』 23, 2009, pp. 333-374.

V. 나말여초 산지가람의 배치방식과 원당암의 9세기 가람

1. 가야산 주변 가람과 고려 초의 진전가람

1) 가야산 주변 가람

가야산 주변에는 전해오는 많은 사지와 사찰이 있으나²⁰¹⁾ 현재는 해인사, 법수사지, 청량사, 심원사(지), 월광사(지)와 원당암 등이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터)이다.

(1) 청량사

청량사(淸涼寺)는 함천군 남산 제일봉 계곡의 팔부능선에 위치한 산지사찰로 일명 ‘남산 절’이라고도 한다. 신라 말, 최치원이 벼슬을 버리고 전국을 주유할 때 이곳 청량사에도 들렀다는 기록²⁰²⁾이 있다. 해인사의 산내암자 중 하나로 ‘오대산사’라는 사명을 가진 적도 있었던 것 같다.²⁰³⁾ 청량사는 절토, 삭평, 매립의 기초조성을 거쳐 대지를 확보하였다. 현재 자연석 대석단이 축조되어 있으나 보축 아래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 보수된 것으로 보인다. 사역에 있는 석불, 석탑, 고북형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다.

1992년, 대웅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각의 확장여부를 위해 일부를 발굴 조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건물지가 확인되어 산지사찰에서도 회랑형태의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²⁰⁴⁾을 보여주었다. 금당 뒤쪽으로 금경사를 이룬 산이 근접하여 초창기부터 강당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내의 석조물과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량사의 9세기 가람은 탑-배례석-석등-금당의 배치에 회랑이 있으며(추정) 강당이 없는 산지가람

201) 法水寺址, 龍起寺址, 舉德寺址, 上蘇利庵, 中蘇利庵, 蘇利菴, 金塘寺(金堂寺), 內院庵(內院寺), 普門庵, 中峰庵, 無風庵, 太平庵, 大成庵, 般若寺, 法王庵, 佛智庵, 智母庵, 幻寂臺, 天城寺, 保國寺, 鎮國寺, 道恩庵, 普賢庵, 彌陀庵, 白雲庵, 日曜庵, 龍起寺, 上起寺址, 彌勒庵址 등이다. 이재연, 『伽倻山 地域 新羅石塔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 22.

202) 『三國史記』列傳 崔致遠 條, ‘경주의 남산, 강주(剛州)의 빙산(氷山), 함주(陝州)의 청량사(淸涼寺), 지리산(智異山)의 쌍계사, 함포현(合浦縣)의 별장 같은 곳은 모두 그가 노닐던 곳이다.’

203) 김상현, 위의 논문, 2006, p. 247.

204) 沈奉謹, 『陝川 淸涼寺址와 石造物』, 『考古歷史學志』, 1993, p. 532.

의 표본배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남북축선을 갖는다.[그림 19]



[그림 19] 합천 청량사 가람배치도

(2) 범수사지

범수사지(法水寺址)는 통일신라시대의 사지로, 범수사는 원당암과 창건 연대가 같은 사찰로 추정된다.²⁰⁵⁾ 경상남·북도를 오가는 교통로인 솔티재에 위치한다. 서북부는 높고 동남부가 낮아지는 경사지에 위치하며 절토, 삭평, 매립의 기초조성을 거쳐 대지를 확보하였다. 당대에는 해인사 인근의 사찰로는 제일 큰 가람으로 사지 아랫마을에는 창건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당간지주와 배례석이 고목과 어우러져 있다.

범수사지 석단은 통일신라시대에 쌓은 자연석 석단으로 모서리가 살아있는 단단한 재질의 석재를 사용하여 허튼층 막쌓기를 하였다. 절단된 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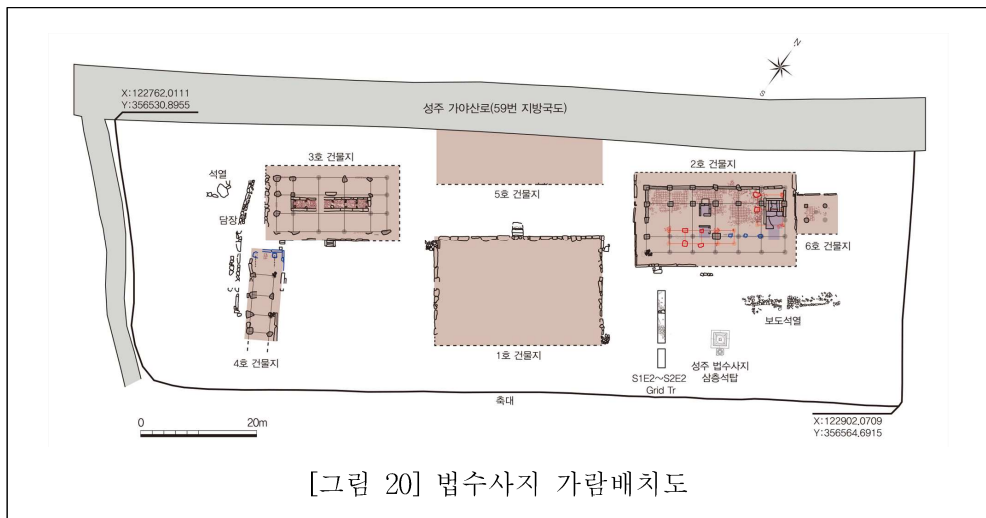
205) 범수사란 기록은 『東國輿地勝覽』 제28권 제28면에 “범수사는 가야산 남쪽에 있었다고 전한다.” (大韓佛教 제369호 1970.9.20.) ; 범수사는 『三國遺事』 金傳大王條 기사와 관련하여 802년(애장왕 3)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며 당시에는 금당사(金塘寺)라 불렸고 고려 때 지금의 범수사가 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폐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주군·(재)대한문화재연구원, 『星州 法水寺址Ⅱ』, 2018, p. 151.

전면으로 하여 수평을 맞추려 애쓴 흔적이 보이며 틈 사이는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반듯하게 수직으로 축조하였다. 이는 부석사나 동화사에서 거석 사이에 잔돌을 메워박은 축조방식과는 다르다. 대석단의 동남부를 중심해서는 석재의 날을 세워 더욱 꼼꼼하게 쌓았는데 이러한 축조방식은 원당암의 석단과도 유사성이 깊어 보인다. 현재 범수사지 대석단의 중앙 좌측 일부분은 몇 년 전 태풍으로 붕괴되었는데 이는 석단조성시 내부 적심돌의 결합상태가 좋지 않아 앞쪽의 면석이 무너질 때 같이 흘러내린 것으로 보인다.

범수사지 대석단 중 통일기의 영역은 석단의 동남부인 우측이며 석단의 안쪽으로 내측대, 추정탑지²⁰⁶⁾, 계단지,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다.²⁰⁷⁾ 안쪽의 내측대에는 상·하의 단이 있고 구역의 동편에 건물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삼층석탑을 중심으로 동서에 회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대 사역의 확장으로 가람축선이 바뀌어 석탑의 북편은 알 수 없으나, 해인사 대적광전에 봉안된 비로자나불상과 문수·보현보살상이 원래 범수사(당시에는 금당사)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탑의 북쪽에 금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축조된 자연석 대석단과 석조물을 바탕으로 9세기 범수사는 당간지주-탑-금당의 배치에 회랑이 있으며(추정) 강당은 알 수 없다. 지형에 따른 남북축선을 갖는다.[그림 20]

206) 현재의 삼층석탑은 후대에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大韓文化財研究院, 위의 보고서, 2018, p. 120.

207) 성주군·大韓文化財研究院, 위의 보고서, 2018, p. 144.



(3) 영암사지

영암사지(靈巖寺址)는 III-1장에서 전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석조물을 통한 가람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영암사지는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창건된 사찰로 대형 장대석 석단이 3단으로 축조되어 있다. 상단에는 금당지와 쌍사자 석등이 있고 중단에는 삼층석탑이 유존한다. 하단은 터만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유구로는 금당지를 비롯하여 남회랑지, 동회랑지, 건물지, 삼층석탑 하단부, 진입로 시설, 축대 등이 있으며²⁰⁸⁾ 석조물로는 금당지의 방형 초석과 기단, 계단의 소맷돌, 쌍사자 석등, 활모양의 무지개다리, 삼층석탑 등이다.

영암사지는 대석단에 사용된 돌못 뿐 아니라 獅子가 고부조 된 금당기단의 안상문은 의장성과 종교적 장엄의 극치를 보여준다. 영암사지 금당기단의 수려한 조각수법은 당대 가람에서는 매우 드문 것으로 원당암 석조기단의 패턴화 된 안상문보다 시대가 앞선다. 중단의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중창을 거치면서 가람축선이 동서로 바뀔때 건립된 것이나 기존의 하부구조 위에 석탑을 건립한 것으로 보아 통일기에도 석탑은 조영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²⁰⁹⁾ 이를 바탕으로 통일신라시대의 가람배치는 석탑-쌍사자 석

208) 경상문화재연구원·합천군, 앞의 보고서, 2013, p. 23.

209) 경상문화재연구원·합천군, 앞의 보고서, 2013, pp. 100-102.

등-금당이 동서축선을 가진다. 회랑은 있으나 강당은 보이지 않는다. 영암 사지는 사역이 넓은 가람임에도 불구하고 금당 뒤 강당이 없는 점은 산지가람의 표본배치 방식과 동일하다.

2) 고려 초의 진전가람

신라는 왕실 영당의 건축적 사례가 없는 것에 비해 고려는 가람배치상으로 진전의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진전은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을 봉안하고 향사하는 처소로 불교식 조상숭배시설이다. 진전에 관한 기록은 이미 『三國史記』 궁예조의 ‘부석사신라왕상’이나 『창암집』의 ‘원주경순왕영전’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진전이 제도화되어 처음 나타나는 것은 고려이다. 고려 진전은 신라의 성전사원을 본받은 면이 있으며, 이는 고려 초 개경으로 定都할 때 신라의 국가 제사 기능 사원과 같은 것을 집중 조성하면서 왕실 조상숭배의 불교적 시설도 함께 계승한 때문으로 보인다.²¹⁰⁾ 왕건의 으뜸사상이 숭불이었으므로 고려 왕조는 건국과 더불어 개경에 십사(十寺)²¹¹⁾를 두기 시작하였으나 진전이 있는 왕실원당의 시작은 4대 광종대 부터이다.²¹²⁾ 광종은 돌아가신 부모의 추복을 위해 봉은사 및 불일사와 숭선사를 창건하였으며 이를 필두로 부왕과 모후의 원당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왕들의 중요한 관례가 되어 고려 전기에는 많은 진전사원이 건립되었고²¹³⁾, 이러한 진전사원은 왕과 왕비의 초상화인 진영을 모시고 기일마다 불교식 재(齋)를 올려서 천복(薦福)하는 곳이었다.²¹⁴⁾ 고려 초에 건립된 진전사원으로는 봉은사와 불일사, 숭선사, 개태사 등이 대표적이다.

(1) 봉은사

봉은사(奉恩寺)는 건국 초인 951년에 창건되었다.²¹⁵⁾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광종이 부왕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복을 위해 봉헌한 원찰이다. 봉은사

210) 韓基汶, 앞의 논문, 2008, p. 214.

211) 『三國遺事』 卷 1, 王曆. 태조, “是年創法王·慈雲·王輪·內帝釋·舍那, 又創天禪院即普磨·新興·文殊·通校勘·地藏

212) 韓基汶, 앞의 책, 1998, p. 226.

213) 고려전기의 대표적인 진전사찰로는 현종대의 현화사, 문종대의 흥왕사, 숙종대의 국청사·천수사, 예종대의 안화사 등이다.

214) 許興植, 앞의 논문, 1984, p. 56.

215) 『高麗史』, 世家 卷 2, 광종 2년.

는 금당과 함께 태조의 상²¹⁶⁾을 불상처럼 모시는 진전으로 구성되어었는데 창사이후 역대 왕들이 상례적으로 이에 배알하였다.²¹⁷⁾ 봉은사는 三門을 통해 태조 진전에 나아갔다고 하며 이 진전은 남향으로 존재하고 진전정(眞殿庭)과 門도 있었다.²¹⁸⁾ 진전의 구조는 어탑이 있었던 것²¹⁹⁾으로 보아 의좌상인 태조를 봉안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진전의 이름은 효사관(孝思觀)²²⁰⁾으로 영효사관사(領孝思觀事)라는 효사관 관리의 직함이 보이는 것²²¹⁾은 신라 성전사원에서 원당을 관리하는 기구인 원당전을 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봉은사의 직접적인 가람배치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중기의 대표사찰인 현화사에서조차도 진전영역이 별도로 있는 것²²²⁾으로 보아 봉은사에서도 진전이 별전으로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2) 불일사

광종은 모후인 충주 유씨神明順成太后(劉氏 神明順成太后)를 위해 불일사와 승선사 등 두 개의 원찰을 봉헌하여 각 사찰에는 진전을 두었다.

불일사(佛日寺)는 951년 봉은사 창건과 함께 개경에 건립한 원찰로 경기도 판문군 선적리 오봉산 남쪽기슭에 위치한다.²²³⁾ 절터는 비교적 광활한 대지 위에 산의 돌출부를 중후면으로 하고 동남쪽의 들이 잘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²²⁴⁾ 지리적 위치가 광활하고 길지였으므로 조선 태조가

216) 태조 왕건상은 그의 능인 顯陵에서 1993년 발굴되었다. 상의 모습은 “좌상은 풍만하고 풍채가 좋으며 살결이 매우 부드럽게 형상화되었다. 또한 가슴과 어깨는 쪽 벌어진고 허리는 잘록하며 얼굴은 너부죽하고 목은 굽고 쪽 빠지었으며 랑불은 축 늘어졌다. 귀는 크고 눈은 가는 실눈이며 코는 주먹코이다. 머리에는 외관과 내관으로 이루어진 관이 씌워져 있다.”하였다. 노명호, 「고려태조 왕건 동상의 유전과 문화적 배경」, 『韓國史論』 50, 2004, pp. 151-153.

217) 박남수, 앞의 논문, 2012, p. 77.

218) 上元燃燈會儀 謁祖眞儀. 『高麗史』, 卷 69, 志 23, 禮 11, 嘉禮雜儀. 韓基汶, 위의 논문, 2008, p. 211.

219) 『高麗史』, 卷 54, 志 8, 五行 木.

220) 『高麗史』, 卷 120, 列傳 33, 제신(諸臣), 윤소종(尹紹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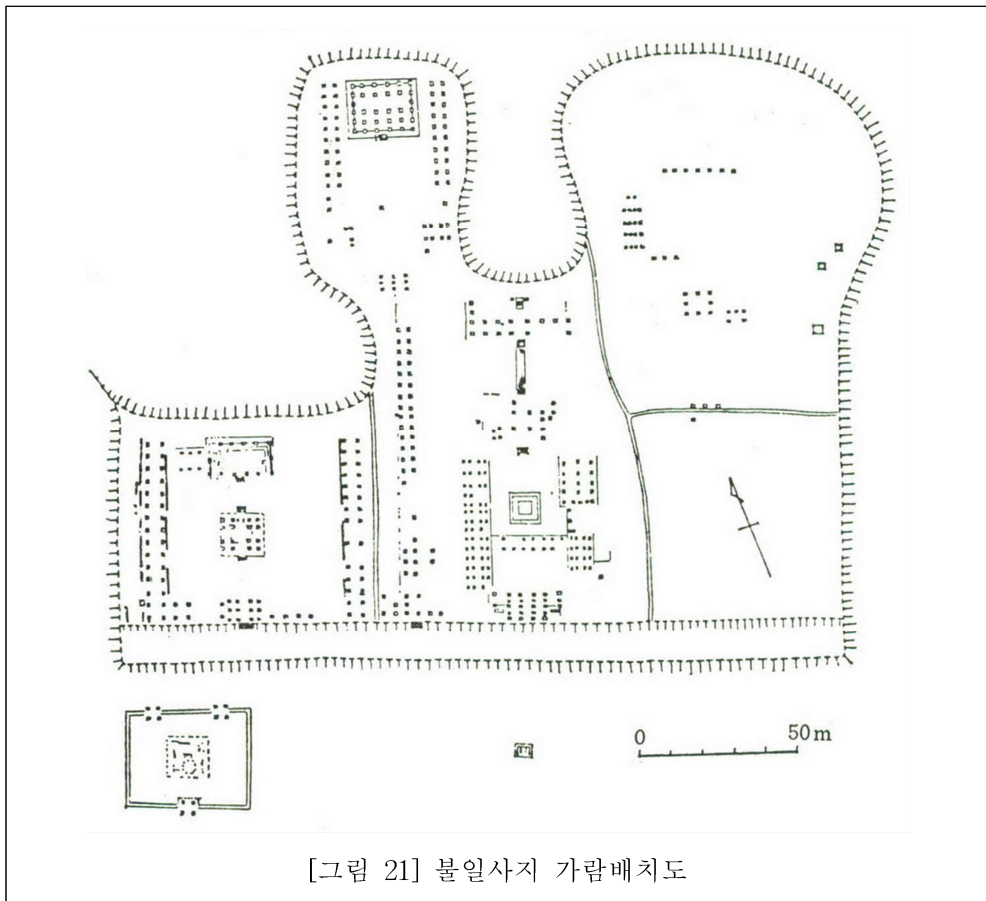
221) 『高麗史』, 卷 116, 列傳 29, 沈德符.

222) “능 동쪽 근처에 山水가 빙 둘러 형세가 있었다. … 이 오묘한 경지에 이 유명한 사찰을 세워 어버이를 추천하여 명복 돌기를 원했다. … 황금의 길지에 시작된 공사가 막 끝나고 … 이에 절 안 서북쪽에 따로 진전 한 자리를 열어 皇考安宗憲景英文孝懿大王 皇妣孝肅仁惠順聖大王太后와 아울러 皇姉成穆長公主元貞王后의 眞影을 안치하게 하니, 좋은 인연을 받았었고 옆에 계신 듯한 정성을 펴게 되었다.” 許興植, 「玄化寺碑陰記」,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부록 p. 70.

223) 대한불교진흥원, 『북한의 사찰』, 2009, p. 440.

224) 대한불교진흥원, 위의 책, 2009, p. 440.

건국 후 수도를 옮기려 할 때 바로 불일사 터를 택하기도 했었다고 한다.²²⁵⁾ 불일사는 계단지(戒壇址)가 가람배치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왕실 출신 화엄종 5국사가 출가 후 불일사에서 구족계를 수계한 것으로 보아²²⁶⁾ 승려들의 수계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관단사원²²⁷⁾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역은 크게 서·중·동원의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심영역인 중원의 가람배치는 남문-오층석탑-금당-강당이 남북축선을 가지며 회랑이 있는 구조이다.[그림 21]



225) 대한불교진흥원, 위의 책, 2009, p. 441.

226) 남동신, 「고려 중기 왕실과 화엄종」, 『역사와 현실』 79, 2011, p. 57.

227) 개경에는 불일사 이외에도 흥국사(興國寺), 영통사(靈通寺), 부흥사(復興寺), 용흥사(龍興寺), 개국사(開國寺), 숭법사(崇法寺) 등의 관단사원이 있다. 韓基汶, 앞의 책, 1998, p. 120.

사역 초입의 당간지주는 가람의 축선과 일직선상에 있다. 중원의 서북쪽에는 건물지가 따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이 진전의 영역으로 추정된다. 이 영역은 삼면에 회랑이 있으며 남문을 지나 복도식의 긴 회랑을 통과한 다음 넓은 마당을 거쳐 건물지로 진입하는 독립적인 영역이다. 넓은 마당은 의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고려 중기 현종의 원찰인 현화사의 창건기에도 사찰의 서북쪽에 진전영역을 따로 두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西院의 앞쪽에는 넓은 담장을 두른 별도의 방형계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은 불일사가 관단사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서원은 수계와 관련된 계단영역으로 짐작된다. 방형사리단 중앙에는 석종형사리탑이 있다. 중원이 있고 동·서원이 있는 것은 익산 미륵사지와 유사한 가람배치 방식이다. 불일사지는 1959년 발굴하였다.

(3) 숭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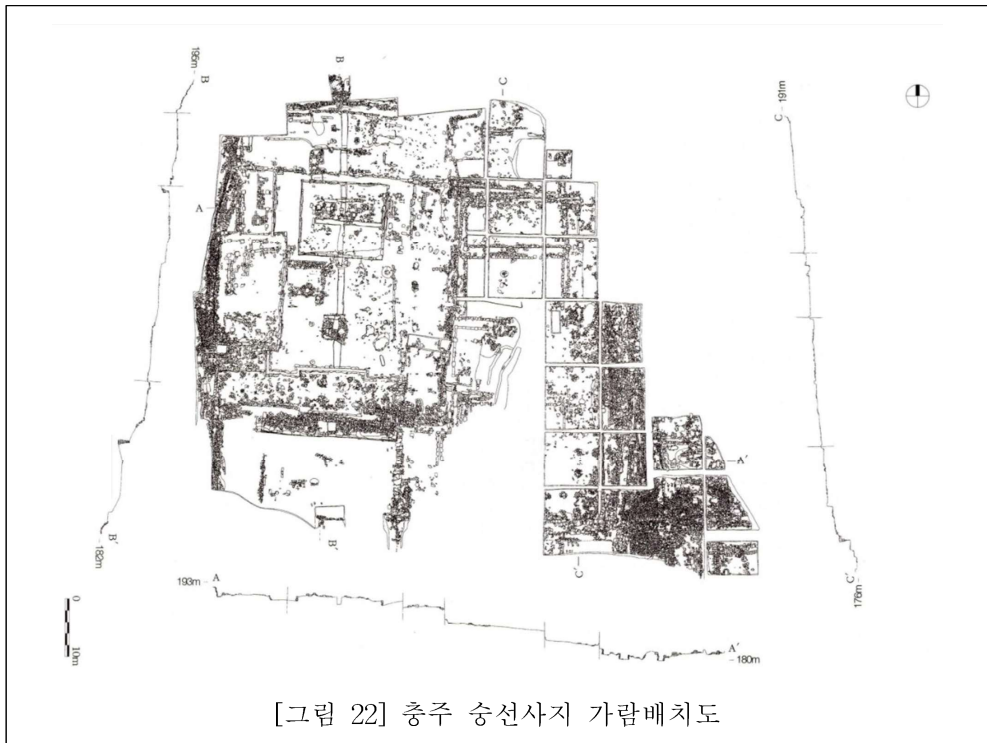
숭선사(崇善寺)는 봉은사나 불일사와 마찬가지로 왕실원찰인 진전사원이다. 광종은 즉위 5년에 태조의 三妃²²⁸⁾인 모후의 원찰로 숭선사를 창건하였다.²²⁹⁾ 사지는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송리에 있는 숭선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지에서 ‘崇善’명의 기와가 출토되면서 사명과 창건연대가 밝혀져 숭선사로 명명되었다. 이 절의 당간지주는 절터와는 약 500m정도 떨어진 숭선마을 내에 있으며 두 개의 지주 중 한 주가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때의 조사에 따르면 이 당간지주는 불일사지 당간지주와 동일한 간대석 수법이 사용되었는데, 이 점은 창건 목적 뿐 아니라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兩 사찰간의 연관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숭선사지에서 창건기와 관련된 유구는 남쪽에서부터 문지, 탑지, 금당지, 강당지(추정 영당지), 회랑지, 금당지 남쪽의 담도, 사역의 남쪽 ㄱ형 축대, 북쪽과 서쪽의 담장 축대, 배수로 등이다.²³⁰⁾ 숭선사지 창건기의 가람배치는 바른층쌓기로 된 장대석 석단 위에 문-금당-강당이 남북축선을 가지며 회랑이 있다.[그림 22]

228) 태조의 여섯 王后는 다음과 같다. 一妃; 神惠王后 柳氏(정주), 二妃; 莊和王后 吳氏(나주), 三妃; 神明順成王后 劉氏(충주), 四妃; 神靜王后 皇甫氏(황주), 五妃; 神聖王后 金氏(경주), 六妃; 貞德王后 柳氏(정주) 등이다.

229) 『高麗史』, 世家 券 2, 광종 5年 條, “〈갑인〉 5년(954) 봄 왕이 숭선사(崇善寺)를 창건(創建)하여 돌아가신 모후의 명복(冥福)을 빌었다.”

230) 忠淸大學博物館, 『충주 숭선사지 1~4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p. 65.



[그림 22] 충주 숭선사지 가람배치도

숭선사지에서 강당은 원당암을 제외한 신라 산지사찰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가람배치 요소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강당은 금당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숭선사지에서 확인된 강당지는 작으며²³¹⁾, 금당지보다 높은 석단을 마련하였고 건물 內 예단(禮壇)의 흔적이 남아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명순성태후의 영당으로 추정²³²⁾되는 부분이다. 숭선사지 가람배치의 색다른 특징은 영당과 금당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점인데, 이는 고려 궁실 內 영당영역인 경령전과 집희전과의 배치형태²³³⁾와 유사성을 보여 숭선사는 처음부터 원당사원의 목적에 충실하게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숭선사지에서는 탑지가 발굴되었지만 창건 가람은 무탑가람으로 생각되는데²³⁴⁾, 이는 어머니 신명왕후의 추복을 빌기 위한 사원이므로 탑이

231)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동서 12.7m, 남북 6m이다. 忠淸大學博物館, 앞의 보고서, 2006, p. 75.

232) 忠淸大學博物館, 앞의 보고서, 2006, p. 69.

233) 진전 앞에 선왕에 대한 불교적 의례를 위해 불전을 배치하는 형태이다. 남창근, 「高麗 本闕 景靈殿 一郭의 性格과 建築遺構를 통한 復原」, 청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2, pp. 54-60.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²³⁵⁾ 승선사지와 유사한 가람배치 방식이 논산의 개태사지에서도 나타난다.

(4) 개태사

개태사(開泰寺)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왕건이 후백제를 평정한 장소로서의 의미가 크며 이를 기념한 장소에 개태사를 창건하였다. 개국사찰로 940년에 완공되었으며²³⁶⁾ 개경이 아닌 지방에 창건한 유일한 사찰이다. 개태사지의 영당은 승선사지와 마찬가지로 금당 뒤 중심사역의 북쪽에 배치되어 있다. 개태사의 가람배치는 중문-금당-강당으로 회랑이 있으며 남북축선을 갖는다.[그림 23]



234) 승선사지에는 塔址가 있으나 고려 명종代 가람의 축선이 남북축에서 동서축으로 바뀌면서 塔이 조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초창기 가람배치에서 탑은 제외하였다.

235) 오세덕, 앞의 논문, 2017, p. 169.

236) 『高麗史』, 世家 券 2, 太祖 23年 條, “겨울 12월 개태사(開泰寺)가 완공되자, 낙성화엄 법회(落成華嚴法會)를 열고 왕이 직접 소문(疏文)을 지었다.”

개태사와 숭선사는 각각 광종의 부왕과 모후의 진영을 모신 왕실 원당으로 개태사에 태조의 진영을 모신 시기는 광종대인 숭선사 창건 즈음일 것²³⁷⁾으로 짐작된다. 두 원찰의 창건 연도는 다르지만 숭선사와 개태사는 기단조성을 비롯하여 가람배치 방식에서 유사성이 깊다. 다만, 사역이 조성된 두 개의 영역 중 중심영역이 서원과 동원으로 각각 다른데 이는 지형적인 제약으로 보인다. 숭선사와 개태사가 초창기에는 무탑인 점과 가람배치 상에서 금당 뒤 북쪽에 기단을 별도로 하여 진전을 둔 점은 동일하다. 진전과 금당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는 점은 불일사에서 진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앞에 넓은 공간이 있는 것과 유사하며 넓은 부지는 의례를 위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숭선사지와 개태사지를 비교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개태사지와 숭선사지 비교

	숭선사지	개태사지
창건 시기	954년(광종 5)	940년(태조 23)
추복 대상	신명순성태후(광종의 모후)	태조 왕건(광종의 부왕)
가람 입지	산지가람	산지가람
가람 지형	수래의 산 구릉의 말단부	천호산 구릉의 말단부
가람 좌향	남향	남향
가람 기단	장대석 기단	장대석 기단
사역 영역	2개 영역 ²³⁸⁾ ; 중심사역(西)과 보조사역	2개 영역 ²³⁹⁾ ; 중심영역(東)과 주변영역
가람배치	남문-금당-추정 영당	남문-금당-추정 영당지
탑	무탑	무탑
추정 영당지 가람軸	남북축	남북축
추정 영당지 위치	중심사역의 최북단	중심사역의 최북단
추정 영당지 크기	소규모	소규모로 추정 ²⁴⁰⁾
추정 영당지 기단	별도의 기단 조성	별도의 기단 조성
인근지역과의 관계	교통로에 위치	교통로에 위치

237) 노명호, 앞의 논문, 2004, p. 209.

238) 오세덕, 앞의 논문, 2017, p. 169.

239) 논산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論山 開泰寺址 6차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8, p.

이상으로 가야산 주변에 있는 통일신라 사찰과 고려 초 진전사원의 강당 배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兩 가람배치의 차이는 강당의 유무에 있다. 본고는 불국사 극락전 영역을 산지가람의 표본배치 방식으로 삼은 바 있는데, 청량사·법수사지·영암사지 등 가야산 인근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산지사찰은 금당 앞에 조형물이 배치되고 강당이 없는 표본배치 방식을 따르나 고려 초 사찰인 송선사·개태사는 강당이 출현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특히, 송선사는 창건 목적이 추복선비(追福先妣)임을 『高麗史』에 분명하게 밝혀 놓았으며 가람배치상으로는 진전의 유구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개태사 역시 진전의 유구가 있다. 송선사와 개태사의 진전은 강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라 산지사찰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강당이 금당 뒤에 별전으로 있다. 이에 비해 원당암은 통일신라의 사찰임에도 강당이 출현하는 차별성을 보이는데, 이 강당은 신라하대 원당 건립이 유행하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원당암의 주불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불상복장기문」과 「서해인사전권후」 등의 사료를 통해 신라왕실의 원당으로서 왕실 영당의 건축적 사례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료되며, 이러한 구체적 건축형태는 고려에서 왕실 조상숭배처인 진전이 가람의 축선상에 배치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연구사찰은 [표 20]과 같다.

162.

240) 논산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8, p. 162.

[표 20] 연구사찰의 가람배치·석단·탑 II

	寺(址)名	가 람 배 치				석 단		비 고	탑	
		요소	강당	회랑	축선	종류	지정		초·개창시기의 유물(탑중심)	조영시기
나말 여초 사찰	청량사	탑-석등-금당	X	○ (건물지)	남북	자연석석단	절토, 매립, 삭평	강당 없음	삼층석탑·고북형석등	9C 前
	범수사지	탑-금당	X	○ (건물지)	남북	자연석석단			삼층석탑	9C 前
	영암사지	탑-석등-금당	X	○	동서	장대석석단 (돌못사용)			삼층석탑·쌍사자석등	9C 後
	원당암	강당-배례석-탑-석등-금당	○	○(추정)	동서	자연석석단		강당이 처음 출현 강당이 금당 앞에 배치	배례석·청석탑·육각형 석등	9C 後
	불일사지	문-탑-금당-건물지-건물지	○	○	남북	장대석석단		강당이 금당 뒤에 배치	오층석탑	951년
	송선사지	문-금당-강당	○	○	남북	장대석석단			무탑	-
	개태사지	문-금당-강당	○	-	남북	장대석석단			무탑	-
※ 봉은사의 가람배치도는 알 수 없으며, 불일사지는 진전이 중심영역의 서북쪽에 별전으로 있다.										

2. 원당암의 9세기 가람배치 추정

원당암은 802년 봉서사(鳳棲寺)로 창건되었으나 조선 초, 불교전적의 간기에서 봉서사의 사명이 보이기 전까지는 기록이 전무하다. 하지만 보광전의 안상문 기단과 원당의 장대석 기단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중수를 짐작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시기가 빠른 羅末 최치원의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량기」를 통해서 9세기 말 중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원당이라는 별칭을 통해 신라하대 봉서사는 이미 해인사 內 왕실 원당의 사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당암(願堂庵)은 비봉산의 급경사지에 절토, 매립, 삭평의 기초조성을 거쳐 대지를 확보한 후 자연석 석단을 수축하였다. 가공되지 않은 석재는 서로 미끄러지려하므로 원당암의 석단은 결속력이 좋은 모가 있는 할석을 사용하였고 빈틈에는 켜기역할을 하는 잔돌을 질러 박아가며 수직으로 꼼꼼하게 허튼충쌍기로 수축하였다. 석단은 등고선에 따른 남북방향이며 보축²⁴¹⁾이 있다.[사진 23] 보축의 설치는 장대석 석단에서 보이는 퇴물림의 역할과 비슷한 것으로 물리적으로는 석단에 가해지는 압력을 견디기 위함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사역의 가장 앞쪽에 배치된 당우 ‘원당’의 중요성과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한 방편이다. 보축의 설치로 인해 가람전체의 경관을 흐트리지 않는으나 부석사, 동화사, 법수사지 등의 자연석 석단에서 보축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보축의 축조는 의심이 간다. 9세기의 원축(原築)에서는 군데군데 야질흔을 발견할 수 있으며 배수를 위한 파이프도 꽂혀있어 후보의 흔적도 함께 보인다.

241) 전체 축단의 높이는 555cm, 보축의 높이는 170cm, 보축의 폭은 247cm이다.



[사진 23] 원당암 석단

원당암은 운봉교를 중심으로 선원영역과 예불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통일기의 유물은 예불영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와 과거의 가람배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자연석 석단의 한계성에 따른 것으로 석단과 가람 배치 축선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원당암의 현재 가람배치는 원당-배례석·청석탑·석등-보광전이 동서축선을 이루고 있으며 금당 좌우에 심우당과 심검당이 있고 측면으로 진입한다. 원당암의 가람배치 특징으로는 강당이 금당 앞에 배치된 점, 배례석·청석탑·석등이 금당과 병렬로 배치된 점, 조형물이 금당 가까이에 배치되어 중정이 비어있는 점 등이다.

이에 본고는 9세기 말 원당암의 가람배치를 추정하고자 IV장에서 먼저 사역 內 석조물에 대한 시기성을 고찰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당대 원당암의 사격은 왕경의 원찰에 버금가는 정도였으며 금당과 강당이 있었다.

둘째, 금당과 강당의 건물기단은 기둥이 있는 신라 가구식 기단을 한 건물이었으며 건물 간에는 위계가 있었다.

셋째, 금당과 강당은 각각 지대석, 면석, 갑석을 별석으로 하였다.

넷째, 청석탑과 석등은 이형의 조형물로 신라하대에 건립되었다.

다섯째, 현재의 안상문 기단과 장대석 기단은 통일신라시대보다 시기성이 떨어져 나말이후 최소 한 번 이상의 중수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석조물의 시기성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이에 대해 각각 금당, 강당, 건물 및 조형물의 배치, 중문의 유무, 기타 등으로 나누어 필자의 소견을 덧붙인 다음 9세기 말 가람배치에 대해 추정하고자 한다.

(가) 금당에 대한 소견으로는, 당대 금당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시대 금당의 규모는 3×3칸이 주류를 이룬다.²⁴²⁾ 이에 대해 『三國史記』옥사조 「진골의 가옥에 대한 규정」에는 “진골은 방의 길이와 넓이가 24척을 넘을 수 없고…”²⁴³⁾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다. 부처의 집은 진골귀족의 집보다 큰 게 상례이므로 금당 측면 2칸은 24척에 못 미친다.²⁴⁴⁾ ㉡왕실 관련 사찰의 금당으로는 3×2칸은 규모가 작다. ㉢지형적인 요인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금당 앞 언덕이 금당 기단과 높이가 같아 측면 2칸이 3칸으로 확장되어도 무리가 없다는 점 등이다.

현재 보광전의 규모 3×2칸에 대해서는, 보광전의 석조기단에 시문된 연화문과 안상문은 시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신라하대보다 늦은 시기에 삽입되어 이때 금당의 규모가 현재와 같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초석 D의 방향이 90도 돌아앉아 있는 것²⁴⁵⁾은 나말이후 중수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나) 강당에 대한 소견으로는, 당대 강당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건물 기단이 늘어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단에 삽입된 갑석재를 깎아 부연을 원래의 모양과 동일하게 맞추었고, 기단 좌측부에 기둥이 있는 면석부재가 삽입되어 있다. ㉡초석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 현재의 초석은 호박돌 주초석이 대부분인데 좌측부에 가공석이 사용되어 있다. ㉢건물 정면 칸수가 어색하게 짝수 칸이다. 8칸이다. 이에 따라 편액이 우측으로 치우쳐 걸려있다. ㉣건물의 측면 칸수가 다르

242) 봉정사 대웅전, 불국사 극락전·관음전, 무위사 극락전, 통도사 영산전 등이 대표적이다.

243) 『三國史記』 卷 33 雜誌 2, “眞骨. 室長廣不得過二十四尺 …”

244) 보광전의 건물 크기는 정면이 790cm, 측면이 510cm이다. 주칸거리는 정·배면의 정칸은 300cm이며 협칸은 245cm이다. 좌·우측면 제1 협칸은 260cm, 제2 협칸은 250cm이다. 측면은 현재 510cm로 24척(약 727.2cm)에 못 미친다.

245) [그림 10] 참조.

다. 좌측은 4칸, 우측은 3칸으로 평면 ㄴ자형 건물이다. 이상 ㉑-㉒은 모두 건물 좌측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건물 좌측이 확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㉒일 반적으로 사찰의 강당은 금당보다는 규모가 크므로 5×3칸으로 추정한다.

현재의 당우 ‘願堂’의 규모 8칸×4칸(좌)-3칸(우)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단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9세기 말에는 지금보다는 칸 수가 적었던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 강당이 금당 앞에 배치된 이유로는, ㉑금경사지에 마련한 사역 內 공간의 제한성으로 금당 뒤의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㉒예불영역 내 에서도 경사가 있어 금당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㉒당대에 사용된 석조기단재의 위계가 금당보다 낮은 점 등은 당시 강당의 배치에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는 기존에는 없던 왕실 원당을 처음 조성함에 있어 왕 실 조상숭배처의 중요성을 부각한 초기적인 개념에 따른 것으로 생각해보 았다.

(라) 조형물의 배치에 대한 소견으로는, 탑은 중정에, 석등은 금당 앞 언 덕 위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㉑금당의 측면 칸수가 3칸이라면 탑 은 원래의 위치로 짐작되는 중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초기의 탑은 현재 모습과는 달리 원형이었기 때문에 중정에 있어도 왜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석등의 배치는 ㉒『불설시등공덕경(佛說施燈功德經)²⁴⁶⁾』에서는 등불을 밝히 는 곳이 탑이나 불전 어느 한 곳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탑과 불전 모두 가능한 곳이라 하였는데²⁴⁷⁾, 탑이 중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금당 앞의 공간 이 허락되어 석등은 금당 앞 언덕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비슷한 예로 영암 사지에서도 중정보다 높은 곳에 기단을 조성하여 쌍사자 석등을 배치한 점 은 원당암과 동일하다.[사진 24(좌)] 즉, 兩 사찰에서 석등은 금당기단과 높 이가 같으며 금당 바로 앞에 위치한다. 원당암 석등과 영암사지 석등은 모 두 이형석등이다. ㉒탑과 석등이 세트로 조영된 사례에서도 찾아진다. 실상 사 백장암에서도 석등이 금당 앞에 배치되어 있다.[사진 24(우)] 兩 사찰의 탑과 석등은 모두 9세기 후반에 제작되었다.

246) 불설시등공덕경(佛說施燈功德經)은 불탑에 등불을 가져다 놓을 때 얻어지는 수많은 공덕에 대해 설명한 경전이다.

247) 국립문화재연구소, 『石燈調査報告書Ⅱ 異形式篇』, 2001, p. 337.



[사진 24] 영암사지 금당지 기단과 쌍사자 석등(좌) / 실상사 백장암의 탑과 석등 배치(우)

(마) 심우당과 심검당에 대한 소견으로는, 산지가람의 표준배치 방식에 비추어 보면 심우당과 심검당은 회랑지에 해당된다. 회랑은 금당의 좌우에서 탑을 둘러싸는 건물로 대청성을 가지며 성역을 한정짓는 역할을 한다. 현재 원당암은 미발굴 상태라 회랑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인근 사찰인 청량사나 영암사지 등의 통일신라시대 사찰에서 금당(지) 좌우에 대청의 건물지가 조사된 점은 주목되며 산지사찰인 해인사와 송광사, 화엄사나 부석사 등에서도 회랑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연구된 바 있어²⁴⁸⁾ 원당암에서도 회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당암이 왕실의 원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회랑의 존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회랑은 후대로 갈수록 형태나 기능이 변화하게 되는데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본래의 기능에서 강당이나 불전으로 개축²⁴⁹⁾되기도 한다. 이에 현재의 심우당과 심검당은 당대에는 회랑이었을 것이다.

(바) 당대의 중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정면 진입이었다면 영당으로 인해 양면 진입의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와 같이 측면 진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이유로는 인근 사찰인 영암사지의 통일신라시대 가람은 측면 진입으로 조사되었으며 청량사도 현재 측면 진입한다. 이는 모두 지형에 따른 것이다.

기타 소견으로는, (사) 청석탑과 금당 주불과의 관계에서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청석탑이 있는 사찰이나 암자의 주불전 편액은 극락전, 무량수전, 극락보전, 대웅전 등이었으며 대개는 아미타삼존불 봉안하였는데 이는 시원탑이 있는 원당암에 아미타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²⁵⁰⁾

(아) 사리공 및 사리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석사 원융국사(圓融國師)비문에는 아미타불은 열반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원당암의 주존이 아미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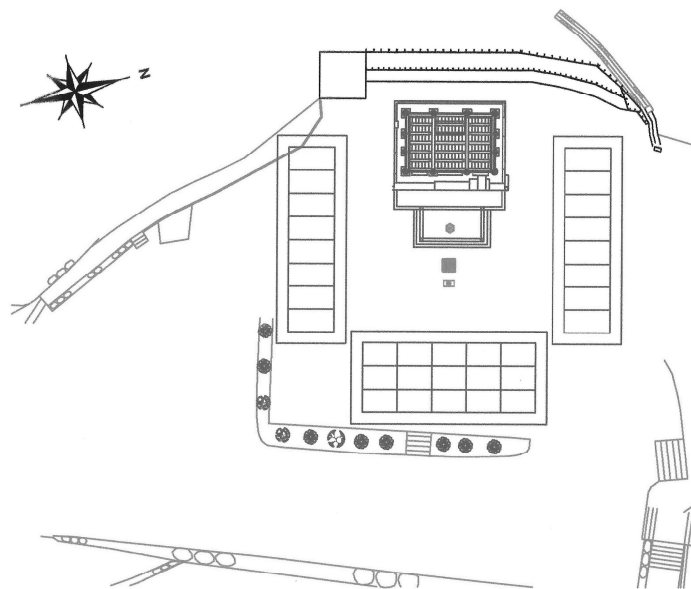
248) “해인사의 경우 조선 초기 권근의 詩에 ‘천간지비환구오(天慳地秘寶區奧) 전고랑회결구웅(殿古廊回結構雄)’라 하여 랑(廊)으로 돌렸다 하였으며, 송광사의 경우도 고대 회랑과는 다를지라도 ‘**낭이간임향(**廊貳間壬向)……동남랑참간임향(同南廊參間壬向)’이라 하여 회랑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하였다. 朴彦坤·李珉姪, 「韓國古代伽藍의 回廊에 關한 研究」, 『환경개발연구논문집』 6, 2001, p. 37; 정병삼·김봉렬·소재구·손재식, 『화엄사』, 대원사, 2000, pp. 83-84. ; 김민숙, 「화엄일승법계도에 나타난 화엄사상의 건축공간 구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p. 90.

249) 경상문화재연구원, 『陝川 靈巖寺址 III-합천 영암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2018, p. 192.

250) [표 17] 참조.

임을 상기해 볼 때 청석탑은 사리신앙적 측면보다는 공예탑으로 조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사리보다는 경전과 같은 법사리나 기타 공양물 등을 봉안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리 봉안처로는 연화문이 시문된 아름다운 상층기단이었을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9세기 말 원당암 사역에는 금당과 강당이 있었으며, 중정에는 청석탑, 석등, 배례석이 조영되어 있었다. 당대의 가람배치는 강당(영당)-배례석-청석탑-육각형 석등-금당이 회랑으로 둘러있고 남북으로 수축된 자연석 석단 위에 동서축선을 가진 가람배치였으며, 원당암의 강당은 신라하대 왕실 조상숭배처로서 왕실 영당의 구체적이고 시원적인 건축 형태라 사료된다.[그림 24]



원당암 전체배치도(현황)
축척 = 1 / 300

[그림 24] 9세기 말 원당암 가람배치도

VI. 맺음말

원당암은 대가람은 아니지만 유서깊은 암자로 창건이후 지금까지 범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고래로부터 조상숭배 문화가 면면히 이어져 오는 가운데 신라하대 왕실 원당의 사격을 얻음에 힘입음 바 크다. 이에 본고는 원당암에 유존하는 석조물의 양식과 건립 시기의 고증을 통해 9세기 말 원당암의 가람배치를 살펴보고자하며, 이와 더불어 당대 가람배치 상에 출현한 강당이 신라왕실 원당의 최초 사례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당암의 사명변화와 연혁에 대해서는, 원당암은 802년 봉서사로 창건된 후 신라하대 왕실과의 두터운 관계 속에서 원당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이후 봉서사와 원당사가 혼용으로 사용되다가 1872년 「지방지도」에 원당사라 표기되었고 일제강점기때 「해인사본말사법」이 제정되면서 원당암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원당암의 연혁에 대해서는 창건이후 사료가 부족하여 최치원의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량기」에 따라 9세기 말 중수를 추정하였다.

원당암의 가람배치 형성과정은 신라 사찰의 입지변화와 함께 하는데, 사찰이 산지에 건립되기 위해서는 대지 확보를 위한 기초조성과 석축조영의 과정을 거친다. 원당암은 절토, 삭평, 매립을 통해 대지를 조성하였으며 모가 살아있는 할석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석단을 수축하고 사역을 확보한 후 가람을 이루었다. 특히, 산지사찰에서 나타나는 석단과 가람배치 축선과의 관계는 초창가람에서는 더욱 확연하므로 산지가람을 이해하는 근본요소임을 강조하고 이는 가람배치의 율선이 됨을 중시하였다.

원당암의 가람배치 포인트는 강당의 출현이다. 원당암의 강당은 Ⅲ-2장을 통해 왕실 조상숭배처로서의 영당일 가능성을 살펴보고았는데 이는 신라하대 조사들을 위한 조사당이나 영정각이 別殿으로 건립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석조물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사역에 남아있는 초석에 대한 양식 분석과 석조기단재의 간이 실측을 통해 9세기 말 원당암에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금당과 정면 5칸, 측면 3칸의 강당이 있었으며 각 건물에는 왕경의 원찰에 버금가는 초석을 사용함으로써 당대 원당암의 사격은 상당히 높았음이 추정되었다. 또, 석조기단재를 통해서로는 당대의 금당과 강당은 지대석·

면석·갑석을 갖춘 가구식 기단을 한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원당암의 청석탑과 석등은 모두 이형이다. 이에 대해서는, 9세기 석탑의 기단부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청석탑은 자연암반을 기단의 모티프로 삼아 건립된 경주 남산의 용장사곡 삼층석탑에서 출발하여 경주 남산동 東 삼층석탑,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 서악동 삼층석탑의 괴체식 기단을 거쳐 원당암에서는 화강암을 계단식으로 적층하여 하층기단에서 구현하였다. 상층기단의 불상대좌식 형태는 석굴암 삼층석탑이나 도피안사 삼층석탑의 연화대좌형 기단에서 유사성이 찾아졌다. 또한, 원당암 청석탑은 부재 수나 결구법 등 석탑사적 측면에서 초기 탑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청석탑의 시원탑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었다.

원당암의 석등은 9세기의 석조물이 각 지역의 거점사찰을 중심으로 권역별 특성이 형성되는 가운데 가야산 권역에서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이형석등 중의 하나로 보았고, 석재의 구성이나 기단부의 배열패턴, 조식수법 등 모든 면에서 청석탑과 미감이 동일하여 청석탑과 同代의 作으로 보았다.

배례석은 上面에는 연화문이 측면에는 안상문이 시문된 통일신라 배례석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9세기 무렵 원당암의 가람배치 분석에 대해서는, 나말과 고려 초의 가람배치 차이는 강당의 유무에 있다. 강당은 산지가람이 시작되는 불국사 극락전 영역의 가람배치부터는 보이지 않으며 원당암에서 처음 출현하여 고려로 이어지는데, 고려 초의 원당가람에서는 진전의 유구가 가람의 축선상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III-2장에서 왕실의 영당으로 추론된 원당암의 강당이 가람의 축선상에 배치됨으로써 왕실 영당의 건축적 형태가 된 것에서 그 배경을 찾아보았다. 원당암의 강당은 고려와는 달리 금당 앞에 배치되는데 이는 사역 內 공간 활용상의 문제로 보았다. 또, IV장의 고찰에 따라 당대 원당암에는 금당과 강당이 있었으며 청석탑, 석등, 배례석 등이 조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통해 9세기 말 원당암의 가람배치는 강당-배례석-청석탑-육각형석등-금당이 회랑으로 둘러 있고 남북으로 수축된 자연석 석단 위에 동서의 가람축선을 가졌다. 이는 현재의 가람배치와 큰 차이가 없으며 심우당과 심검당은 당대에는 회랑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당암 예불영역의 가람배치가 창건기부터 오늘날까지 변화가 적은 것은 급경사지에 조성된 자연석 석단의 한계성으로 보았다.

이상으로 9세기 末 원당암의 가람배치와 신라 산지사찰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강당의 성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당암의 전체 사역에 대한 전면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가람을 추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찰의 첫 가람배치 고증이라는 측면에서 본 논문의 의미를 두고자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京雜記』

「葛項寺石塔記」, 『韓國金石全文』.

「甘山寺彌勒菩薩 造像記」, 『韓國金石全文』.

「開仙寺石燈」, 『韓國金石全文』古代.

「敏哀大王石塔記」, 『韓國金石全文』古代.

「方丈山實相寺史蹟記」, 『考古美術』109, 1971.

「寶林寺北塔誌」, 『韓國金石全文』古.

「鳳巖寺 智證大師碑」, 『韓國金石全文』.

「聖住寺 郎慧和尚碑」, 『韓國金石全文』.

「昌林寺無垢淨塔願記」, 『韓國金石全文』古代.

「鷺棲寺石塔舍利盒記」, 『韓國金石全文』.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 『韓國金石全文』.

「玄化寺碑陰記」, 『한국금석전문』.

강정근, 「화엄사 사사자석탑과 석등 연구」, 경주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13.

경상문화재연구원, 경상남도 함천군, 『陝川 靈巖寺址Ⅱ』, 2013.

경상문화재연구원, 『陝川 靈巖寺址Ⅲ, 함천 영암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2018.

고유섭, 『조선 탑과의 연구 下』, 열화당, 2010.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의 사지 2』, 201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芬黃寺 發掘調査報告書Ⅱ』, 2015.

국립문화재연구소, 『석등조사보고서 I』,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의 석탑Ⅱ』, 2017.

국립문화재연구소, 『석등조사보고서 I 간주석 편』, 1999.

김나연, 「쌍사자 석등 양식 연구:경전 근거를 중심으로」, 능인대학원대학

- 교 불교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8.
- 김민숙, 「화엄일승법계도에 나타난 화엄사상의 건축공간 구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 金奉烈·朴鍾進, 「高麗 伽藍의構成形式에 관한基礎的 研究」,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26, 1989.
- 金奉烈, 「朝鮮王室 願堂寺刹建築의構成形式」, 『大韓建築學會論文集』 93, 1996.
- 김상현, 「九世紀 후반의海印寺와新羅 王室의 후원」, 『新羅文化』 28, 2006.
- 김선, 「제주 수정사지 출토 청석탑의 제작지 검토」, 『고문화』 95, 2020.
- 김선주, 「신라 선덕여왕과 영묘사」, 『한국고대사연구』 71, 2013.
- 김성환, 「고려시대太祖의眞殿과奉業寺」, 『先史와 古代』 57, 2018.
- 김영선, 「해인사 소장책판의 판각처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8, 1998.
- 金逸林, 「한국 불교사찰의 입지유형과 경관구성」, 東國大學校大學院지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6.
- 김일림, 「韓國 佛教寺刹의 立地類型과景觀構成」, 東國大學校大學院 지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6.
- 金正基, 「靈山 法華庵의靑石塔」, 『美術史學研究』 3, 1960.
- 김창겸, 「통일신라시대 왕릉의 불교적 시설과 陵寺」, 『한국고대사탐구』 31, 2019.
- 金昌謙, 「합천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의 ‘大角干’銘 墨書」, 『신라사학보』 4, 2005.
- 남동신, 「고려 중기 왕실과 화엄종」, 『역사와 현실』 79, 2011.
- 남창근, 「高麗 本闕 景靈殿 一郭의性格과建築遺構를 통한復原」,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3), 2012.
- 노명호, 「고려태조 왕건 동상의 유전과 문화적 배경」, 『韓國史論』 50, 2004.
- 논산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論山 開泰寺址 6차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8.
- 대한불교진흥원, 『북한의 사찰』, 2009.
- 李龜烈, 「中興山城의 쌍사자석등」, 『法輪』 110, 2018.
- 리쩌허우 著·정병석 譯, 『中國古代思想史論』, 한길사, 2005.

- 文化財管理局,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文化財研究所, 1984.
- 박경식, 「9世紀 新羅 石造美術에 관한 연구」, 韓國敎員大學校大學院 歷史敎育學科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3.
- 박경식, 「唐代 石燈에 관한考察:한국석등의 기원과 관련하여」, 『白山學報』 83, 2009.
- 박경식, 「신라하대의 고북형석등에 관한 고찰」, 『史學志』 23, 1990.
- 박경식, 「우리나라의 석등 I」, 『古美術』 38, 1994.
- 박경식, 「우리나라의 석등 II」, 『古美術』 39, 1995.
- 박경식, 『統一新羅 石造美術 研究』, 學研文化社, 1994.
- 박경식, 『한국의 석등』, 학연문화사, 2013.
- 朴南守, 「新羅 眞殿寺院의 조영과 그 思想的 背景」, 『新羅文化』 40, 2012.
- 박남수, 「眞殿寺院의 기원과 新羅 成典寺院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1, 2012.
- 박덕원·홍세선·김철주·이춘오·이병태·윤현수, 「흑색사암(오석)과 흑색세일(청석)석재자원의 지질과 산출유형」, 『자원환경지질』 37(6), 2004.
- 朴彦坤·李琅姪, 『韓國 古代伽藍의 回廊에 關한 研究』, 『환경개발연구논문집』 6, 2001.
- 박윤미·강선정,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직물의 특성」, 『南道文化研究』 38, 2019.
- 박종석, 「한국 전통사찰의 봉로대 양식에 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21.
- 성주군·(재)대한문화재연구원, 『星州 法水寺址 I』, 2017.
- 성주군·(재)대한문화재연구원, 『星州 法水寺址 II』, 2018.
- 손진원, 『海印寺의 大寂光殿·法寶殿·願堂庵발견 腹藏典籍의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9.
- 송경하, 『불국사 석축에 나타나는 고대 석조건축의 구축법과 의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5.
- 신용철, 「신라 불탑에 있어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영향」, 『불교학연구』 23, 2009.
- 沈奉謹, 「陝川 淸涼寺址와石造物」, 『考古歷史學志』 9, 1993.
- 심창진, 「한국전통사찰의 지형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조경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1.

- 염중섭, 「佛敎宇宙論과寺院構造의 關係성 고찰」, 『건축역사연구』 17(1), 2008.
- 오세덕, 「경주普門洞 寺址에 관한 고찰」, 『고문화』 81, 2013.
- 오세덕, 「금산사의 시대별 가람배치 변화와 조선후기 후원자」, 『佛敎學報』 89, 2019.
- 오세덕, 「부석사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고찰」, 『新羅史學報』 28, 2013.
- 오세덕,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와 불국사 靑雲橋·白雲橋의 의미」, 『新羅史學報』 49, 2020.
- 오세덕, 「신라사찰 석축(石築)조성 방식 변화와 불국사 석축의 형식과 의미」, 『佛敎學報』 93, 2020.
- 오세덕, 「양주 회암사지 유구 분석을 통해 본 시기성과 조선시대 사찰에 미친 영향」, 『불교미술사학』 28, 2019.
- 오세덕, 「운문사의 遺物과 記錄을 통해 본 伽藍의 변화상」, 『新羅文化』 50, 2017.
- 오세덕, 「遠願寺址 석조물의 조성시기와 가람배치 변화 추정」, 『新羅史學報』 35, 2015.
- 오세덕, 「조선후기 雲門寺 전각의 건립시기와 伽藍配置 변화 검토」, 『강좌미술사』 50, 2018.
- 오세덕, 「충주 崇善寺址 유구분석을 통해 본 寺格과 가람배치 變化」, 『한국고대사탐구』 26, 2017.
- 오세덕, 「漆谷 松林寺의 가람배치 변화 고찰」, 『佛敎美術』 24, 2013.
- 오세덕, 「八公山 桐華寺의 창건시기와 伽藍의 변화과정 고찰」, 『佛敎學報』 79, 2017.
- 오세덕, 「신라사찰 석축(石築)조성 방식 변화와 불국사 석축의 형식과 의미」, 『佛敎學報』 93, 2020.
- 有璣, 「봉서사권선문」, 『好隱集』 권 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尹範模, 「浮石寺의 創建과 伽藍配置」, 『東國思想』 9, 1976.
- 尹張燮, 『韓國建築史』, 동명사, 1999.
- 윤정혜, 「통일신라시대 화엄사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2005.
- 이기홍, 「9-11세기 사찰의 금당형식을 통해 본 사찰배치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 李蘭英, 「韓國 雙獅子 石燈 樣式 研究 試論」, 『文化史學』 17, 2002.
- 이문기, 「883년 金魏弘의 海印寺 비로자나불상 造成의 背景과 意味」, 『대구사학』 119, 2015.
- 李仙珠, 「統一新羅時代 眼象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 이영선, 「고려시대 풍탁(風鐸)의 전개와 독창성」, 『文化財』 52(2), 2019.
- 李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경북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 이재연, 「伽倻山 地域 新羅石塔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2.
- 이재연, 「가야산 지역 신라석탑에 대한 연구」, 『東岳美術史學』 17, 2015.
-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2010.
- 이지관, 『伽倻山海印寺誌』, 伽山文庫, 1992.
- 李智冠,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2』 高麗編,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5.
- 이해인, 「향로의 조형미를 응용한 현대 향료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석사학위 청구논문, 2020.
- 張忠植, 「俗離山과 雉岳山の 靑石塔 二例」, 『美術史學研究』 126, 1975.
- 장충식, 「太康十一年銘 通度寺 拜禮石考」, 『美術史學研究』 151, 1981.
- 張忠植, 「統一新羅時代의 石燈」, 『美術史學研究』 158·159, 1983.
- 張忠植, 「海印寺 願堂 石造物에對하여」, 『동국대학교대학원 대학원연구논집』, 1977.
- 전민숙, 「고려시대 청석탑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전민숙, 「고려전기 석탑의 특성 연구」, 『東岳美術史學』 15, 2013.
- 전익정, 「한국 사찰 내 강당의 건축 형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공학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 전익정, 「한국 사찰 내 강당의 건축 형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 정명호 글·안장현 사진, 『석등』, 대원사, 1992.
- 鄭明鎬, 「廣明의 韓國 石燈」, 『博物館紀要』 28, 2013.
- 鄭明鎬, 「미륵사지 석등에 대한 연구」, 『馬韓百濟文化』 6, 1983.
- 鄭明鎬, 「百濟時代의 石燈·彌勒寺址 石燈을 中心으로」, 『馬韓百濟文化』 1, 1975.

- 鄭明鎬, 「牙山 神心寺의 靑石塔」, 『美術史學研究』 6, 1961.
- 鄭明鎬, 「益山地域에서 發見된 石燈을 中心으로」, 『馬韓百濟文化』 2, 1977.
- 鄭明鎬, 「靑龍寺 普覺國師塔碑와 石燈」, 『古考美術』 5, 1964.
- 鄭明鎬, 「韓國 石燈樣式史 연구」, 檀國大學校大學院 사학과 박사학위 청구 논문, 1992.
- 鄭明鎬, 「한국 石燈의 종류 I」, 『박물관회보』 4, 1993.
- 鄭明鎬, 「韓國石燈의 樣式變遷 -三國,新羅時代 石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0.
- 鄭明鎬, 「韓國의 石燈 小考」, 『東國思想』 15, 1982.
- 鄭明鎬, 『韓國石燈樣式』, 民族文化社, 1994.
- 정병삼·김봉렬·소재구, 『화엄사』, 대원사, 2005.
- 정성권, 『高麗 光宗을 보는 또 다른 시각』, 『한국인물사연구』 19, 2013.
- 鄭永鎬, 「寧越 武陵里的 靑石塔과 磨崖坐佛」, 『고고미술 첫걸음』, 학연문화사, 2000.
- 정은우·유대호,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美術史論壇』 45, 2017.
-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974.
- 정인중, 「삼국 및 통일신라 산지사찰의 형성과 변천과정」, 연세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 정필심, 「통일신라시대 사찰배치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 조범환, 「9세기 海印寺 法寶展 毗盧遮那佛조성과 檀越세력」, 『민족문화』 45, 2015.
- 조창한·이현식, 「한국사찰건축의 배치구성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10(1), 1990.
- 秦弘燮, 「統一新羅時代 特殊樣式の 石塔」, 『美術史學研究』 158·159, 1983.
- 蔡尙植,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1984.
- 崔成鳳, 「義城郡 大谷寺의 靑石塔」, 『美術史學研究』 26, 1962.
- 崔英成, 『역주최치원전집2』 孤雲文集, 亞細亞文化社, 1999.
- 忠淸大學博物館, 『충주 송전사지1~4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경기1-』, 2013.
- 한국학문헌연구소, 『泰安寺誌』, 아세아문화사, 1984.

-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사지총서』 11, 아세아문화사, 1983.
- 韓基汶, 「高麗時代 開京 奉恩寺의 創建과 太祖眞殿」, 『韓國史學報』 33, 2008.
- 한기문,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한국선학』 2, 2001.
-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 韓基汶, 『高麗時代 開京 奉恩寺의 創建과 太祖眞殿』, 『韓國史學報』 33, 2008.
- 韓普光, 『신앙결사연구』, 여래장, 2000.
- 한상훈, 「고려시대의 특수형 석탑에 관한 연구 - 청석탑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1982.
- 해인사정보박물관, 『願堂: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유물 특별전』, 해인사정보박물관, 2017.
- 許興植, 「佛敎와 融合된 高麗王室의 祖上崇拜」, 『東方學志』 45, 1984.
- 허흥식, 「皇福寺 石塔 金銅舍利函銘」, 『韓國金石全文』 1, 1984.
- 許興植, 『韓國 金石全文』 古代編, 亞細亞文化社, 1984.
- 홍광표, 「新羅寺刹의 空間形式 變化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조경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1992.
- 홍대한, 「고려시대 청석제 다층석탑 고찰 I」, 『文化史學』 32, 2009.
- 황수영, 「新羅 法光寺 石塔記」, 『白山學報』 8, 1970.
- 황호균, 「開仙洞 石燈 銘文考」, 『불교문화연구』 7, 2000.

[사진출처목록]

- [사진 1] 원당암 현재 가람배치, 네이버 지도.
- [사진 2] 화엄사 정면 석단, 연구자 촬영.
- [사진 3] 화엄사 배면 석단, 연구자 촬영.
- [사진 4] 영암사지 석단, 연구자 촬영.
- [사진 5] 부석사 석단, 연구자 촬영.
- [사진 6] 동화사 석단, 연구자 촬영.
- [사진 7] 원당암 석조기단재, 연구자 촬영.
- [사진 8] 원당암 보광전 기단, 연구자 촬영.
- [사진 9] 심우당 기단, 연구자 촬영.
- [사진 10] 원당 기단, 연구자 촬영.
- [사진 11] 심검당 기단, 연구자 촬영.
- [사진 12] 경남 합천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 기단(유리건판), 『유리원판목록집』Ⅲ 33, 48-14
- [사진 13] 보광전 전경, 연구자 촬영.
- [사진 14] 보광전의 안상문과 연화문, 연구자 촬영.
- [사진 15] 원당 전경, 연구자 촬영.
- [사진 16] 적층식 유형의 청석탑, 연구자 촬영(반룡사 제외).
- [사진 17] 가구식 유형의 청석탑, 연구자 촬영.
- [사진 18] 불상대좌식 유형의 청석탑, 연구자 촬영.
- [사진 19] 청석탑 결구방법, 연구자 촬영.
- [사진 20] 청석탑 기단부 형성과정, 연구자 촬영(석굴암 삼층석탑 제외).
- [사진 21] 경남 합천 해인사 원당암 원당암 석등(유리건판), 『유리원판목록집』Ⅱ 79, 340029.
- [사진 22] 원당암 배례석, 연구자 촬영.
- [사진 23] 원당암 석단, 연구자 촬영.
- [사진 24] 영암사지와 실상사 백장암, 연구자 촬영.

[그림출처목록]

- [그림 1] 심우당 기단부 면석, 연구자 작성.
- [그림 2] 황룡사 1차 가람배치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황룡사 출토 유물 자료집 유물로 본 신라 황룡사』, 2013, p. 60.
- [그림 3] 황룡사 2차 가람배치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황룡사 출토 유물 자료집 유물로 본 신라 황룡사』, 2013, p. 60.
- [그림 4] 분황사 가람배치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Ⅱ』, p. 103.
- [그림 5] 사천왕사 가람배치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 녹유신장 벽전』, 2012, pp. 63-64.
- [그림 6] 망덕사지 추정 가람배치도, 『경주 망덕사지 발굴조사보고서(69·70년 발굴조사)』, 2015, p. 311.
- [그림 7] 불국사 가람배치도,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 Ⅱ』, 2017, p. 6.
- [그림 8] 화엄사 가람배치도, 문화재청, 『구례 화엄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2013, p. 53.
- [그림 9] 영암사지 가람배치도, 재단법인 경상문화재연구원, 『합천 영암사지 IV-합천 영암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세종문화사, 2021, p. 185.
- [그림 10] 부석사 가람배치도, 문화재청, 『부석사 무량수전 실측조사 보고서』, 2002, p. 117.
- [그림 11] 보광전 초석 위치 및 모양, 연구자 작성.
- [그림 12] 보광전 초석 위치 및 번호, 연구자 작성.
- [그림 13] 심우당 초석 위치 및 모양, 연구자 작성.
- [그림 14] 심우당 초석 위치 및 번호, 연구자 작성.
- [그림 15] 원당 초석 분류, 연구자 작성.
- [그림 16] 원당 초석 위치 및 번호, 연구자 작성.
- [그림 17] 화단 부재, 연구자 작성.
- [그림 18] 청석탑 분포도, 연구자 작성.
- [그림 19] 합천 청량사 가람배치도, 심봉근, 「陝川 淸涼寺址와 石造物」, 『고고역사학지』 9, 1993, pp. 533-534.
- [그림 20] 법수사지 가람배치도, (재)대한문화재연구원, 『星州 法水寺址』. 2017, p. 40.

- [그림 21] 불일사지 가람배치도, 장경호, 『韓國의 傳統建築』, 문예출판사, 1996, p. 219.
- [그림 22] 충주 숭선사지 가람배치도,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유적 발굴조사 자료 - 사찰편(경기·충북·충남)』, 정일사, p. 914.
- [그림 23] 논산 개태사지 가람배치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論山 開泰寺址 6차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8, p. 33.
- [그림 24] 9세기 말 원당암 가람배치도, 연구자 작성.

[부 록]

[부록 1]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문헌 목록과 내용²⁵¹⁾

제목	연대	내용	크기(cm)
佛像 腹藏 記文	1694년 7월 17일	按古記願堂迺新羅三十九哀莊大王踐祚三年卽唐貞元十八年親幸于此勅「海印也奉爲烈祖文聖大王追冥福之所戡建也殿有三聖像虎踞盤龍上以無量」壽爲主千葉寶蓮中以觀勢爲左右盖悠一時之所共造而惜其無年號之欠哉吁自「貞元以來幾見風雲之變態金泥剝落未免龜坼圻之痕遠而微之近以非矣寺僧崇」悅宗眼獻金以重修璨然神像儼然踞座遠之嚴「近之慈」此豈非福國祐世之像耶「古人所謂今人之功政在於前人之前矣然則悅眼之功嵬乎大哉結緣芳銜開列于后乃爲頌」祝「以此勝功 佛光遍照 三千大千 天上人間 邦基地久 聖壽天長 先亡父母」皆往西方 親見彌陀 同蒙記光 七趣三途 俱惺歇狂 亦願現今 化緣結緣生獲」五福 當證法王 此岸彼岸 互爲主伴」康熙三十三年甲戌七月十七日翫月沙彌處徽謹誌「證師卓根」持殿一元」僧統尙軒」前僧統胤一」冲惠」信佳」天機」思一」大禪師惠能」曇華」尙能」處徽」執綱融印」前執綱曇絢」善寬」老德元海」釋惠」雪清」楚嚴」允海」戒允」性岑」祖坦」靈惠」杜瓊」竺玄」能貧」思悅」信謙」懷演」澤善」眞一」得性」聖勒」處益」得心」智還」戒映」聖學」法薰」熙遠」冲衍」機眼」衛澄」敏湖」衛閑」圻宗」衛賢」怡察」施主秩」戒允比丘」崔厚京」信祐比丘」金彥生」吳大海」金斗義」孫金伊」朴一祥」金伍尙」曹太吉」嚴弼伊」趙武生」普益比丘」李行間」金談沙里」柳一龍」金從萬」孫忞立」畫員秩」法岑」法宗」敬天」清湛」智日」供養人」道玄」文悟」雪湜」別座」特靈」三綱」就眼」衍一」就信」三綱」就眼」衍一」就信」化主」崇悅」	白紙墨書, 38.3×177 .0cm

		宗眼」	
願文	1694년 7월 17일	伏願從今至老永無災害身無疾病願我臨終不見異類直」到西方即見 彌陀丈六金軀立侍立莊嚴觀音勢至生 〃 〃 世 〃 不墮惡趣願生佛刹 融印投誠」	白紙墨書, 40.0×60.0cm
改金發願文	1983년 10월 24일	海印叢林」方丈 退翁 性徹」十四庵子」山中大衆 五百名」願堂庵大衆名單」證明 慧菴 性觀」比丘 哲雨」々 能度」沙彌 大悟」々 宗徹」々 宗悟」院主 正默」金魚 全漲祐」々 鄭萬五」々 田都成」負木 田永棟」供司 鄭大願華」禪院大衆」々 金大願性」々 李普陀行」々 盧金剛心」々 李大慈行」施主秩」許용 李중만 박영달」丁水月華 임정각 구태희」曹無碍性申智郁 김태영」許普賢性 박영곤」金仕龍(陰)」仏紀二五二七年十月二十四日 願堂庵	白紙墨書, 23.3×62.8cm

※ 내용 중 ‘ 〃 ’는 줄바꿈 표시이다.

[부록 2] 불서사판 불교전적 목록

번호	표제	발행 사항	주기 사항
		판 사항	
		형태 사항	
1	高峰和尚禪要	陝川(慶南) : 伽耶山鳳栖寺, 燕山 7(1501)後刷	刊記: 弘治十四年辛酉(1501)秋有日 慶尙道陝川土伽耶山鳳栖寺開板
		木版本	
		1冊53張	
2	高峰和尚禪要	陝川 : 鳳栖寺	卷末: 弘治十四年(1501)辛酉秋有日 慶尙道陝川土伽耶山鳳栖寺開板
		木板本	
		1冊(39張)	
3	牧牛子修心訣	陝川 : 鳳栖寺	版心題: 修心訣 卷末: 發願文, 印經施主(木板 1張) 諺解本, 한글吐(木板)
		木板本(後刷本)	
		1冊	
4	牧牛子修心訣	陝川 : 鳳栖寺, 燕山君 5(1499)	表紙書名: 指南文 附錄: 法語 刊記: 弘治十二年(1499)庚申仲冬有日 慶尙道陝川土伽耶山鳳栖寺開板
		木板本	
		1冊(54張)	
5	牧牛子修心訣	陝川 : 鳳栖寺	刊記[실은 舊刊記]: 弘治十二[실은 三]年庚申(1500)仲冬有日慶尙道陝川[?]伽耶山鳳栖寺開板
		.	
		1冊(46張)	
6	牧牛子修心訣	陝川 : 伽耶山鳳栖寺, [19--]	版心題: 修心訣 刊記: 弘治十三年(1500)庚申仲冬有日慶尙道陝川土伽耶山鳳栖寺開板
		木板本	
		1冊	
7	牧牛子修心訣	陝川 : 鳳栖寺	訓民正音譯解本 刊記: 弘治十三年庚申(1500)冬有日 慶尙道陝川地伽耶山鳳栖寺開板
		木板本	
		1冊(60張)	
8	牧牛子修心訣	陝川 : 鳳栖寺, 燕山君 6(1500)	卷末: 弘治十三年庚申...留板于慶尙道陝川土伽耶山鳳栖寺 합철:合綴: 禪宗唯心訣 / 延壽速
		木板本	
		1冊(62張)	

9	牧牛子修心訣	伽倻山：鳳栖寺，燕山君 6(1500)	附：禪宗唯心訣 刊記：弘治十三年庚申(1500)
		木板本	
		1冊	
10	牧牛子修心訣	陝川郡：伽耶山鳳栖寺， 弘治 13(1500)	版心題：修心訣 諺解本임 刊記：弘治13年庚戌(1500)仲 冬伽耶山鳳栖寺開板
		木板本	
		1冊	
11	牧牛子修心訣	陝川郡：伽耶山鳳栖寺， 弘治 13(1500)	版心題：修心訣 諺解本임 刊記：弘治13年(1500)仲冬伽 耶山鳳栖寺開板
		木板本	
		1冊	
12	牧牛子修心訣 附諺解	陝川：伽倻山 鳳栖寺， [19--]，燕山 5(1499)刻	版心題：修心訣 國漢文混用 刊記：弘治十二年庚申(1499) 仲冬有日慶尙道陝川土伽耶山 鳳栖寺開板
		木板本	
		1冊	
13	牧牛子心訣	陝川：鳳栖寺，1499	·
		木板本[後刷]	
		1冊	
14	禪宗唯心訣	陝川伽倻山：鳳栖寺，燕 山君6(1500)	刊記：弘治十三年庚申(1500) 仲冬有日...留板于慶尙道陝川 地伽倻山鳳栖寺
		木板本	
		16張	
15	禪宗唯心訣	陝川：鳳栖寺，燕山 6(1500)刻	版心題：訣 刊記：弘治13(1500)信女謹記
		木板本	
		1冊(16張)	
16	禪宗唯心訣	陝川：鳳栖寺，燕山 6(1500)刻	國漢文混用 刊記：弘治十三年(1500)辛西 秋有日...留板于慶尙道陝川土 伽倻山鳳栖寺
		木板本	
		1冊(115張)	
17	禪宗唯心訣	陝川：鳳栖寺，燕山 6(1500) [後刷]	版心題：訣 卷末：弘治十三年庚申(1500) 仲冬有日茲結良因善男信女謹 記...留板于慶尙道陝川土伽耶 山鳳栖寺
		木板本	
		1冊16張	

18	震默祖師遺蹟 考, 卷1-2	[陝川] : [鳳棲寺], 哲宗 8(1857)	序: 歲丁巳(1857)日至南金永 學魯元謹識 跋: 歲丁巳(1857)日南至 金永 學魯元謹識
		木板本	
		2卷1冊	
19	賢首諸乘法數	陝川 : 鳳栖寺	表紙書名 : 諸乘法數 刊記: 慶尙道陝川地伽倻山鳳 栖寺開板 跋: 弘治十三年庚申(1500)... 燈谷 序: 宣德丁未(1427)歲季秋. 洪武丁卯(1387)...
		木板本	
		11卷1冊	
20	賢首諸乘法數	陝川 : 鳳栖寺, 燕山君 6(1500)跋	跋: 弘治 十三年(1500)...燈谷 序: 洪武丁卯(1387)...梵고
		木板本	
		1冊(68張)	
21	賢首諸乘法數	陝川 : 鳳栖寺	刊記: 慶尙道陝川地伽倻山鳳 栖寺開板 卷末: 至正乙未(1355)...宏演. 弘治十三年庚申(1500)...燈谷 序: 宣德丁未(1427)歲季秋. 洪武丁卯(1387)...
		木板本	
		11卷1冊	
22	賢首諸乘法數	陝川 : 鳳栖寺, 燕山 6(1500)後刷	刊記: 弘治十三年庚申(1500) 自恣月海印寺老衲燈谷跋. 慶 尙道陝川地伽倻山鳳栖寺開板
		木板本	
		11卷1冊	
23	賢首諸乘法數. 1-2(卷1-11)	陝川 : 鳳栖寺	表紙書名 : 賢首法數 刊記: 慶尙道陝川地伽倻山鳳 栖寺開板 跋: 弘治十三年庚申(1500)... 燈谷 序: 宣德丁未(1427)歲季秋. 洪武丁卯(1387)...
		木板本	
		11卷2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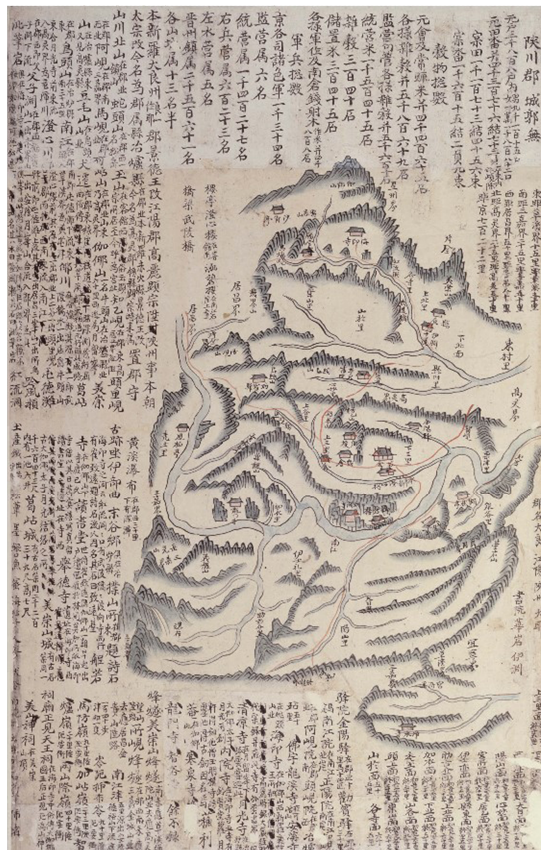
24	賢首諸乘法數	[慶尙道]：伽倻山鳳栖寺	附：沙門本勝讚法數銘. 八識 心王諸門料簡 弘治十三年庚申自恣月海印寺 老衲燈谷跋 刊記：慶尙道習川地伽倻山鳳 栖寺開板(卷末)
		木板本	
		11卷1冊	
25	賢首諸乘法數 = Hyōnsu chesŭng pōpsu	陝川：鳳栖寺，燕山君 6(1500)	刊記：慶尙道陝川地伽倻山鳳 栖寺開板 序：洪武丁卯(1387)...梵翽 / 序：宣德丁未(1427)歲季秋 / 序：宣德二年歲次丁未(1427) 歲季秋... / 跋：弘治十三年 (1500)...燈谷
		木板本	
		1冊(75張)	
26	賢首諸乘法數	陝川 伽耶山：鳳栖寺， 燕山君 6(1500)	刊記：慶尙道陝川地伽耶山鳳 栖寺開板 序：宣德丁未(1427) 重編序：洪武丁卯(1387)...天 台梵翽序 跋：弘治十三年庚申(1500)自 恣月海印寺老衲燈谷跋
		木板本	
		11卷1冊	
27	賢首諸乘法數	陝川：鳳栖寺，燕山君 6(1500)	表題：法數 刊記：慶尙道 陝川地 伽耶山 鳳栖寺 開板 跋：弘治十三年(1500)...海印 寺 老衲燈谷 序：洪武丁卯(1387)...天台梵 翽
		木板本	
		2冊	
28	賢首諸乘法數 = Hyōnsu chesŭng pōpsu	陝川：鳳栖寺，燕山君 6(1500)	刊記：慶尙道陝川地伽倻山鳳 栖寺開板 序：宣德二年歲次丁未(1427) 歲季秋... 序：宣德丁未(1427)歲季秋 序：洪武丁卯(1387)...梵翽 跋：弘治十三年(1500)...燈谷
		木板本	
		1冊(78張)	

29	賢首諸乘法數	陝川：伽耶 鳳栖寺，燕山 6(1500)	序：宣德二年歲次丁未(1427)秋重陽日，宣德丁未歲(1427)季秋，洪武丁卯(1387)姑蘇寧境…天台梵立序 跋：弘治十三年庚申(1500)自恣月…燈谷跋 刊記：慶尙道陝川地伽耶山鳳栖寺開板
		木板本	
		1冊	
30	賢首諸乘法數 卷1-11	陝川：伽耶山 鳳栖寺，燕山 6(1500)	序：洪武丁卯(1387)姑蘇寧境…天台梵立序 跋：弘治十三年庚申(1500)自恣月海印寺老衲燈谷跋 刊記：慶尙道陝川地伽耶山鳳栖寺開板
		·	
		11卷1冊	
31	賢首諸乘法數	[慶尙道]：鳳栖寺，燕山君 6(1500)	弘治十三年庚申自恣月海印寺老衲燈谷跋 刊記：慶尙道習川地伽倻山鳳栖寺開板(卷末) 跋：弘治十三年庚申(1500)…燈谷 序：宣德丁未(1427)，洪武丁卯(1387)…梵立
		木板本	
		11卷1冊	
32	賢首諸乘法數	陝川：鳳栖寺	刊記：慶尙道陝川地伽耶山鳳栖寺開板 序：至正十五年(1355)…歐陽玄 跋：弘治十三年(1500)…燈谷
		木板本	
		1冊(83張)	
33	賢首諸乘法數	陝川：鳳栖寺，燕山君 6(1500)跋	刊記：慶尙道陝川地伽倻山鳳西寺開板 跋：弘治十三年庚申(1500)自恣月海印寺衲燈谷跋 序：宣德丁未歲(1427)季秋
		木板本	
		11卷1冊	

34	賢首諸乘法數	陝川：鳳栖寺，燕山君 6(1500) [後刷]	刊記：慶尙道陝川地伽耶山鳳 栖寺開板 跋：弘治十三年庚申(1500)自 恣月海印寺老衲燈谷跋 序：宣德丁未(1427)歲季秋
		木板本	
		11卷1冊	
35	賢首諸乘法數	陝川：鳳栖寺，燕山君 6(1500)跋	刊記：慶尙道 陝川地伽耶山 鳳栖寺開板 跋：弘治十三年庚申(1500)自 恣月海印寺老衲燈谷跋
		木板本	
		11卷1冊	
36	賢首諸乘法數. 卷1-11	陝川：鳳栖寺，燕山 6(1500)	跋：...弘治十三年庚申(1500) 自恣月海印寺老衲內燈谷跋 刊記：慶尙道 陝川地伽耶山 鳳栖寺開板
		木板本	
		11卷2冊	
37	賢首諸乘法數. 卷1-11	陝川：鳳栖寺，燕山君 6(1500)跋	刊記：慶尙道陝川地伽耶山鳳 栖寺開板 序：宣德丁未(1427)歲季秋 跋：弘治十三年庚申(1500)自 恣月海印寺老衲燈谷跋
		木板本	
		11卷1冊	
38	賢首諸乘法數	陝川：鳳栖寺，燕山 6(1500)	跋：弘治十三年庚申(1500)自 恣月海印寺老衲燈谷跋 刊記：慶尙道陝川地伽耶山鳳 栖寺開板
		木板本	
		1冊(78張)	
39	賢首諸乘法數	陝川 伽耶山：鳳栖寺， 燕山君 6(1500)	刊記：慶尙道陝川地伽耶山鳳 栖寺開板 跋：弘治十三年庚申(1500)自 恣月海印寺老衲燈谷跋
		木板本	
		11卷1冊	
40	賢首諸乘法數	陝川：鳳栖寺 木板本(後副本)	卷頭：賢首諸乘法數序：宣德 丁未(1427)， 重編賢首法序： 洪武丁卯(1387)...梵古， 藏乘 法數敍：至正十五年(1355)... 歐陽玄， 藏乘法數序：至正乙 未(1355)...宏演， 起教佛相 卷末：跋：弘治十三年庚申 (1500)...燈谷， 發願文(木板)， 印經施主(木板 1張)
		1冊(78張)	

41	賢首諸乘法數	陝川：鳳栖寺，燕山 6(1500)	刊記：慶尙道 陝川地 伽倻山 鳳栖寺 開板 跋：弘治十三年庚申(1500)... / 燈谷 序：乙未(1355)... / 宏演
		木板本	
		11卷1冊	
42	賢首諸乘法數	陝川 伽耶山：鳳栖寺， 1500	刊記：慶尙道陝川地伽耶山鳳 栖寺開板 跋：弘治十三年庚申(1500)自 恣月海印寺老衲燈谷跋
		木板本	
		11卷1冊	
43	賢首諸乘法數	伽倻：鳳栖寺，燕山君 6(1500)刻[朝鮮末期後刷]	楮紙
		木板本	
		11卷1冊	
44	賢首諸乘法數 =Hyönsu chesŭng pöpsu	陝川：鳳栖寺，燕山君 6(1500)	刊記：慶尙道陝川地伽耶山鳳 栖寺開板
		木板本	
		1冊	

[부록 3] 원당암이 표기된 고지도



『해동지도(海東地圖)』, 1724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大4709-41-v.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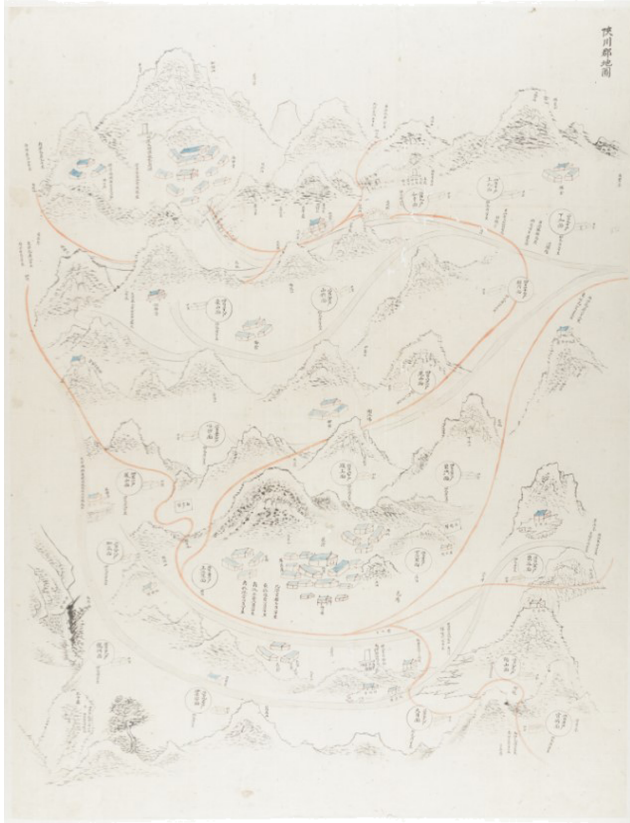
『해동지도(海東地圖)』에 표시된 원당암



『광여도(廣輿圖)』, 1737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90-58.



『광여도(廣輿圖)』에 표시된 원당암



1872년 『지방지도』, 조선 후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타99999.



1872년 『지방지도』에 표시된 원당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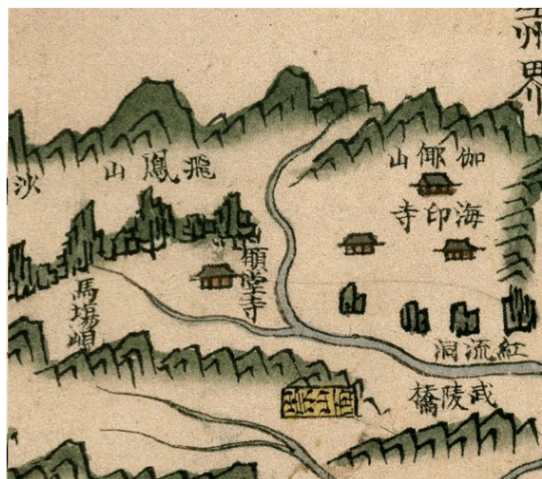
『지승(地乘)』, 조선 후기,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5423-v.1-6



『지승(地乘)』에 표시된 원당암



『여지도(輿地圖)』, 조선 후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68-v.1-6.



『여지도(輿地圖)』에 표시된 원당암

[부록 4]

조위(曹偉), 『매계집(梅溪集)』, 「서해인사전권후(書海印寺田券後)」

右四十三幅。庚戌春。學祖和尚承懿旨。重創毗盧殿。都料匠朴仲石。得之樑楣結構中。乃本寺買田莊券也。按史乾符只六年。而此稱七年。廣明只一年。而此稱三年。中和只四年。而此稱五年。龍紀只一年。而此稱三年。景福只二年。而此稱三年者。新羅越在海外。改元頒朔。或踰年。或隔年。然後始到故也。其稱藪者。卽叢林之謂也。乙巳以前。只稱北宮海印藪。庚戌以後。始稱惠成大王願堂者。蓋角干魏弘。死於戊申二月。實眞聖女主之二年也。主念弘私侍之寵。追封爲惠成大王。則此云惠成者。其爲魏弘無疑。而康和夫人者。亦必弘之妻也。後十一年丁巳六月。眞聖傳位於孝恭王。而十二月。薨於北宮。則竊意海印爲弘之願堂。故主去位釋權。惟嫪毒之是念。托身佛宇之中。竟殂於此。其欲同穴之志。亦皎然矣。券內文字。與今吏牘頓異。多所未解。獨愛其自乾符戊戌。至于今六百一十餘年。人世之興亡離合。幾許變遷。而獨此斷簡故紙。宛然尙存於兵火蟲蠹之餘。豈不爲可感耶。第恨當時文籍。散逸無徵。末學荒蕪。聞見不博。爲未盡辨云。弘治四年歲在辛亥秋七月十有一日梅溪曹大虛。書。

[부록 5]

최치원(崔致遠),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량기(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

嘗聞大一山釋氏援金言而警沙界云。戒如大地。生成住持。蓋發心業之謂也。故大經曰。世及出世諸善根。皆依最勝尸羅地。然則地名相協。天語可尋。國號尸羅。實波羅提興法之處。山稱伽倻。同釋迦文成道之所。而況境超二室。峯聳五臺。儼茲隆崛之奇。宛是清涼之秀。由是門標海印而雲蔚義龍。道倚山王而風嚴律虎。贊興三於勝壑。年僅百於和居。而顧結界嶽峯。權輿齷齪。議諧改作。律許開張。遂於乾寧四載之秋。宴坐九旬之杪。爰謀拓土。佇俟布金。莫不地媪齋心。天神悅目。矧在山中仙境。眞爲海外福場。然金界易標。珠輪難瑩。如或有心不斂。其猶無翅欲飛。身同乎玉葉隨風。生何可保。戒異乎金波出海。虧必難圓。況今象法將衰。魔軍競起。觀日暮而途邈。慮烟深而火熾。道訓曰。其安易持。儒書云。不戒謂暴。制惟人道。可不勸歟。畫界四周。悉數如左。諒所謂起屋三層。昇樓四級。好是高山易仰。覬無反水難收。則斯地也。介如金剛。巋然玉刹。威鎮俗而庾塵斯絕。德勝妖而張霧莫侵。且洗心曰齋。防患曰戒。儒猶若此。釋豈徒然。欲避鬼遮。勉求神護。時有唐乾寧五祀之隕月也

해인사 원당암 석조물의 건립시기와 9세기 가람배치 연구

반 수 정

慶州大學校 大學院

문화재학과

지도교수 오세덕

(국문초록)

본고는 해인사 원당암의 9세기 말 가람배치를 추정하고, 가람의 정면에 등장하는 강당의 의미를 살피는 연구이다.

원당암은 802년 鳳棲寺로 창건되었다. 신라하대 봉서사는 왕실과의 두터운 관계에서 원당이라는 별칭이 생긴 후 20세기 들어 願堂庵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원당암은 가야산 자락에 있는 산지가람으로 자연석을 이용한 대석단 위에 조성되어 있으며, 이 대석단은 오늘날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된다.

원당암 경내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부재들이 산재하고 있다. 그 중 청석탑은, 신라 석탑사를 반영한 본고의 견해로는 9세기 말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석등은 청석탑과 미감이 같아 동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사역 내의 운두가 높은 초석을 통해서는 당대 원당암의 사격이 상당히 높았으며, 기둥이 있는 면석부재를 통해서는 금당과 강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9세기 말 원당암은 금당, 강당, 청석탑, 석등, 배례석등을 갖춘 가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9세기 원당암 가람배치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가람의 정면에 강당이 건립된 점이다. 신라 사찰의 강당은 금당의 뒤쪽에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식이지만 원당암의 경우는 강당이 금당 앞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신라 최초의 사례로 이 강당은 일반 사찰의 강당과는 다른 특별한 기능을 수행했던 공간으로 여겨진다. 즉, 이 공간은 사찰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을 추복하기 위한 원당의 기능을 했던 것이다. 원당암의 강당은 신라하대 조사들을 위한 조사당이나 영정각의 건립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고려 진전 조성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해인사 원당암, 산지가람, 가람배치, 석축조영, 초석, 석조기단, 청석탑, 이형석등, 원당(願堂), Blue Stone Pagodas, Pagodas made of Clay-Slate Stone

Study on Stonework Establishment Date and Temple Placement of Wondangahm of Haeinsa Temple in the 9th Century

Ban Soo Jung

Department of Culture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Oh Se Deok

(Abstract)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arrangement of the temple at the end of the 9th century at Wondangam of Haeinsa Temple and examine the meaning of the kangdang that appears in front of the temple.

Wondangam was established in 802 as Bongseosa. In the period of the Silla Dynasty, Bongseosa was granted a nickname, Wondang, out of this loyal relationship with the royal family, and the temple's name changed to Wondangahm in the 20th century. Wondangahm as a mountain temple found on the slopes of Gayasan Mountain was established on this big stone platform made of natural stones, and the big stone platform has been maintained in a favorable state without any noticeable changes till the present time.

In the yard of Wondangahm, pieces of architecture from the united

Silla are found. Among them, the Blue Stone Pagoda is estimated to have been built at the end of the 9th century in the view of this paper reflecting the history of changes in the Silla stone pagoda, and the stone lantern was considered to have been manufactured at the same time as the Blue Stone Pagoda had the same aesthetics. Through the foundation stone of Wondangam, the status of Wondangam of the time was quite high,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Keumdang and a Kangdang through the building materials of the stone structure with pillar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Wondangam at the end of the 9th century was a temple equipped with a Keumdang, a Kangdang, a Blue Stone Pagoda, the Stone Lantern, and a Baerye Stone.

The most characteristic part of the 9th century Wondangam temple layout is that the Kangdang was built in front of the temple. The Kangdang of Silla temples is usually built behind the Keumdang, but in the case of Wondangam, the Kangdang is built in front of the Geumdang. This is the first case of Silla, and this Kangdang is considered to be a space that performed a special function different from that of a general temple. In other words, as the name of the temple suggests, this space served as a hall to commemorate the king. The Kangdang of Wondangam was influenced by the construction of Josadang or Yeongjeongkak for high priests of the Silla Dynasty, and it seems to have served as the background for the creation of Jinjeon in Goryeo.